



6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6호

(루계 476)



◆◆◆◆◆◆◆◆◆◆

차 례

◆◆◆◆◆◆◆◆◆◆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4
영원히 그날의 모습으로	6
녀전사는 오늘도 수령님 모셔가네	6
한평생을 헤쳐가시는 그 길	7
가림천기슭의 작은 집에서	8
만수대의 노을	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인사를	9
노을 타는 구내길을... ..	9
그 하나만으로도	10
후치령	10
보천보의 새 모습	11
내 한생 찾던 그 부름에	14
6월 25일 (외 1 편)	15
그들을 아끼라	16
대담한 시도, 응당한 결실	17
소생	19
보답	27
《노래를 부르지 말것》	34
약속	35
전호숙의 물동이	41
세대의 임무	42

순천의 밤에 (외 2 편)	48
대성산 옛 성터에서	49
축복받은 사랑	49
하나로 이어지는 마음	50
축복의 인사	51
고요한 한낮에	52
궁지	52
노래와 함께 사는 의미	53
꽃피는 군민일치	54
대학생아, 너를 쳐다본다 (외 1 편)	56
평범한 로인	57
참된 삶을 지향하는 인간들의 진실한 형상	65
예술영화 《보증》중에서	70
단군대와 천주석	71
금강산	72
향봉에 비끼는 아침노을	74
속담풀이	7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일기념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 심사결과	78
울분에 편다	79
남녘에 부치노라	80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전진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보람찬 역사적시기에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제3차 7개년계획과 사회주의건설구상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이며 일대 비약의 리정표이다. 조국의 무궁한 통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위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면 전체 인민이 비상히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당의 부름따라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온 나라에 혁명적기상이 나래쳐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정신을 간직하는것이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겠다는 투철한 혁명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로부터 우리 당은 최근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당선전사업을 실속있게 잘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사상교양사업을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한다는것은 광범한 대중이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며 모든 사업을 당과 수령이 의도하고 지향하는대로 진행되도록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의 하나인 우리 문학은 시대를 지향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관철제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합니다. 현

실에 뒤떨어지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지 못하는 문학예술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 할수 없습니다.》

우리 문학이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의도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그 관철에 한몸바쳐 싸워나가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현실보다 항상 앞장서나가면서 시대의 기수가 되고 고수가 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문학이 새롭게 탐구하고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해야 할 미학실천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그 찬란한 미래에 우리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수행에로 사람들을 고무추동하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더 높은 시대적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전망을 안고 있는 시대에 살고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 오기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을 가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의 사회미학적리상을 구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밝은 전도를 처음으로 밝혀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그를 현실로 구현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새로운 폭과 심도, 최상의 높이로 형상해야 할것이다.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할데 대한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

다.

당과 수령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완전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시대의 전형, 그것은 주체사상과 혁명전통, 일심단결을 생명선으로 하고있는 당의 전사이다. 주체사상과 혁명전통,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투쟁하는것은 우리 시대 인간전형의 근본행이다. 그것은 부닥친 난관앞에서 주저앉거나 남을 쳐다보는것이 아니라 제힘을 믿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혁명적기풍에서 표현되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고수하고 튼튼히 다져나가는 투철한 정신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새시대의 이러한 전형을 더 훌륭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시대를 지향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특히 형상을 집중해야 할것은 우리 당의 사상리론과 정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가장 혁명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여 우리 혁명의 진로를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업과 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정책을 자로 하여 분석판단하며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전형의 성격적특질이 있다. 우리 문학은 당의 가장 옳바른 사상리론을 가지고 혁명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경제건설과 경제관리, 문화건설과 생활양식의 모든 면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인간형상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또한 전체 인민이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 다시말하여 사상의지의 일치성과 신뢰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위대한 통일단결,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성격형상에 혁명적동지애를 뜨겁게 체현시키는것이 창작실천적으로 중요하다. 당의 령도를 받드는 사업은 모든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르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형상의 화폭우에 서로 합심하여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며 발양되는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동지적사랑의 미풍이 활짝 꽃피나게 하여야 한다.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미학실천적으로 중요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신심과 락관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거창한 창조와 건설이 진행되며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유구한 민족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룡성과 번영의 새력사가 펼쳐지는 우리 시대의 힘찬 전진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고있으며 솟는길을 헤쳐나가고있다. 그만큼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난관이 있을수 있으며 우리는 간고한 행군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신심과 량만의 기백과 정서가 뜨겁게 굽이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휘황한 미래,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만만한 투지와 신심,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또한 혁명전통주체, 조국에 대한 주제, 새것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작품 등을 비롯하여 당이 밝혀준 중요주체분야들에 대한 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함으로써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당사상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에 충실히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창작에서 그 성과의 요인은 작가의 높은 사회미학적리상에 있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당사상전선의 초병이라는 높은 혁명적자각과 사명감을 간직하고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선전자로서의 문학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당적작가로서의 혁명적본분에 대한 투철한 자각만이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는 작품 창작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작가들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되는 제3차 7개년계획에서 돌파구를 여는 올해 전투에 힘있게 돌입하여 거창한 창조와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벽찬 현실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시대의 숨결과 맥박을 당적작가의 뜨거운 심장으로 체득하고 시대를 지향시켜나가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함으로써 당사상전선의 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영원히 그날의 모습으로

-보천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박희구

키높이 자란 저 황철나무는
력사의 그날로부터
신번째 년륜을 새겼으니

깊어지는 생각속에
우러르는 그 영상
방금 가림천을 건너지어
여기 걸음 멈추신듯

그날의 그 모습으로 서계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날의 푸른 가지를 스치던
봄외투자락 날리시며
누리앞에 펼쳐주시는 6월의 밤이여

아, 허리에 차신 저 권총이여라
한방의 신호총소리로
잠든 민족의 넋을 흔들어 깨우고
원췌의 머리우에
백두의 회성을 터치던...

아, 높이 드신 저 손길이여라!
타오르는 보천보의 화불아래
온 겨레를 불러세우시고
조국의 하늘에 서리고 얹힌
망국의 설음과 울분이 녹아내리게 하시던...

눈보라만리 혈전만리

가사

녀전사는 오늘도 수령님 모셔가네

민향숙

백살구꽃 만발한 오산덕기슭에
향기론 진달래 안고 웃음짓는 녀전사
조국진군 그날의 못잊을 그 모습으로
수령님 우러러 변함없이 서있네

오시는 그 길우에 꽃주단 펼쳐드리며
장군님 모시고싶던 그리운 고향산천
녀전사 간직한 간절한 그 마음인가
백살구꽃 송이송이 향기풍겨 설레이네

백두에서 안고오신
조선의 그 숨결, 그 신념
피멍든 가슴들에 뜨겁게 부어주시던 그 음성
산천도 받아외우며
걱정에 목이 메여 흐느끼던 밤이여

화산처럼 뿔어오르던 민족재생의 불길
번뜩이며 너울치는 화광을 안고
천하를 굽어 빛발치시던
청년장군의 모습은
아, 온 겨레가 만세의 환호로 떠받든
광복의 해발이 비낀 조선의 모습이었나니

나라 없던 수난의 그 세월에도
조국의 오늘이고 래일이던 그 영상
행복한 이 밤도 우러러 뜨거움에 젖는 눈빛들이
별빛이 되어 흐르고 또 흘러라
날리시는 봄외투자락에
내여디디신 군화우에

썩으신 위업
땅우에 넘쳐 하늘에 닿건만
영원히 그날의 모습으로
한손 높이 드시여
오늘도 성스런 투쟁의 한길로 불러주시여라
영원한 혁명의 화불로
공산주의미래를 환히 비쳐주시며...

천리라도 만리라도 수령님 모시는 길에
충성을 꽃피운 항일의 녀전사
향도의 해빛 넘친 행복한 오늘에도
친위전사 그 모습으로 수령님 모셔가네

아, 충성의 화원을 가꾸며
녀전사는 오늘도 수령님 모셔가네

한평생을 헤쳐가시는 그 길

김재윤

소리도

생각도

모든것이 땅과 멀어져가는

하늘-

헤아릴길 없는 아득한 상공으로

비행기는 날고있는데

오래도록 땅을 굽어보시며

눈길을 못떼시는 어버이수령님

아!

흘러가는 구름발밑은

끝없는 백두산발...

끝없는 만주광야...

그러면 우리 수령님

시창너머 아득한 광야를 내다보시리

항일혈전의 못잊을 나날을 추억하실

어버이수령님 영상 우리르면

다함없는 뜨거움에

눈시울 젖어와라

눈보라속에 해와 달이 가리워

하늘조차 볼수 없던 그날엔

조국광복의 밝은 앞날을 그리시며

혈전만리를 헤쳐가시더니

오늘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만리 구름발을 헤치며

조국의 더 밝은 앞날을 그려가시는

어버이수령님

항일의 옛 전구를 지나시며

거기 상기도 찍혀있을

못잊을 그날의 발자취를 더듬으시는가

자욱마다 하많은 이야기 새겨진

그날의 설령을 굽어보시는가

모진 시련과 고난도

광복된 그날을 위해 이겨오시고

지새여오신 그 밤에 올린

간절한 전사들의 소원도

광복된 그날로 미루시더니

오늘은 그 산발, 그 설령

그 하늘을 지나가시며

조국과 혁명의 더 밝은

진로를 밝혀가시기 위해

머나먼 대륙으로 떠나시는

어버이수령님

아,

수령님

한평생 헤쳐가시는 그 길

땅에 땅을 이어가시며 끝없더니

다시금 하늘에 이어

끝없이 끝없이 이어가시니

아,

온 누리에 찬란한 시대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 계시며

인류의 봄은 꽃피고있어라

가림천기슭의 작은 집에서

서봉제

곤장덕 하늘아래
여기 수수한 집
키낮은 동기와추녀우에
밤별이 내리고

마당가에 흐르는
실안개에 실려
밤은 바닥없이 깊어가는데
창가엔 불빛 꺼질줄 몰라라

끝없이 다가서는 밀림
굽이굽이 험한 령 넘으시여
오신 길은 천리 또 천리로 이어졌건만
쌍이신 피로 깊은 생각속에 묻으시며
잠못드시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못내 그리웠던
가림천 물보라에
웃자락 시원히 날리시면서도
보천보 저 하늘 태우던 화광
가슴에 뜨거이 새기시고

있 푸른 황철나무아래
숨엄한 정적속을 거니시면서도
질은 암운을 깨친 그 밤의 총성
끝없는 메아리로 펼쳐가시더니
이 밤 달리시는 사색의 끝 어디신가

가로놓인 진대앞에
행군대오 걸음 멈추고
세월의 두터운 락엽에 쌓여

가사

이제 갈길도 묻혔다고

아, 떠나온 길
어찌 예서 돌아서라
장군님 따라 피로 헤친 밀림
그 진대나무, 그 가랑잎 넘고 헤치며
투사들 숨지면서도 사령부에 닿은
그 길

침침 시련에 찬 험산준령
아버이수령님 새겨오신
눈보라 만리길도 이 한밤에 다 걸어보시는듯
우리 인민이 가고
우리 조국이 가고
이 땅에 태어날 미래도
끝까지 이어갈 그 행군길에
붉은 화살표 힘주어 그어가신곳
아, 백두산!

가는 앞길 폭풍이 몰아치고
가는 앞길 천만 산악 막아서도
순간도 멈출수 없는 영원한 진군길에
붉은 기발 높이 추켜드신
승고한 영상이여

오, 어두운 조국강산에
재생의 빛발 안겨준 력사의 그 밤처럼
여기 가림천기슭의 키낮은 집
그 한장의 전적지 첫 답사로정도우에서
우리 혁명의 억만년 앞길이 뻗어갔어라!

만수대의 노을

김봉운

수단의 어둠을 영원히 가셔낸
혁명의 력사가 빛나는 만수대
하늘땅 물들이며 피어나는 새벽노을
여기서 퍼져가네 만수대 만수대

언제나 우리러 새날을 맞이하고
위훈의 맹세도 여기서 다지네

따르는 눈빛들 여기 다 모여와
노을도 불타네 만수대 만수대

수령님 오늘도 손 높이 드시고
찬란한 미래로 이끄시는 만수대
누리를 밝히는 주체의 노을도
여기서 비껴가네 만수대 만수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인사를

김정일 그이는 위대성의 상징
그이는 영명하고 강의하신 지도자
우리모두 그이께 인사를 드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신곳
여기 백두산에서 그이 탄생하셨거니
위대하여라 백두성산이여!

모든 힘 다하여 수령님을 받들어가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 위한 한길을 곧바로 걸어가시여라

아브들 라흐만 벤 알 하디 카브루띠
청춘의 패기와 정열에 넘쳐
불세출의 위대한 영웅의 걸음걸음 옮기시여라

조선인민이여
언제나 그이께 인사를 올리자
그이는 꺼질줄 모르는 당신들의 삶의 태양이시고
끊임없는 억센 투쟁의 상징
자랑찬 위훈과 보람찬 삶의 담보이시거니
만세! 만만세! 친애하는 자도자 **김정일** 동지
(필자는 튜니지 문화성 벤
아르스주 문화대표임)

노을 타는 구내길을...

엄형조

노을 타는 발전소 구내길을
젊은이들 걸어가네
하루계획 넘쳐한 사랑을 안고
발걸음도 우쭐우쭐 멋쟁이총각들이
퇴근길 다그치네, 춤추듯 걸어가네

얼마나 의젓한 신랑감들인가
구내식당 딸 가진 아주머니들
은근히 원심쓰고
얼마나 끝끝한 사내들이야
분석공처녀들 창가림 빠금히
남모르게 가슴설레여라

아하, 노을도 고운 저녁
이 하루도 위훈의 노래 엮은
발전소 젊은이들이 걸어가네
보이라앞에서는 열정의 노래
퇴근길에서는 행복의 웃음 넘쳐라

넓은 가슴 쪽 펴고
일손 다그칠적엔
기중기운전공처녀도 취해 섰더니

기타를 척 메고 나선 이 길엔
그 누가 취할가

에헤라, 나이 젊은 총각들아
노래도 빼기며 멋지게 부르려마
나라에 힘껏 청춘을 바치는 사랑을
가락에 한껏 담아 터쳐라
구내식당 아주머니들 다 듣게
애태우는 처녀들 후련하도록

순간순간, 하루하루
청춘을 빛내며
나라에 동력을 섬기는
일숨씨도 멋이더니
그 또한 정말로 멋이로구나
활개짓 활활 구내길에 나선 모습

노을 타는 발전소 구내길을
젊은 혁신자들이 걸어가네
구내식당 아주머니들 눈길도 쫓아가네
분석공처녀들 미쁜 마음도 따라서네

그 하나만으로도

- 구시물동에서 -

김조규

어데서 달려오나
가던 길 멈춰섰나
무슨 사연 전하려고
속삭이듯 사품치나
압록강 구시물동...

무심히 내려설수 없는곳
장군님 대오를 이끄시고
이 땅에 자욱을 옮겨디디신
력사의 기슭이 여기란말인가

포평나루터에 굳은 맹세 남기시고
이 강을 건느신 그날로부터
진정 얼마나 준엄한 세월을 거쳐
장군님 이 물동가에
다시 서신것이였나

조국으로 가는 길은
마음에 지척이나
불바다, 총칼의 숲
멀고도 험난했으니

이역땅 바람부는 산기슭에서

숨 거두는 대원의 머리를
남쪽을 향해 눕혀주던 그 손길이
와락 끌어안던 이 언덕
조국!

아, 목메이는 그 새벽에
강물은 기슭을 찾아
흐름 멈추었고
물결은 하늘의 천만 성좌 모두 거두어
구슬로 부서져 빛을 뿌렸나니

6월의 밤하늘에
민족재생의 화불 밝힌
위대한 조국진군의 원정길에
첫 디딤돌 고인 구시물동

흐름이여, 시간이여, 너도 잠시
이 기슭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가라
떼목이여, 통나무여
그 어깨에 장군님 떠받들고 건느시게 한
그 하나만으로도 천년세월
산속에서 자란 보람
하늘땅 덮고도 남으리로다

후치령

윤병규

한글이 돌아서면 하마 보일듯
돌아서 내달으면 하마 따를듯
김형권선생님 영상 자꾸만 눈앞에 어려
걸음걸음 마음이 앞서는 후치령의 이 길

이끼 덮인 돌바위
숲을 흔드는 바람결에서도
구국의 피를 끓이시던 선생님의 숨결
가슴에 뜨겁게 젖어오는 이 길

쓰러지는 겨레들을 안아일으키시며
수난의 강토를 주름잡아달리신 선생님
불타는 그 애국충정이
해별처럼 나를 쓰다듬는 산천이여

멸적의 충성에 기를 펴고 일어난
황수원 밀림은 그날을 속삭여 설레는가
항거의 넋을 받아안던

경포바다물결은 그날을 못잊어 소리치는가

후치령, 아, 후치령아
너는 덧없이 서있는 자연의 메부리가 아니구나
이 나라에 사무친 피의 교훈을 새겨안고
무장투쟁의 충성을 천하에 떨치고야만
위엄높은 력사의 분수령인것을!

오, 위대한 장군님 높은 뜻을 받들어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함을 깨우쳐
꺼져가던 민족의 가슴에 불씨를 지펴주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

비구름속의 한줄기 해빛과도 같이
항일대전의 첫걸음에 빛나는 자욱 남기시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
조선의 존엄높은 충성을 울리신곳이여

보천보의 새 모습

길은 언제부터 열리었는가

길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이 소중함을 걸음마다 절감할것이나 탄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가 일쑤다. 나 역시 그러하였다. 뿐만아니라 예이제 다름없는 같은 길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새겨진 뜻에 따라서 걷는 사람의 정신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난다는것도 새삼스레 깨닫는바이다. 결국 내가 다시금 이 답사길에 나선것도 실은 그러한 까닭이라 하겠다...

나로 말하면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대해서 남들 못지않게 알고있다고 자부해왔다. 좀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보천보가 대로천박물관으로 꾸려지던 때로부터 얼마나 자주 그곳으로 다니었는가.

그만하면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답사생에 비겨볼때 박식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자료적으로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분석에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예술적표상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식견을 가지고있었으니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천보에 대해서 물으면 청산류수로 설명을 해주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었으며 혹시 상대가 시인이나 작곡가인 경우에는 좀 경망스런 정도로 시와 노래의 상에 대해서까지 간찰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더러 선망의 눈길을 받기도 하였다.

한데 이마적에 와서 한 친구가 보천보로 가는 길은 언제부터 열리었는가고 물었다. 나는 별생각이없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줄줄여놓았다. 이를테면 일제놈들이 《갑무경비도로》라고 하던 큰 길은 갑산지방으로부터 무산으로 뻗은 길을 넘두에 둔것인데 그것이 완공된것은 무산지구전투 당시인 1939년이였으며 보천보일대의 도로는 1930년대중엽에 이미 개통되어있었다거니, 해산에서 보천보까지의 자동차길은 보천읍을 거쳐 삼지연으로 가게 되어있으나 기차를 타는 경우에는 못가행을 타면 가림역에서 내려 걸어야 하기때문에 대평행렬차를 타야 한다거니, 이렇게 동문서답격으로 얼버무렸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또 다시 답사길에 나서서야 비로소 나는 그 친구가 묻던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따라 배우기 위하여 우리 인민모두가 한결같이 찾아가기를 열망하던 이 영광의 땅으로 가는 답사행군길은 1956년 6월에 열리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친애하는 지도

김원종

자 **김정일** 동지께서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를 무으시고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로정을 비로소 개척하시였기때문이다. 흔히 역사를 잘 모르면 오늘을 깊이 인식할수 없다고 하지만 오늘을 똑똑히 모르면 귀중한 역사를 잃어버릴수가 있다.

뜻깊은 1950년대중엽에 답사행군로정이 개척됨으로 하여 혁명의 성지 보천보에 깃든력사가 빛을 뿌리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당이 보천보에 아로새긴 새로운 불멸의 력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

일찌기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실 숭고한 결심을 품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1950년대중엽에 벌써 첫 답사행군대를 무으시고 진두에서 답사로정을 개척하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그 영광의 길우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길은 이렇게 열리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쉴새없이 그 길을 따라 흘러간다. 1956년 6월에 열린 새길, 걷는 사람의 목적도 뜻도 새롭고 감회깊은 영광이 넘친 이 길을 오늘은 나도 다시 간다.

사적마다에 새겨진 사연

보천보에 6월이 오면 가림천기슭에는 신록이 우거진듯하지만 곤장덕과 려수덕의 산허리에는 고산지대 특유의 진분홍빛 진달래가 마치 땀기름 두른듯이 잠겨있다. 그것은 봄과 여름의 계선갈기도 하다. 아니, 가는 봄 오는 여름이 산비탈에서 한데 어울려 안고돌며 이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향기를 풍겨주는듯하다. 정답게 속삭이는 가림천물소리를 타고 간간이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또 얼마나 유정하고 재롱스러운가. 하늘에는 해빛이 찬란하고 거리에는 명절처럼 사람들의 꽃물결이 흐른다. 전투승리 50돐을 맞는 보천보는 영원한 봄날의 상징이다. 저 거대한 사적비에 새겨진 첫 글발처럼 《조선의 기상을 누리

떨치며》이 거리에 화불이 타오르던 1937년 6월 4일의 그밤에 벌써 이 땅의 새봄은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만민의 념원을 담아 가림천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은 백두의 밀림을 헤쳐오시는 듯 검푸른 전나무숲을 배경으로 숭고하게 우러러 보인다. 동상앞에 숙연히 다가서서 정성담은 꽃다발을 드리는 순간에도 이 동상에 깃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더욱더 고개가 숙여진다. 사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첫 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오시였던 1956년 그때만 하여도 동상이 지금처럼 모셔져있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이 영광의 땅에 깃들어있는 원수님의 빛나는 혁명업적에 비하여 볼 때 원수님의 동상을 잘 모시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수님의 모습을 더 잘 형상하고 더 크게 모시며 더 높은 지대에 모실것과 보천보 전투를 지휘하시던 때처럼 권총을 차신것으로 형상할데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원수님의 동상은 그 어떤 역사적사실이나 개별적인물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세우는 보통형식의 기념비나 동상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수님의 동상은 어디까지나 혁명의 수령으로서의 위대하신 품모와 존귀하신 영상이 만사람들의 심장에 안겨오도록 형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어 그이께서 동상앞 교양마당에 조약돌을 깔것을 보시고 몸소 그우를 걸어보시다가 돌이 너무 커서 걷기에도 불편하거나와 소란스러워서 원수님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감정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심려하시였다. 그 간곡한 가르치심속에는 우리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값높은 뜻이 담겨져 있다.

군관복차림을 한 처녀강사동무는 엄숙하고도 류창한 해설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를 몸소 지휘하시던 불멸의 사적을 이야기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이 땅에 깃든 위대한 혁명사적의 전부이라고 하겠는가! 장구한 인류의 역사는 탁월한 령도자나 위인의 업적도 옳바른 계승자가 없이는 웅대한 빛을 뿌리지 못하고 세월의 흐름속에 망각되고 훼손당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수령의 위업이 천추만대에 빛나는것은 위대한 계승자의 업적이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을 뿌리는 보천보의 새로운 사적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귀한 사적은 보천보거리의 수많은 사적물들마다에 깃들어있다. 그이께서는 사적마다에 깊은 뜻을 심어주시고 수령님

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의 위대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게 해주시였다.

전투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황철나무 밑의 지휘처는 적의 아성인 일제 《경찰관주재소》로부터 백수십여메터밖에 안된다. 바로 이러한 장소에 지휘처를 정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담무쌍한 령군술과 유격전술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군사전문가나 학술연구가들도 똑똑한 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사령부와 적의 아성이 불과 백수십메터! 일반적 군사상식으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역사적사실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탁월한 령군술을 분석해주신분도 다름아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시였다.

《경찰관주재소》벽에는 수많은 총탄자리가 있다.

지금은 그것이 전투참가자들의 고증에 의하여 기관총탄자리라는것이 확인되고 유격대의 강력한 기관총화력이 근거리에서 적의 아성을 제압하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첫 답사행군대가 여기에 와 보았을 때는 사적물의 내용이 이처럼 세심히 분석되어있지 못하였다. 《경찰관주재소》를 돌아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총탄자리는 기관총탄구멍이라고 하시면서 권총이나 보병총탄구멍은 작은데 기관총탄자리는 이렇게 크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소방회관》과 《면사무소》가 《경찰관주재소》옆에 위치하고있는데 대해서도 과학적인 분석을 주시였다.

그것은 일제놈들이 저들의 통치기관이 한곳에 집중되어있어야 비상련락도 빨리 할수 있고 또 우리 인민들에게 공포감과 위압감도 더 줄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놈들은 인민들에게서 세금을 받아 낼 때도 제놈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길로 《경찰관주재소》에 잡아다 감금하고 매질을 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가해짐으로 하여 답사자들은 일제침략자들의 죄행을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고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를 더 깊이 느끼게 된것이다.

지어 그이께서는 《산림보호구》옆에 있던 느티나무에 불탄 자리가 생생한것을 보시고 《산림보호구》가 불에 탈 때 굉장하였겠다고 하시며 불길이 얼마나 세차게 타올랐으면 이 나무까지 탔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불타다 남은 한그루의 느티나무는 화광이 충천하던 그날밤의 보천보전경을 우리앞에 펼쳐주고있다. 일제의 《산림보호구》를 삼시간에 삼켜버린 거세찬 불길이 거기서 무려 10여메터나 떨어진 이 느티나무까지 불태우며 기세를 올리였으니 이 강산에 드리운 어둠을 태우던 그 밤의 광경이 얼마나 장쾌하였으랴!

그리하여 혁명시인 조기천은 그 밤의 화폭을 이렇게 읊조리었다.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뭇기고
재생의 열망을 휘쭉이 울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쥔 웨치는
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췌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만세소리 집도 거리도 떨치고
화염을 따라 오르고올라
이 나라의 컴컴한 야공을
뒤흔든다 뒤울린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첫 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이곳에 오시었을 때에는 일제의 《산림보호구》 건물안에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 분관이 자그마하게 꾸려져있었고 그러다보니 보천보전투와 관련한 자료나 사적물, 유물들도 얼마 없었다.

그이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앞으로 건물도 큼직하게 짓고 본때있게 잘 꾸리자고 하시면서 내부진열의 내용과 형식은 물론 자료발굴의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사적물들이 있는 모든곳에는 혁명전적지를 더욱 빛내이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이 또한 가슴뜨거이 깃들어있다. 보천보에 남아있는 사적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나에게는 그 모든것의 의미와 소중함이 몇배 몇십배로 더 커지고 깊어진 느낌이었다.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찬란히 솟아오르는 보천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건결히 옹호고수하시여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하시었으니 첫 답사행군을 개척하신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현지도의 자옥을 그이께서는 이 땅에 남기시였는가.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인민들의 발걸음이 그 길을 따라 이 땅으로 굽이쳐 흘러갔는가. 그들은 이곳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함께 친애하

는 지도자동지께서 남기신 가슴뜨거운 사적을 따라배우게 된다. 나도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다시 찾아보고 마음속으로 웨친다. 지난날 보천보를 다녀간 사람들이여, 다시한번 와보시라. 보천보의 새 력사는 당신들에게 우리 당이 위대함을 다시금 깨우쳐주리라...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보천보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선명한 축도로 느껴진다. 다시말하여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하여 자랑높은 우리의 과거, 그 만년초석우에 주체의 조국으로 위용을 떨치는 현재,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가 내다보이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미래... 이러한 생각은 보천보의 전경에서부터 뚜렷이 느껴진다. 곤장덕에 오르시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쌍안경으로 보천보를 굽어보신 바로 그자리에 올라 이 거리를 부감하면 누구나 대뜸 그러한 느낌이 들것이다. 우선 여기에는 1937년 당시의 옛거리가 그대로 펼쳐져있다. 물론 반세기가 흘러간 오늘이지만 옛거리는 원상대로 보존되고 복구되었다. 그리하여 30년대중엽의 생생한 표상을 안겨주는 동기와집들이 가림천기슭을 따라 울창물망 모여앉았는데 막상 골목길에 들어서보면 알뜰하게 꾸려져있다. 옛거리에 오늘의 생활이 약동하는것이다. 로천박물관은 옛모습이지만 오늘의 사람들이 새생활을 펼치고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남다른 궁지가 있으리라.

그와 가지런히 펼쳐진 새거리의 모습은 말그대로 현대풍경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향하여 곧게 뻗은 대로의 좌우에는 다층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 그 한복판에는 보천보혁명박물관이 웅장하게 자리잡았다.

이곳 사람들이 《웃보천》이라고 부르는 곤장덕마을 역시 신생거리로서 흥성거리는 주민지대를 이루고있다. 거기에는 아담한 답사숙영소들과 학교, 편의봉사망들이 꾸려져있다. 그 건너편에 가림천을 끼고 도는 큰길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련대적유보도를 련상시키는가.

가림천을 거슬러 내곡온천쪽으로 올라가라면 10여개의 소형발전소가 건설되어있다. 쓸모없이 흐르던 물을 막아 전기를 일구어 군안의 전력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려는것이다. 이 발전소들이 만부하로 돌아 전기가 공급되면 보천보사람들은 엄동설한에도 전기난방으로 따뜻한 집에서 온갖 전기세간을 사용하며 리상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이것이 어찌 먼 미래상이라 하겠는가.

고역에 노그라진 폐군들의 한숨소리만 잦아들고 화전민의 구슬픈 하루해가 피빛으로 저물어가던 이 땅에 전기스위치 하나로 세간살이를 하는 리상의 시대가 도래하고있으니 이 아니 지상락원인가!

우리 당의 고마움을 생각하느라 발걸음은 저절로 옛거리에 있는 한 소박한 집앞으로 옮겨진다.

첫 답사행군로정을 개척하시던 그날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드시였던 뜻깊은 집이 이 거리 한복판에 사적건물로 보존되어있다. 그이께서 숙소로 정하시였던 이 집은 옛거리의 여느 집과 조금도 다른없는 소박한 동기와집이다. 감격도 새로운 그날 이 집에 드시였던 그이께서는 주인 집아주머니가 권하는 새 이부자리와 따뜻한 아래목도 사양하시고 옷방에서 모포를 덮고 쉬시였다.

그러시고도 새벽 일찌기 일어나시여 마당을 쓰시고 장작을 처마밑에 가려놓아주시였으며 주인 집 막내아들의 학습도 친히 보살펴주시였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답사로 정을 개척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 집에 다시 들리시여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앞으로 혁

명전적지에는 구경이나 놀리만 가지 말고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깨우쳐주시였다.

우리모두의 가슴을 울려주시는 간곡한 그 말씀!

우리 인민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공산주의미래에로 남먼저 이끌어가시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그이의 말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하신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우리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롭고 숭고한 영상이 이 소박한 집에 어리여있다. 그리하여 보천보의 옛거리는 자랑높은 우리의 과거와 함께 행복한 오늘과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담아안고 주체시대의 한복판에 금지높이 서있다.

아, 영광의 땅 보천보여, 우리 당이 아로새긴 새 력사와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나라!

답사자들의 대오는 강물처럼 쉬임없이 흐르고 또 흐른다. 보천보로 가는 길은 언제나 넓고 탄탄하게 열려져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보람찬 인생이 시작된 과거를 깨우치고 오늘을 빛나게 살며 래일을 앞당겨 나갈것이다.

내 한생 찾던 그 부름에

리룡현

너무도 일찌기 여의여
단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
정녕 내 자란 나날에
그 사랑이 그리웠던가

머리 희여지도록
뜻정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어머니
정녕 내 자라며
그 모습 그리운줄 알았던가

이제는 말할수 있노라
유치원가방 메여주던 동리녀인들
그 밝은 웃음속에서도
내 미처 다 몰랐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

새 조선의 첫 노래 배워준 녀선생
새옷을 입혀주며 웃을 때
마음속 깊은곳에 진정으로 썸웃아
정겹게 부르고싶던 그 이름이여

로동의 첫자욱 옮길 때

그토록 기뻐해주던 눈빛들
나의 정치적생명을 보증해
손을 높이 들어주던 동지들앞에서도
아, 내 한생의 영원한 보호자
위대한 당의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던가

내 진정으로
마음속에 간직한 그 이름
심장속 가장 깊은곳엔
그 언제나 당의 모습이 가득차올라

당이여
나의 온 뱃으로 부르고싶던
가장 친근한 그 이름이여
그대를 어머니라 부르노라

나서부터 부르고싶던 그 이름
선살이 가까와오도록 찾는 그 뱃
내 한생 찾던 그부름에
영생의 품을 벌리고 대답해준 어머니
내 삶의 영원한 어머니시여
은혜로운 당이여!

6월 25일 외 1편

김일규

새들이 우짖고
꽃향기 날리는
그 어느 숲속의 흙 한줌 쥐여보라
그러면 거기엔 아직도
그날에 홀날린 재가루
식지 않았으리

깊은 계곡
외진 산속 그 어느 골밀에
년륜을 새겨온 고목이라도
가만히 그 나무밑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날의 총탄자국
아물지 않았으리

그날만은 새벽노을도
하늘가에 불길처럼 비껴가고
계절따라
때맞춰 익히는 딸기건만
분노한 대지의 피방울같이 내뿜치노라

나는 기억한다
그날에 부모 잃고
아버지란 그 이름 불러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된 가슴들에 아프게 맺혀있는
그 원한으로
그날을-

세월의 한공간속에
그런 날이 없었던들
이 땅의 평화를
민족의 존엄을 우롱한 그날이 아니었던들
어머니가 아기의 요람가에
하많은 놀이감을 놓아주면서
나무충을 놓아줄것인가...

그때문에
태어나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증오
복수라는 말을 먼저 익힌다
하나 둘

셈세기도 겨우하는 그 나이에 벌써

세대는 바뀌어도
계급의 피는 달리 이어질수 없나니
승리한 땅우에서 첫걸음마 댄
내 가슴에도 새겨져있다
자주의 넋이 운명처럼 안겨준
정의의 총과 함께

잊지 않고있다
그날 그 새벽
분여지의 푸른 벌로
서둘러 소를 끌고 나섰던 걸음으로
전선길로 떠났던 사람들이
오늘도 난알을 가꾸며 여물을 끓이며
이날을 잊지 않고있다

날이 새면
대학으로 떠나려던 그 길을 미루고
총메고 나섰던 마음들에
아직도 세월의 흰서리 없지 않았다

6월 25일-
되 불러보기조차
피가 끓는 이날
조용히 일력을 번지는 이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번지는
증오의 불덩어리어

미체가
그날에 오산했던것처럼
요동발광하며 살아있는 한
식울수 없는 가슴속 분노의 이 불

오, 다시는 력사의 갈피속에
이런 날이 기억되지 못하게
타번지는 수천수만의 심장속 그 불덩어리속에
네가 새겨져있구나
6월 25일이여!

어머니 웃음

초소로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배낭끈 여며주며 노상 웃었지
하고싶은 천만마디 말
그 웃음에 담은줄 내 알았던가

첫걸음마 땀 때부터 애오라지 바란 마음
조국 위해 첫걸음 내세우는 그 시각
자식을 키워온 수많은 수고로움을
그 순간엔 웃음으로 가셨으리라

숙영의 밤에는 달빛속에 어려왔네
행군의 설참엔 별빛속에 어려왔네
힘겹게 한치한치 벼랑길 뚫을 때는
문득 그 벼랑끝에도 비껴왔네

나서부터 익혀온 웃음이건만
이제는 그려보기조차 전갈지 앓구나

내 걷는 걸음걸음 마음속에 비껴오는
소중한 그 웃음이 가셔질가봐

한 가정의 뜨락에서만 내 자랐던가
한 어머니의 웃음만을 내 지켜섰는가
조국이 없으면 나의 어머니들
아들이라 그 어이 시름없이 키울손가

아마도 그 웃음은
결사의 언덕에도 비껴오리라
목숨 내뱉 그 짧은 한순간에도
뿔뿔이 그려보면 비껴오리라

허나 그 한순간을 주저해
내 바쳐야 할 생을 저울질한다면
안겨자란 나날에 정답던 웃음이건만
꿈속에나마 다시는 비껴오지 않으리라

그들을 아끼라

조래현

당신이 벌목공이면
제일 끈고 굵은것으로
여기에 보내시라
탄부의 어깨에 실리는
지압을 막아주게

당신이 전동기를 만든다면
메여쳐도 고장이 없게 만들라
그것이 뗏으면 심장이 뗏은듯이
석탄을 두고 가슴치는 그들을 생각하며

당신의 청춘시절
총탄의 비발속에 있었다 하라
당신의 중년기
눈비 내리는 들판에 서있다 하라

하지만 대를 두고 캐널 탄발 찾아
땅속깊이 길을 내며
애젊은 그 시절 기꺼이 바치는
이들의 청춘을 아끼라

이들을 아끼시여
우리 수령님 자주 찾아주시고
이들이 하는 일이 장해
우리 당은 금빛훈장을 주거니

당신이 어디서 무슨 일 하든
탄전을 아니둬고는 따뜻한 방에 눕지 말라
탄전을 아니둬고는 덥힌 음식 넘기지 말라
탄전을 아니둬고는 흰연기 피는 하늘을 보지
말라

대담한 시도, 응당한 결실

윤상현

문학예술작품의 무게는 예술가의 창작적심장의 무게와 맞먹는다고 비유적으로 말할수 있다. 웅장한 사람이 큰일 못치듯이 심장이 작은 창작가가 크게 성공한 전례는 일찌기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연출가는 배짱을 가지고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창작에서 성공할수 있다.》 (《영화예술론》, 147페이지)

거창한 시대의 숨결로 고동치는 크나큰 심장, 사회와 인간에 대한 열광적인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된 뚫어번지는 심장의 도가니속에서만 만 사람의 탄복을 자아내는 무게있는 형상이 태어날 수 있다.

작가의 배짱은 생활과 예술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판단에 기초한 확고한 창작적주견으로서 그것은 언제나 온갖 기성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도 걸어가본적이 없는 형상의 미개척지에 자기의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려는 결패있는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나타난다.

생활과 예술의 독창적인 세계를 종횡무진으로 육박해들여간 그러한 공격적인 탐구자세를 우리는 예술영화 《보증》(리춘구작 1, 2부)에서 력력히 찾아보게 된다.

오늘 우리 문학분야의 창작적양양을 계발시키는 의미에서 이 영화의 특출한 성공을 날게 한 창작가의 대담성문제에 대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어떠한 창작가이든간에 당의 창작가인 이상 자기 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 문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기마련이다.

그런데 그 반영형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있는바 하나는 당정책내용을 작품의 직접적인 주제로 앉히고 해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일련의 다른 사회적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 당정책적인 내용은 그 바탕에 깔아놓는 식으로 형상하는 경우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문학예술작품에 반영하는 문제와 그것을 작품의 주제로 설정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논의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한다는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는 우의 두 경우중에 어느것이 좋고 어느것이 나쁘다고 단정해버릴수 없다.

그러나 현시기 우리 창작가들의 주의가 덜 돌려지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다 절박하게 요구되는것은 바로 당정책내용을 직접 주제화한 작

품들이다.

당정책풀이가요 《10대정강의 노래》가 세상에 나온지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널리 불리우고있는 사실자체가 이에 대한 하나의 실증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술영화 《보증》이 그저 문예물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대로 당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당정책적인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간곡히 지적하시였다.

물론 이런 형태의 작품이 다른 주제의 작품보다 쓰기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다. 웬만큼 형상작업에 품을 많이 넣지 않고서는 문학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정책강연처럼 될수 있기때문이며 또한 당정책내용을 직접 다루는 조건에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데가 더 많이 제기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적지 않은 창작가들이 이 분야의 창작에 감히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있을 때 예술영화 《보증》은 대담하게 우리 당의 군중로선문제를 직접 작품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하나의 생동한 당학습교재와도 같이 그 로선에 대한 통이 큰 전면적인 해명을 시도하였다. 영화 한편속에 웅근 한령역의 로선상의 문제를 통채로 심어놓고 세시간안팎의 짧은 상영시간에 그 로선의 본질적내용을 전면적으로 깊이 파악하고 뜨겁게 공감하도록 창작가는 담이 크게 작전을 펼치었던것이다.

창작실천을 돌이켜보면 소심한 창작가일수록 생활의 번두리를 예돌고 대담한 창작가일수록 생활의 와중으로 뛰어들려 한다는것을 왕왕 느낄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당정책내용을 직접 주제화한 경우에도 시기별 방침을 취급한 작품들은 부분적으로 나왔으나 전략적의의를 가진 기본로선 특히 여러가지 복잡성과 심각성을 띠고있는 복잡한 계층과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손대려 하지 않고있었다.

예술영화 《보증》의 창작가들은 이런 소심성의 울타리를 박차고 아직 누구도 엄두를 못내고있던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의 전면해명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던것이다.

생각해보자.

영화에서는 한개 큰 국가기업소 책임비서의 권한으로써도 처리하기 어려워 당중앙위원회의 결론을 받아야 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그 어떤 대중교양을 위한 군중로선이 따로있고 당내부사업에 필요한 군중로선이 따로 있는듯

이 역설하는 윤학의 뇌까림, 내 가슴속에 탄 재를 뿌리면 온 세상을 덮었을거라고 절규하는 허진성의 부르짖음, 《만일 기사동무가 정치적으로 잘못되면 나두 함께 잘못되구 시운전이 폭발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면 함께 죽읍시다.》라고 하면서 서슴없이 몸을 내대는 당비서의 비상한 각오... 과연 오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에서 이런 심각한 대사들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것이다.

영화를 보고나서 누구나 다 그러했겠지만 특히 가정주위환경이나 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들 그리고 허진성, 원석해와 같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속에서 환성이 터졌을것은 의심할바없다.

창작가들이 높은 예술적형상능력과 함께 칼날우에 올라서서도 겁낼줄 모르는 담력으로 당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사회정치적문제도 예술적으로 능히 소화시켜나갈수 있으며 또 그런 작품일수록 대중의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보중》에서는 특히 당일군전형의 기존들을 깨뜨려버린데서도 대담한 시도를 엿볼수 있다.

지금까지 문학예술작품들에 수많은 당일군전형들이 창조되어왔지만 개중에는 도식과 류형에 매인 형상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당일군이라면 의례히 처음부터 더할나위없이 완성되어있는 인간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당일군을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생활영역은 없이 다만 당적직무로써만 말하고 행동하는 이른바 작가의 주관적리념과 주장의 《전성관》처럼 설정묘사하는 경향도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에 반하여 예술영화 《보중》은 박신혁을 당비서이기전에 인간으로 완성된 인물로, 살아숨쉬는 인간의 체취로써 관중들의 깊은 인상을 자아내는 산 개성으로 그려내고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치성이 따로 있고 인간성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매개 인간생활이 그대로 정치생활이고 매 정치생활이 곧 그자신의 인간생활로 펼쳐지고있다. 영화는 책임비서의 형상에 때때로 자책과정을 거쳐 점차 원숙한 주체형의 당일군으로 자체를 꾸준히 수양해나가는 성격발전과정을 줌으로써 종래의 기정사실화된 당일군형상과 다른 생소한 성격을 창조하였다.

당과 외교할줄도 요술피울줄도 모르고 오직 당의 로선을 끝까지 옹호고수하여 육탄이 될것을 결심해나선 이 영화 창작가들의 투철한 당적책임감이 바로 그렇듯 숭고한 높이에 오른 박신혁의 성격을 창조해내게 한것이다.

영화창작가들이 대담하게 창작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귀한 뜻을 받아들여 영화계에서 문자그대로 미증유의 비약을 일으키고 예술영화 《보중》과 같은 만점짜리 성과작들을 광광 내놓고있을 때 과연 우리의 소설가, 시인들도 분발해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름아닌 예술영화 《보중》과 같은 대담하게 쓴 작품을 좋아하시고 제일 만족해하신다는것을 알고있는 이상 우리 작가들속에 아직도 일부 소심성의 울타리를 남겨놓는다는것은 랑심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창작에서 보신주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없이 이것저것 재면서 형상을 무난하게 처리하는데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보다는 심각하고 복잡한 정치문제에 될수록 말려들지 않으려 하고 당이 아파하는 문제에 같이 심장이 뻐줄 모르고 현실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을 보고도 피가 끓을 줄 모르는 정치적냉담성에서 나타나고있다.

우리 시대의 작가라면 누구나 예술영화 《보중》의 박신혁책임비서와 같은 투신력 즉 당의 로선 관철에 한몸 서슴없이 바치는 진짜배기투사의 담력을 지녀야 한다.

대담한 작품들이 나오게 하는데서는 창작지도 일군, 편집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작가들이 아무리 대담하게 쓰자고 해도 이들이 보신주의적으로 나오거나 작품에서 노리고있는 새싹, 대담한 시도를 지지해줄줄 모른다면 이 역시 간단치 않은 장애로 된다.

예술영화 《보중》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시종일관 정당하였지만 허진성이나 원석해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동안 그것을 곡해하고있었으며 거기에는 바로 당의 군중로선을 도중에서 그릇되게 집행한 윤학이 같은 일부 일군들의 과오가 비껴있는것이다.

우리의 작가, 편집원 그리고 창작지도일군들속에서는 대담하게 창작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관철함에 있어서 이와 동종의 편향들이 나타나서는 안될것이다.

지금 우리 문단에 새로 등장한 젊은 세대의 작가들속에서 일련의 대담한 시도들을 보이고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한편의 짧은 소설을 써도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때문지 않은 참신한 새세대의 얼굴을 들고나오려는 이들의 피타는 탐구심은 우리 문단의 귀중한 싹으로서 적극 보호발양되어야 한다. 작가들은 너나없이 예술영화 《보중》에 못지않는 걸작소설, 걸작시들을 완성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우리 문학의 참모습에 대한 기쁨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소 생

백보흠

그 겨울밤은 유난스레도 바람이 설레었다. 문풍지들이 구슬프게 울어대고 삼작문들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으며 먼산에서는 얼고 굶주린 산짐승들이 처량하게 울부짖었다.

한산하고 불안한 그 밤에 김덕훈의원은 초약폐미가 벽마다 촘촘히 드리운 옷방 길마리에 고불통을 틀고앉아 연해 한숨이 무겁게 실린 연기를 토하고있었다.

늘 보약으로 닥달하는 의원으로서는 너무도 강대처럼 메마른 몸집이다. 광대뼈가 불거져나온 창백하고 여윈 얼굴이며 손가락 기장만한 줄망스럽게 돋은 반백의 성긴 턱수염이며 눈확속에 깊이 패여들어간 겹을 집어먹은듯한 갈색의 커다란 눈에는 시름많은 생활의 고달픔과 궁상스러움이 그대로 비쳐있었다.

덕훈은 며칠째나 이렇게 담배진에 허바닥이 갈라터지도록 고불통만 빨면서 내치 절망적인 한숨을 짓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인생의 원숙기인 50대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의원일만을 해온 그가

요즘 경찰서의 강요에 못이겨 나라 잃은 조선이 주민들이 모여든 여기 서간도 촌락-소백촌마을 백가호를 경찰서놈들의 뜻대로 통솔하는 백가장노릇을 하게 되었기때문이었다.

덕훈이가 운순한 량민이고 명망있는 마을유지이기때문에 백가장의 직분을 준다고 놈들은 말하였지만 비록 열혈투사는 못되어도 민족의 량심만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의원에게 있어서 그런 친일주구의 직분은 참을수 없는 치욕을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갈수록 심산이라더니 종당엔 백가장노릇을 해? 이게 다 약소민족으로 태어난 죄지. 으음...》

덕훈은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또다시 한숨을 지었다. 손벽같은 성애가 불리운 뒤창너머 어디에선가 그냥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장지문이 닫혀진 아래방에서는 해산자리를 편 머느리의 신음소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애원하여 녀두리를 하는듯한 마누라의 애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허비였다. 분명 이 불안하고 어수선했던 밤에 머느리가 몸을 풀것 같았다. 이제 태어나게 될 그 아이는 이미 외아들을 잃어버린 덕훈의 유일한 후대로 될터여서 신자도 아닌 마누라가 저렇게 가정의 안녕과 머느리의 아들순산을 바라서 성심으로 기원하고있다. 하늘에 기원하는 마누라의 절절한 목소리에 진정 악귀들이 쫓겨가는지 갑자기 문밖멀리에서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그 아우성을 짓누르며 요란한 총소리가

연거퍼 울렸다.

한밤중에 별안간 울리는 총소리에 마누라의 기도 외우는 소리가 똑 끊어졌다.

《여보! 밤중에 웬 총소리요? 접때 혼장적은이가 붙잡혀가는걸 본 다음부터 그저 부스럭소리만 나두...》

마누라가 근심스레 중얼거리며 장지문을 열었다. 평생 마음고생으로 곁늘어버린 박씨는 물기 빠진 오이껍질처럼 조글조글한 얼굴에 겁을 담고 등불그림자가 얼른거리는 방문쪽을 지켜보는데 마침 그 무슨 불행을 계시하듯 바람이 물려들며 문풍지가 드르릉거렸다.

덕훈은 그 소리에 놀라 입에서 고불통을 떨구며 몸을 들썩하였다. 그는 위낙 노루 제방귀에 놀라듯하는 위인이어서 가뜩이나 큰 눈을 둥그렇게 뜨고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그도 역시 며칠전에 소백촌마을 서당훈장인 박성필이 경찰서에 붙잡혀간 때부터 더구나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졌다. 박성필이로 말하면 덕훈이와 형님, 적은이 하면서 각근히 지내던 사람이였고 의사가 소통하던 유일한 말동무였었다. 한때는 광복단의 맹호로 구국의 산발을 넘나들던 박성필은 독립군운동에 실망을 느끼고 2년전에 이 마을로 솔가하여왔었다. 모든것을 단념하고 초야에 묻히는 심정으로 이국촌락에서 서당훈장질을 하며 조용히 지내던 그가 어느날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족자를 걸어놓고 서당아이들에게 조선의 애국사화들을 들려주다가 그만 순사부장놈에게 들켜서 류치장에 붙잡혀갔었다. 들리는 말엔 박성필이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불온하게 처신했을뿐아니라 지난날 독립운동을 한 《죄과》까지 (그는 그것을 숨겨왔었다.) 발각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무사치 못하게 된다 했다. 이런 흉흉한 소문으로 마을이 한창 수선거리고있을 때 덕훈이 바로 경찰서놈들로부터 백가장을 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감히 거역할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였다. 만약 그놈들의 《호의》를 마다한다면 박성필이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것을 생각하고 마지못해 순응해나섰던것이다.

그래서 이 밤도 막다른 골목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한숨만 짓고있는데 느닷없이 불길한 예감을 자아내는 총소리가 울려서 불안하던 가슴이 한층 더 서늘해졌다.

총소리는 서너방으로 멎었으나 그 여파인듯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번잡하게 사방으로 번져갔다. 얼마후에는 덕훈이네 집근처에도 고향소리와 산

만한 구두발소리가 밀려왔다.

《이게 필시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구만.》

덕훈은 낮이 꺼렇게 질려가지고 허둥거리며 일어섰다. 마침 그때 마당에서 란잡한 발자국소리가 일어나면서 번개불같은 시퍼런 불빛이 방문을 뚫고 스치고 지나갔다.

런이어 고함소리가 방문을 들이쳤다.

《백가장 있소!》

그 양철 굵는것 같은 소리는 바로 덕훈에게 백가장을 하도록 강요한 순사부장의 악창이었다. 덕훈은 기가 질려 한참이나 엉거주춤 서있었다.

《여보, 밖에서 누가 부르는데 장승처럼 그냥 서있으면 어찌우. 찌쯔...》

소심하고 주변없는 남편을 지칭구하는데 습관된 박씨는 역정을 내며 허를 찔렀지만 그자신은 더 겁을 내며 찼찼매고있었다.

《백가장!》 하고 재차 울리는 고함소리에 덕훈은 불안스레 헛기침을 하면서 증풍을 맞은것처럼 후들거리는 손으로 옷방문을 젖히었다. 차고 세찬 눈바람이 기다렸던듯 덕훈의 얼굴을 덮치며 방문으로 쓸어들어왔다. 방안을 휘젓는 감때사나운 바람에 등잔불이 꺼지고 벽에 걸렸던 초약깨미들이 떨어졌다.

덕훈은 후려치는 바람에 숨이 막혀 헉헉 흐느끼는 소리를 내면서 밖을 내다보았다. 여러개의 전지불들이 회파람소리가 일어나는 캄캄한 마당에서 서로 엇갈리며 란무하고있었다. 바자너머 저쪽에서도 부산스러운 고함소리와 함께 무수한 불줄기들이 춤을 추며 돌아갔다. 마치 유령들이 시퍼런 불을 내뿜으며 돌아치는것 같았다.

《백가장! 나요, 가네무라요.》

검은 물체가 의원의 얼굴에 전지불을 비치면서 고무공처럼 불쑥 토방으로 튀어올랐다. 그리고 서급히 뇌까렸다.

《비상사건이 발생했소. 박성필이 그자가 류치장을 탈주했소!》

《예?!》

덕훈은 너무도 의외로와 부지등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백가장! 나와 함께 빨리 그놈의 집으로 가시오. 성필이 너편네를 달구쳐야겠소. 도주한 대가로 그년을 죽여버릴테요!》 하고 양갈지게 내뿜는 순사부장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튀기고있었다. 덕훈은 등골로 얼음덩이가 굴러내려가는것 같아 전율을 일으켰다.

순사부장은 성난 갈범처럼 토방을 왔다갔다하며 계속 씨벌거렸다.

《백가장은 그년을 문초하는 한편 촌장과 함께 마을을 발각 뒤져야겠소. 그놈이 도망을 쳤지만 심한 상처를 입었기때문에 절대루 멀리로 갈수 없소. 그럼 빨리 차비하구 뒤따라오시오.》

그놈은 인차 박성필이네 집쪽으로 가버렸으나

덕훈은 그냥 문을 열어놓은채 실성한 사람처럼 찬바람을 맞으며 캄캄한 허공을 멍청히 바라보고 서있었다. 무엇보다도 친 제수나 다름없이 지내던 박성필의 안해를 문초하라는 순사부장의 지시가 기막힌 일이었다. 현실적으로 백가장직분이 가져다주는 운명의 가혹성은 극한점에 달하였다.

《에그 오뉴월문처럼 그냥 열어놓구있으면 어찌우... 그래 어쨌다는거요? 훈장적은이가 도망쳤다우?》

박씨가 허둥거리며 문지방을 넘어와서 문을 후려닫고 덕훈이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덕훈은 그냥 돌부처처럼 서있었다.

《당신더러 훈장네 동서를 문초하라는거요?》

바글바글 끓는 성미인 박씨의 귀찮은 물음에 덕훈은 성가신듯 발끈하였다.

《거 남정네 하는 일에 제발 새새거리며 참견질 마우. 으흠으흠...》

그는 건가래를 토폴면서 앞벽에 걸린 병거지털 모자와 나들이 검정두루마기를 벗기었다. 어쨌든 박성필이네 집으로 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비칠거리며 토방을 내려서자 박씨가 부지깽이같은 막대기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엠텐소. 밤길인데 지팡이나 짚고가우. 복남이녀석이 당신이 백가장일을 하자면 걸음이 많을걸 생각하구 제손으루 참나물 다듬어서 만들었다우.》

덕훈은 열결에 단장을 받아쥐었다. 복남이란 이마을 촌장집에서 머슴질을 하는 소년이었다. 문득 덕훈의 눈앞에 늘 재빛 두루마기를 입고 마을을 활개치며 다니는 촌장의 얼굴이 눈에 밝히었다.

덕훈이 맘속으로 제일 미워하고 경계하고 타매하는 인간이었다. 이제 서른살밖에 안되는 그 신수털끔한 녀석이 요즘은 자위단 부단장자리까지 얻어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있었다. 왜놈들의 등을 어떻게 굽어났는지 울봄에 소백촌으로 이주해왔다는자가 벌써 만여평 실히 되는 감자밭을 얻어가지고 열네살짜리 소년머슴까지 부리면서 호강하고있는것이다. 덕훈을 백가장으로 《추천》한 것도 바로 그자였다.

덕훈은 제일 혐오스럽던 그런 추물들과 한패가 되어 죄없는 너인을 문초하고 동네집들을 검색하며 짜다녀야 할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성필이 그사람이 무사히 내뺐다니 일은 다행으로 된셈인데...헌데 이제 마을에 닥칠 재난은 어떠허누...)

덕훈은 손에 쥐었던 지팡이를 내던지고 허청거리며 삿잡문을 나섰다.

골짜길은 바람소리로 가득찼다. 우흐흐... 하고 머리우에서 그 무슨 괴물의 울부짖음같은 바람소리가 일어날 때마다 눈보라가 연기타래같은 기다

란 꼬리를 달고 위로 솟구고 아래로 끈지면서 마치 창살맞은 짐승처럼 날치였다.

박성필이네 집은 멀지 않았으나 덕훈은 추위와 눈보라와 그리고 번민의 고통으로 하여 무척 곱뜨고 힘들게 찾아갔다.

전지불이 환하게 비친 성필이네 집마당에서 순사부장놈이 순사 한놈과 농군복차림의 마을 젊은이 하나를 옆에 세워놓고 입김을 날리며 무어라고 아대다가 마침 덕훈이 삼작문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미친듯이 칼을 뽑아들었다.

덕훈은 어둑속에 비낀 시퍼런 칼날이 금시 자기목을 내리칠것만 같아 손을 휘저으며 뒤걸음을 쳤다.

《이 밥통아! 그런걸 감시하라구 십가장을 찼지 무얼 하라구 준줄 아느냐!》

무엇때문인지 순사부장놈은 악에 치받쳐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래기를 질렀다.

《아 글쎄 그년이 통행증까지 가지고있길래 난 맘놓고 보냈지요. 정말 십가장을 해먹기두 힘들 우다.》

마을 젊은이는 억울한듯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는 십가장이었다.

덕훈은 얼마후에야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성필의 안해가 이틀전에 벌써 위조통행증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갔으며 그때문에 성필이네 집을 관할하는 십가장이 추궁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천만다행이었다.

그랬으나 그놈의 입에서는 더 무서운 소리가 튀어나왔다.

《좋다. 그년은 도망쳤지만 성필인지 그 훈장놈인지 그자는 아직 이 마을에서 빠져나갈수 없다. 만약 그놈을 잡아내지 못하면 백가장두 십가장두 다 목이 날아날줄 알아라!》

순사부장놈은 덕훈을 흘려보면서 계속하였다.

《마침 서장님댁에 놀러오셨던 수비대장도 류치장탈주사건에 대한 말을 듣고 이것을 <통비분자>나 공산군과 련관된 사건으로 추리하면서 수백명의 일만군경을 출동시켜 소백촌마을을 둘러싸고 수색하도록 이미 지시하였다. 그것은 한놈의 탈주자를 통해서 많은 <통비분자>와 공산군을 잡아낼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니 우선 백가장은 촌장과 함께 집집을 검색하고 너<십가장>도 마을 십가장들에게 다 알려져 관할구역의 집들을 뒤져라!》

순사부장놈은 서장의 호출을 받고 인차 가버렸다. 뒤따라 마을 젊은이도 자리를 떠서 마당에 홀로 남게 된 덕훈은 지계문들이 모조리 젖혀진 굴속같이 캄캄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불시에 그 캄캄한 방안에서 성필이가 뛰쳐나와 자기 떡다시를 움켜쥐고 《이 못된놈의 두상! 날 붙잡으러 싸다녀?》하고 언땅에 뒹다끈질것만 같아 소름이 확 끼치었다. 그랬으나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

지 자기도 모르게 무시무시한 빈방으로 찾아들어갔다.

이미 온기가 다 사라져버린 팽방이었다.

《마을에 큰 화액이 미치게 됐구나!》 하고 덕훈은 탄식하면서 마당쪽에 등을 돌려대고 문턱에 걸터앉았다. 그런데 그때 누구인가 자기를 뵈히 지켜보고있는것 같은 이상한 육감에 고개를 휙 돌리었다. 그 순간 덕훈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분명 마당 한복판에 거뭇한 물체가 서있었기때문이었다. 그 물체는 비실비실 뒤걸음을 치는 덕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니 문턱을 넘어와서 성냥불을 그었다. 성냥불은 얼굴 절반을 목수건으로 둘러감은 성에투성이로 된 체소한 사람을 언뜻 비쳤다가 바람에 인차 꺼져버렸다.

그 사람은 문을 닫고 다시 성냥불을 그어 문벽에 걸린 석유등에 가져다댔다.

덕훈은 복면한 강도라도 만난듯 와들와들 떨면서 뒤벽에까지 물러갔다. 그러자 웬일인지 그 《복면사나이》의 어깨가 들쭉거리면서 목수건안에서 킬킬거리는 괴상한 소리가 일어났다.

더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게 된 덕훈은 샷리를 편 뽕돌바닥에 주저앉았다.

《하하하...백가장아버님! 어째 그리 놀라세요?》

《복면사나이》가 목수건을 풀어버리고 깔깔거리며 웃어댈 때에야 덕훈은 상대방을 알아보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열적게 입을 다시며 일어섰다. 그를 놀래운 사람은 뜻밖에도 촌장집 머슴인 복남소년이었다.

인정에 고갈된탓인지 덕훈이네 집에 불임성있게 자주 놀러다녔고 백가장의 걸음을 넘려하여 지평이까지 만들어준 소년이었다.

《백가장님, 안녕하세요.》

소년은 아직도 웃음을기를 가지지 못한채 더벅머리를 꾸벅 숙이었다.

덕훈은 너털이 난 토스레 헌 바지저고리를 걸친 새끼곰같은 소년의 툭툭한 몸집이며 보조개를 판 가무잡잡한 얼굴을 뽐거리며 쳐다보았다.

의원의 얼굴에서 공포의 파문은 지워졌으나 대신 심각한 의혹의 빛이 어리고있었다.

(촌장놈이 지레 먼저 나를 재촉하러 저 애를 보낸게 아닐가?)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한편 그는 머슴소년때문에 멋없이 놀란것이 쑥스럽고 화가 나서 눈을 흘기었다.

《요녀석! 언제 봐야 장난질이라니까. 배속에 령감이 두세개씩 들어가지구 백가장, 백가장 하면서 아는 주정을 하는녀석!》

《난 마음좋은 의원아버님이 백가장 되신게 정말 기뻐서 그러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가! 좋아서 하는 백가장이냐 죽지 못해 하는 백가장이지.》

덕훈의 말꼬리는 흐느끼듯 떨리었다.

그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은채 덤덤히 서있다

가 맥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네 이 밤중에 어째 여길 찾아왔느냐?》

《의원아버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집 훈장아버님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류치장에서...》

《다 알고있다.》 덕훈은 류치장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서 소년의 말을 성급히 가로막았다. 그러나 어차피 뒤말을 들어야했기에 소년을 돌아보았다.

《이눔아, 그 때문에 온 동네가 망하게 됐다. 이제 그 경찰서 사건으로 일본수비대와 위만군까지 떨어 나서게 된걸 알거나 하느냐? 뒤탈은 생각지도 았구 훈장을 빼내기만 하면 어찌자는거냐!》

덕훈은 운명의 막다른 골목이 이 우둔하고 방자한 소년의 불장난으로 해서 생겨난것만 같아 극도의 분격이 치밀어올랐다.

《그러잖아 겁이 많으신 의원아버님이 낮이 새까매 돌아가실가봐 내가 우정 찾아왔어요. 모두 무사하게 만들테니 아무 근심 마세요.》

《걱정 말라구?... 네너석을 처음 만날 때부터 어디서 우환단지가 굴러왔다 생각했더니 종시 으흠, 그래 너희 촌장두 류치장사건을 알고있느냐?》

《그것두 모르구 촌장을 하나요?》

《너석, 말은 썰썰 잘한다...헌데 성필이 그사람이 용케 빠졌는걸...》

《소문을 듣자니까 <술망태>라는 별명을 가진 당직순사가 아편을 녹여넣은 술을 마시고 뿔아떨어졌다니요. 그 틈에 빠져나갔는데 아직 누구도 그 내막을 알수 없대요. 누가 당직순사한테 독주를 먹이고 누가 열쇠를 열어 성필아버님을 빼내갔는지...》

《아무쪼록 후환이 없으면 좋으련마는...》

덕훈은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글쎄 근심 말래두요. 모두 무사하게 만들테니 두고보세요.》

《큰소린 잘한다!》

《글쎄 이제 보시면 알거예요.》

소년은 당장 무슨 큰일을 치를듯 의기양양했다.

덕훈은 너무도 당돌한 복남이를 보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처음 만날 때부터 엉뚱한데가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해오던 터였다. 촌장머슴으로 들어온 복남이는 두어달전 어느날 깊은 밤에 찬밥에 얹혀 까무라친 여라문살 되는 동네아이를 업고 찾아왔었다. 그때 덕훈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촌장머슴질을 하는것을 가궁히 생각하고 《고생속에 자란 애가 다르구나. 어린것이 병자를 업고다니는걸 보니.》 하고 기특히 여기면서 환자의 병상태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애는 음식에 체했구나. 천지만물이 다 그러하듯이 사람의 오장육부도 서로 의탁되고 통해있어 없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것이 심하면 열이 동해

까무라치게까지 되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든 량이 축적되면 그 본래의 성질이 달라지기에 없히기를 자주하고 겹쌓이면 위장병으로부터 더 무서운 새 질병으로 번져진다. 그러기에 무슨 병이든 자래우지 말구 시초에 잘 고쳐야 하느니라.》

소년은 거치른 산바람과 별에 그슬린 가무잡잡해진 동실한 얼굴을 가웃이 기울인채 의원의 말을 귀담아듣고있다가 눈을 깜빡이며 응수했다.

《옳아요. 무엇이든 많아지구 겹쌓이면 그 성질이 달라진다는 말을 나두 들었어요. ... 흠이 쌓이면 산을 이루고 물이 모이면 바다를 이루고 연기가 쌓이면 구름이 되고 소리가 쌓이면 우뢰가 되고 냄새와 맛이 모이면 사람의 밥집을 움직이고...》

소년이 글을 읽듯이 랑랑한 목소리로 한창 이렇게 엮어낼 때 덕훈은 갑자기 너털웃음을 치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허허허...그녀석 어디서 리항로선생의 <화서집>에 적힌 글줄을 얻어들었구나. 헌데 전랑 틀리게 외웠다. <연기가 쌓이면 구름이 되고>가 아니라 <연기가 쌓이면 먹이 되고>구 <소리가 쌓이면 우뢰가 되고>가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고>구 <냄새와 맛이 모이면 사람의 밥집을 움직이고>가 아니라 <사람의 창자를 변화시키고>다. 허허허...》

덕훈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으며 자꾸 웃어댔지만 소년은 조금도 어줍어하지 않고 반죽종게 대꾸하였다.

《글쎄 먹이 되는 구름이 되는 량이 많아지면 변화가 생긴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두 여럿이 모이면 힘에서 변화가 생기지요. 힘이 커져서 산두 떠옮기구 바다두 메운다지 않아요. 그래서 나두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조선사람모두가 힘을 합치면 왜놈들 물리치고 조선독립 수행하리!>...》

소년의 화제가 느닷없이 이렇게 번져지자 덕훈은 커다란 갈색눈을 엄하게 치프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너석! 그런 글은 함부로 외우면 안돼! 경찰서에 불들려가! 더두말구 너희 촌장 귀에만 들어가두 큰일이다.》

덕훈은 두번다시 그따위 글을 읽으면 경찰서에 일러서 류치장귀신이 되게 하겠다고 오금을 박았다. 그에게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는 매국적인 《을사5조약》 이후부터 발족하여 수십년을 이어온 모든 반일구국운동들이 비참한 말로를 가져온 그 비극적운명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사람이었다.

덕훈이 자기 일가의 래력을 더듬어보아도 아버지와 세 삼촌들이 죄다 저 전라도땅에서 최익현 의병대에 참가하였다가 숙절없이 희생되었고 처가편을 둘러보아도 독립단이나 의병대와 연줄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의나 살아남은것이 없었다. 그의 외아들도 무슨 좌익운동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였었으며 그 후파로 노상 앓다가 바로 아홉달전에 죽었다. 덕훈이 자신도 그 아들때문에 자주 경찰서걸음을 하며 시달렸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후에 인차 고향과 멀리 떨어진 여기 이국촌락으로 옮겨온것이였다.

덕훈은 이와 같이 쓰라린 경험으로 하여 조선 인민의 식민지생활이 약소국가의 숙명적인 불행이며 따라서 무모한 반항을 하지 말고 곱살곶게 살아가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그런데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열네살 소년이 단결이요 독립이요 떠들어대니 덕훈은 위태로움을 느낄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덕훈은 《강약이 부동으로 조선사람은 식민지생활을 할수밖에 없느니라. 다시는 독립운동이 어찌구 저찌구 하면 못쓴다.》 하고 소년을 심중히 타일러보였다. 그랬으나 소년은 그후에도 자주 놀러와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어찌구 단결이 어찌구 하면서 계속 지못게 위태로운 말을 내뱉었다. 그러더니 오늘은 마을을 포위한 왜놈들을 당장 쫓아버릴 무슨 계교라도 있는듯이 으쓱거린다.

《흥, 그놈들이 아무리 소백촌마을을 뒤져두 훈장아버님을 찾아내지 못해요!》

소년은 코웃음을 치고 도톰한 입술을 비웃듯이 셀룩거리더니 저고리품속에서 난데없이 낙지꼬리같은 여러 가닥의 긴 종이꼬리가 달린 연을 꺼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이 보통 연을 띄우며 노는 흰종이로 만든 연이 아니라 모두 먹칠을 한 새까만 연이였다. 수수풍다리에 감아놓은 연줄도 진한 재빛을 띠는것이였다.

《아버님은 추운데 괜히 여기서 떨지 마시구 옆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세요. 뒤탈이 없도록 이 복남이가 잘해드릴테니... 만약 순사놈이라도 만나면 마을을 검색하다 추워서 몸을 녹인다구 하세요.》

복남은 입김을 불어 석유등을 꺼버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덕훈은 서둘러 따라나서며 연을 든 소년의 손목을 거머쥐었다.

《이 녀석아! 너 정말 철딱서니가 없구나? 이 밤중에 무슨 연띄우기놀음이나 응! 부질없는 장난을 걸어치우구 돌아가서 잠이나 잘것이지. 놈들의 눈에 띄면 철없는 어린것들두 무사치 못해.》

의원의 공포에 질린 이 절망적인 녀두리의 의미를 알려라도 주듯이 눈보라가 소용도는 골짜길에서 말투레질소리와 무수한 군화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장을 진 기다란 대렬이 어둠속을 누비며 가로세로 엇갈리는 수많은 전지불속에 언뜻언뜻 드러났다.

《다 죽었구나 다 죽었어!》

《아버님! 걱정 마세요. 내 이제 <도술>을 써서

저놈들이 마을사람 손가락 하나두 다치지 못하구 돌아가게 할테니 두고보세요.》

복남은 언땅에 쓰러질듯이 비칠거리는 덕훈을 부축하면서 귀속말로 속삭였다.

《허어-도술? 속이 편해서 아직도 그런 장난소리냐?》

《야- 정말 근심 마시라는데요. 자, 어서 저 병철형님네 집에 들어가자요.》

복남은 덕훈을 질질 끌다싶이해서 훈장네 옆집에 데리고 들어갔다. 아까 순사부장놈한테 구중을 듣던 그 젊은이네 집이였다. 복남이 잉걸불이 이끌거리는 등디목에 덕훈을 앉혀놓고 밖으로 나가자 십가장이 이남박에 구운 감자를 들고 들어왔다. 덕훈은 젊은이가 권하는 감자를 먹는동안 등하다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갔다. 골짜길에 울리던 군화발소리가 뜸해지고 어둠속을 휘젓는 바람소리만 들려왔다. 전지불들은 벌써 저 멀리 북쪽 소백령등말기에서 병긋거렸고 동쪽과 서쪽산말기에는 수십개를 헤아리는 시뻘건 불무지들이 점점이 널려있었다.

이미 마을을 포위하였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덕훈의 가슴을 옥죄이였다.

《의원아버님! 어째 또 나오셨어요?》

성필이네 집모퉁이에서 복남이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한참만에야 굴뚝뒤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복남을 발견하였다.

《어째 여기에 웅크리구 앉아있느냐?》

《연을 띄워요! 아까 그 새까만 연을 보셨죠. 그게 벌써 하늘높이 올라갔어요.》

덕훈은 부지중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캄캄한 하늘에는 파랗게 여문 총총한 별들과 이따금 꼬리를 지으며 날아가는 희끄무레한 눈타래만이 보일뿐 연종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하기는 새까만 연이어서 보일수가 없었다.

덕훈은 어리둥절해서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소년은 연을 띄우는것이 아니라 마치 추위에 물려서 굴뚝뒤에 그저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는것처럼 보이였다.

《아버님! 제가 왜 밤연을 띄우는지 참 별나게 생각되지요? 이게 바로 도술이예요. 하하하... 지금 저 하늘에서 왜놈들을 모조리 쫓아버리게 하는 도술글종이들이 훨훨 날아내리고있을거예요.》

덕훈은 도술을 쓰는 글종이에 대한 복남의 말을 놀람게 듣고있었다.

글종이들에 살짝 풀을 먹여서 연종이에 차례차례 덧붙이면 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풀먹인 자리들이 바람에 떨어져 비행기에서 종이를 뿌리듯 곳곳에 날아내리게 된다는 소년의 말은 그럴법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글종이기에 총 한방 쏘지 않고 수백명 일만군경놈들을 쫓아버릴수 있는지 큰 의문이였다.

소년은 새물새물 웃으면서 그 《도술》술의 비밀만은 아직 알려줄수 없다고 한다.

《의원아버님은 그저 맘놓구 구경이나 하세요. 이제 저놈들은 그 글종이를 보고 저희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돌아가구말거예요. 어쩌면 순사부장놈은 총살을 당할수도 있어요. 아버님두 이제 저 글종일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 복남이가 정말 도술을 썼구나!> 할거예요. 하하하...

아버님, 그때까지만 꼭 참구 기다리세요!》

덕훈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종이에서 퍼져나간 글종이들이 밤하늘을 날아예다가 적병들의 머리위에 떨어져내리는 신기한 광경이 방불히 그러졌다.

소년의 《도술》이 성사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기묘한 생각을 해냈음이 틀림없었다.

밤연을 띄워 글종이를 뿌리게 하는것만도 얼마나 영특한 생각인가싶었다.

보통 령리한 소년이 아니라 일종의 미더움이 생기면서 가슴 한귀퉁이에 엮은 희망의 줄이 드리우는것 같은 야릇한 느낌을 받게 되는것이였다. 그러자 비로소 덕훈은 박성필의 피신처를 알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났다.

《아야, 박성필이 그 사람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혹시 짐작이 안가느냐?》

《후에 차츰 알려지겠지요. 아버님, <흠이 쌓이면 산을 이루고...> 있잖아요. 단결의 힘말예요. 그 힘으루 박성필아버님을 깊숙이 숨겨두었을거예요.》

덕훈은 멍청히 서있었다. 그는 무슨 꿈을 꾸는것 같기도 하고 환각의 세계를 헤매이는듯도 했다.

(단결의 힘으로 혼장을 깊이 숨겨두었다?)

슬쩍 내비친 소년의 그 말에는 무엇인가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것 같았다.

《아버님, 그러니 걱정 마시구 어서 병철형님네 집에 가 계세요. 한지에 오래 계시다 늙으신 몸 에 탈이라도 나면 어찌됐어요.》

덕훈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복남이 자꾸 권하여 옆집으로 찾아갔다.

십가장집 등디에서는 아직도 잉정불이 사위여지지 않고 화기를 내뿜고있었다.

덕훈은 여전히 생각이 복잡했다. 더우기 나이는 어려도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간이 아닌 복남이가 어쩐지 촌장과 마음이 통해있는것 같은 이상한 감촉이 느껴져 가슴이 설쫘하였다.

그러나 화끈한 등디불에 언몸이 녹아버리자 덕훈은 저도 모르게 살쫂이 잠이 들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등디목에 꼬부리고 누워있던 그는 누구인가 어깨를 흔들며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백가장님, 이젠 경찰서로 가볼가요. 허허허...》

채빛 두루마기를 입은 이마가 원칠한 젊은 사나이가 흰하게 밝아진 문창앞에 서서 히죽히 웃고있었다. 촌장이였다. 그 사람을 보자 덕훈은 잠기가 싹 가시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면서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경찰서로 가잔말이지? 가택수색은 하지 않구 등디목에 누워 잠만 잤는데 정말 일없겠나?) 하고 생각하면서 덕훈은 결눈으로 촌장의 얼굴을 스쳐보았다.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조금도 악의가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였다. 그 사람의 서늘한 눈에 련민의 감정에 잠긴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서글픈 빛이 어려있는듯싶었다.

《의원아버님.》하고 부르는 소리에 덕훈은 고개를 쳐들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아버님은 그저 함구무언하고 계십시오. 그놈들앞에서 말을 자칫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모든걸 제게 맡기고 아버님은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

덕훈은 멍청히 서있었다. 촌장의 말투와 얼굴 표정과 눈빛에서 보다 더 짙은 인간미를 느꼈기 때문이였다.

그밖에는 다른 군말을 하지 않고 촌장은 밖으로 나갔다.

압록강 저편 동쪽하늘은 해뜨기직전의 강렬한 붉은 채색으로 물들어있었다. 그러나 추위는 더 여물어서 뺨을 에이는것 같았고 입안에서 풍겨나오는 허연 입김이 그대로 털벌거지밑에 성예를 불리게 하였다.

경찰서정문으로 들어서자 전에없이 조용한 마당에서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퍼돌았다. 방금전 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듯 다져지지 않은 마당의 눈우에 많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있었다.

덕훈은 촌장을 따라 곧장 서장실로 들어갔다.

호젓한 방안에 몸이 비대한 서장이 홀로 머리를 움켜쥔채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는데 윤기가 도는 그 누런 책상에는 공책크기만한 글종이가 놓여있었다. 그것을 띠여보는 순간 덕훈은 문득 밤연을 띄우던 복남의 《도술》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촌장을 돌아보았다.

《서장님! 밤새껏 집집을 다 수색했는데 도저히 찾아낼길이 없군요.》

촌장은 들어서자바람으로 맥이 진한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덕훈은 서장놈의 입에서 당장 벼락같은 호령이 터져나올것만 같아 가슴을 오그리고 서있는데 뜻밖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참만에야 서장은 머리를 움켜쥐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우고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두사람을 멍청히 지켜보다가 축 처져내린 누런 볼따귀

를 실룩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래 당신들은 아직두 이런걸 보지못하구 돌아다니는가?》

덕훈은 촌장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가 책상앞으로 가는것을 보고 조심스레 따라가서 서장놈이 가리킨 글종이를 굽어보았다.

가느다란 붓글씨로 내려쓴 종이장의 글줄을 더듬어 읽는 덕훈의 얼굴에 강한 파문이 지어졌다.

그것은 이와 같은 글이었다.

소백촌에 운집한 일만군경들에게 정식 통고한다!

우리는 이미 예정대로 박성필을 빼내여 압록강을 건너보냈다. 이 엄동설한에 부질없는 고생을 하는 당신들이 가여워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 량심을 가진자는 이 기회에 총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선인민혁명군 별동대

《아하, 그러니까 확실히 공산군이 박성필을 탈주시켰구만요. 그런데 이 글종이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촌장은 짐짓 겁에 질린듯이 굳어진 표정으로 서장을 건너다보았다.

《이런 빼라가 소백촌주변과 압록강기슭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나타났소. 놀라운것은 지난밤 모닥불에 모여앉아있던 수비대의 여러 군인들이 밤하늘에서 이런 빼라가 떨어져내리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것이요.》 하고 글종이를 만지는 서장의 손이 마구 떨리고 눈알은 공포에 질려 회색거렸다.

《거참 신기합니다. 비행기가 떴다면 몰라도 어떻게 하늘에서 그런 종이가? 공산군이 둔갑두 하구 도술두 쓴다더니 그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종이를 놓구 육신각신하다가 결국 철수하게 됐소. 처음엔 의견이 분분했지. 수비대대장은 철수하자구 하구 현경찰서 지도관과 우리순사부장은 래일저녁까지만 수색해보자구 하구...그런데 그때 순사부장 책상빼람에서 공산군 협박장이 발견되는바람에...》

서장은 말끝을 미처 맺지 못한채 후들거리리는 손으로 책상빼람을 열더니 손바닥만한 글종이를 꺼냈다.

《아니 그건 또 무언가요?》 하고 촌장은 놀란소리를 지르며 서장의 손에서 글종이를 나꾸채듯 급히 집어들었다. 덕훈은 잔뜩 호기심이 동해서 고개를 기웃하고 글종이를 넘겨다보았다.

펜으로 또박또박 박아쓴 글이었다.

가네무라 순사부장!

25일 저녁 6시까지 박성필을 신덕골 매바위동굴에 모셔오라. 우리는 이 요구에 순응

하면 당신의 모든 죄과를 용서하고 후과가 없도록 안전을 담보해줄것이다. 만약 순응하지 않으면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할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별동대

촌장은 이 글을 읽고나서 의아스러운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니 어디 그럴수 있겠습니까. 가네무라 순사부장이 협박장을 받고 박성필을 빼냈다는걸 누가 과연 믿을수 있겠습니까.》

덕훈은 눈꼬리를 치뜨며 촌장을 쏘아보았다.

그 저주스러운 순사부장을 두둔해나서는 그의 행동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랬으나 어쨌든 마을이 구원됐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하여 덕훈은 저도 모르게 긴숨을 내쉬었다.

《사건은 이렇게 복잡하오. 꼭 미궁속을 헤매이는것 같소.》 하고 서장도 긴 한숨을 내쉬고 풀기없이 말을 이었다.

《순사부장 역시 그 협박장을 그때 처음 본다구 펄펄 뛰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해볼 경황이 어디있소. 성미 급한 수비대장이 극도로 분격해서 그를 반주검이 되도록 란타하고 체포해갔소... 순사부장은 무사치 못할것 같소.》

서장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제끼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순사부장이 무사치 못하겠단말이지요. 하긴 수비대어른들이 뵈어야 나게 됐지요.》

촌장은 가라앉은 처량한 목소리로 의미심장히 중얼거렸다.

서장은 목단추를 끄르고 목을 휘저으며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아, 우리 소백촌 경찰서의 수치로다!》

《수치는 수치구 서장님두 주의하셔야겠습니까. 대홍촌 경찰서 서장두 공산군 별동대한테 목숨을 잃었지요. 남의 일같지 않습니다.》

촌장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지어 부드러웠으나 퇴성같은 진동으로 서장의 고막을 울린것 같았다.

그놈은 짜장 천둥소리에 놀란듯 벌떡 일어났다가 주저않더니 또다시 머리를 움켜쥐고 미친듯이 몸부림을 쳤다. 기실 공포와 불안과 번민으로 그놈은 조만간에 정신이 잘못될것 같았다.

덕훈은 그놈의 공포에 질린 눈과 비렬한 몸부림을 보면서 《저놈들이 혁명군을 여간 무서워하지 않누나!... 저런 빙충맞은 놈들을 내 왜 그리도 무서워했단고?》 하는 억울함을 느끼었다.

얼마후 서장실에서 나온 덕훈은 너무도 충격이 크고 생각이 많아져서 자기가 어떻게 큰길에까지 걸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어지러운 군화발소리와 말투레질소리에 고개를 쳐들었을 때에야 어제밤에 소백산쪽으로 추어올라갔던 적병들이 도로 밀려내려오는것을 보게 되

였다.

백여명 실히 되는 누런 제복의 일본군인들이 무어라 두덜거리며 골짜기를 내려가고있는데 밤새 추위에 떨면서 불무지결을 땀몰아서인지 거개가 얼굴에는 얼룩덜룩한 쥐마당을 그렸다.

옷에다 소눈갈만한 불구멍을 낸 놈들도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세관계 얻어맞고 총 퇴각하는 패잔병들의 가련한 물골이었다. 그뒤를 이어 위만군부대와 현 경찰서의 지시를 받고 파견된 순사놈들이 언발들을 질퍽거리며 내려갔다.

일만군경무리들의 긴 행렬이 지나간 뒤에 촌장이 묵묵히 서있는 덕훈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복남이가 정말 슬기로운 소년이지요.》

덕훈은 그윽히 미소를 짓는 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언제나 겁에 질려있는것 같던 그의 커다란 갈색눈이 이때 처음으로 날카로운 빛을 띠고 번쩍거렸다.

《촌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아버님! 노여워마십시오. 그동안 저는 촌장간판을 걸구 걸으로 일본놈에게 충실한척하면서 이 마을의 조국광복회조직을 책임지고 일해왔습니다. 제가 바로 <조국광복회소백촌지회>지회장입니다.》

덕훈은 몹시 놀랐으나 까딱없이 서있었다.

《아버님! 우리 마을 십가장과 자위단원들중에도 조국광복회 회원이 많습니다. 소백촌은 결국 우리 세상으로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남이두...?》

덕훈은 비로소 촌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촌장은 멀리 서북쪽하늘을 이윽히 지켜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복남은 열살때부터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투쟁을 돕고 배우면서 자라난 소년입니다. 그는 우리 마을 조국광복회조직을 돕기 위하여 촌장의 <머슴>을 하고있는 아동단원입니다. 얼마나 기특한 소년입니까. 협박장으로 적들을 혼란시킨것을 비롯해서 밤연을 피운거며 글종이를 만든거며 이 모든게 다 그 어린 소년의 머리로 생각해낸겁니다.》

덕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한밤중에 연을 띄우던 소년의 모습과 함께 일만군경의 머리위에 글종이들이 날아내리는 신기한 광경이 엇갈리며 되살아났다. 그 순간 덕훈은 소년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누가 무엇이 저렇듯 어린 소년을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사람으로 되게 하였는가? 무엇인가 가슴을 몽클하게 적시며 촌장이 방금전에 하던 말이 귀전을 울린다.

그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뇌이였다.

《복남아, 너는 파시 대장부보다. 일만군경을 쥐

락펴락하는 네 슬기로운 모습을 보니 너를 그렇지 켜주신 **김일성**장군님의 거룩하신 인품을 가히 짐작하게 된다. 강한 장수에게는 약한 병졸이 없다는 말의 진 뜻을 더 똑똑히 깨닫게 되어나...》

그러면서 덕훈은 그리운 내 나라, 조선땅이 있는 압록강건너편 저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다. 이 나라의 열네살 어린 소년이 저렇듯 슬기롭고 영웅할진대 내 어찌 스스로 이 나라를 약소민족으로 낮추면서 주접이 들어 살아왔던고?)

덕훈은 이제 와서야 열네살어린 소년에게서 이 나라 백성의 도리를 배우게 되는것 같았다. 그는 새삼스레 박성필을 생각하게 되었다. 약소민족으로 태어난것을 늘 한탄하며 절망속에 살아온 그 사람도 오늘은 많은것을 새롭게 깨닫고 새길, 새정신을 찾은 소생의 기쁨을 느끼고있을듯싶었다.

그래서 덕훈은 촌장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내 박성필을 만나고싶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소?》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미 백두산밀영으로 갔습니다. 성필아저씨도 장차 그리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덕훈은 실눈을 짓고 마을을 응시하는 거대한 성벽처럼 늘어선 소백령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너머 어딘가에 백두산밀영이 있을것 같아서였다.

《아버님, 성필아저씨를 차츰 만나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그만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사이에 손주가 태어났을지 알겠습니까.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드님의 대를 이을 손주말입니다.》

덕훈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자기 집이 있는 골짜기 아래쪽으로 눈길을 옮겼다. 그러자 웬일인지 복남소년이 일껏 만들어준 지팡이를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온 지난밤 일이 돌이켜지면서 가슴이 저리도록 후회되었다.

덕훈은 신념의 기둥처럼 인생을 받들어줄 그 지팡이에 대한 생각으로 걸음을 서둘렀으나 얼마를 가지 못해 무릎 서버렸다.

아침해빛이 선명하게 비치는 삽작문옆에 푸른 상록수가지를 꽃은 기다란 장대가 세워져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옛날 젊은시절 안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늙은 어머니는 저렇게 대문안에 술가지를 높이 달아올렸었다.

덕훈은 어쩐지 눈곱이 찌릿해왔다. 갓 태어난 애기의 세찬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것이 어찌면 할아버지의 소생을 알리는 사랑하는 후대의 환호성 같기도 했다. 참으로 소생하는 조선의 힘찬 고고성이 들려오는것 같았다.

보 답

김수범

윤실은 재봉기앞에만 앉으면 말이 없었다. 일손이 바빴다. 그대신 생각이 많았다. 입을 열어 말을 하면 혼자서 자신과 이야기하지 못할수 있었다. 그저 이렇게 가만히 재봉기만을 돌리느라 면 그는 한껏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꿈도 나래치고 희망도 구름처럼 피었다.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녀성이라는 그것때문에 얼굴이 뜨겁도록 부끄러운 일도 생각으로서는 언제나 가능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강민호라는 그 존재는 군복앞설이 터질듯이 팽팽하게 붕긋한 윤실의 가슴을 꼭 채웠다. 반 《민생단》투쟁이 일시 좌경적으로 휘몰아치던 동만의 겨울밤, 추격의 총소리와 함께 강민호는 이 처녀의 곁을 떠나 어디론지 가버렸다. 그날밤, 도망을 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북만의 어느 밀림속에서 굶어죽었는지, 얼어죽었는지 모를 그의 시체를 보았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 처녀의 가슴에 모진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뒤에서만 쉬쉬하였다.

강민호의 실종은 윤실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주었다. 그의 《죄》를 그대로 다 뒤집어쓴 윤실은 무장을 빼앗긴채 근거지에서 쫓겨났다. 어데 가서 얼어죽든, 굶어죽든 맹수의 밥이 되든 산에서 내려가 일체의 주구로 되어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다 어느 편의 총에든 맞아 까마귀의 밥이 되더라도 썩 없어지라는 좌경분자들의 말에 윤실은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을 터뜨렸다. 일체의 주구로 되라는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것 같아서였다. 윤실은 장군님께서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떠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통할리가 없었다.

근거지에서 쫓겨난 윤실은 아근의 숲속을 사흘이나 헤매었다. 강민호의 시체라도 찾아 제손으로 안장해주고싶어서였다. 참을수 없었다. 동만의 사나운 눈보라가 윤실을 대신해주었는지도 몰랐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가슴속깊이 안고 윤실은 장군님을 찾아 북만의 생눈길을 사선처럼 헤치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은 윤실의 《시체》가 어느 산전막에서 소생하고 그후 장군님의 품에 안겼으나 반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오늘까지 윤실은 생사여부조차 딱히 알수 없는 강민호에 대한 생각에 늘 눈물을 삼키고있었다. 더군다나 군수관의 말에 의하면 장군님께서 이 윤실이-자기한테 매번 새 군복을 지을 때마다 제일 큰것으로 한벌씩은 꼭 예비로서 간수해두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했다. 처음에는 미처 몰랐지만 장군님의 그 말씀속에 담겨진 깊고도 뜨거운 참뜻을 깨달았을 때 윤실은 혼자서 얼마나 흐느껴울었는지 모른다.

그 말씀속에는 강민호가 절대로 죽지 않았다는 장군님의 믿음이 어려있었으며 동지들이 겨울과 여름에 새 군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이 윤실이가 반군하는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사려깊은 헤아리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윤실이도 장군님께서 곳곳에 통신원들을 보내실 때마나 매번 강민호의 행처를 찾고계시는줄은 후에야 비로소 알았었다.

(과연 우리는 어쩌다가 그렇게 헤어졌던가? !...)

웬만한 사람앞에서는 자기의 신조를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는 강민호의 성미가 근거지에서 일정한 직위를 가진 몇몇 좌경분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들어있는줄을 윤실은 전혀 알지 못했었다. 보통인간의 개인적인 감정도 생활에서는 가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지만 우경보다 좌경이 낫다고 생각하는 《간부》들의 독단과 전횡, 자존심의 경쟁과 개인적인 복수는 보다 긴 반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직접 위협하는줄은 더군다나 모르고 살아온 강민호와 윤실이였다.

다만 지금도 생각나는것은 자기들 두사람을 한번 더 검열해보기 위하여 적후에 식량공작을 보내던 사실, 식량을 구하자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한테서 받은 은가락지 한쌍을 팔아서 천을 사던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두사람은 적의 추격을 받았다.

근거지인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식량과 정성껏 마련한 진회색 목세루친을 그들은 희생적으로 지켜냈다. 윤실은 그 진회색 목세루친이 곧 자기들 두사람의 기쁨이고 환희였던 까닭에 로인들과 아낙네들한테 보이며 어떤 옷을 짓는것이 좋겠는가를 문견했었다. 보는 사람마다 천이 좋고 색깔이 점잖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 소문은 색안경을 쓰고 윤실이네들을 살피던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천만뜻밖의 생벼락이 떨어졌다. 좌경분자들은 그들 두사람을 적후에서 로획한 천이 욕심이 나자 조직을 속여 그것을 개인의 소유로 만든 반혁명적인 행동으로 규정해버렸다. 결국 오래전부터 의심과 미움을 사던 그들은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는 《민생단》의 억울한 루명을 뒤집어썼다.

두사람이 안타까와 진실을 말할수록 놈들의 분석은 점점 더 날카로와져서 강민호는 매일아침에

사형당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윤실은 실로 가슴이 터지도록 억울하여 눈물로서 새벽을 기다리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출한 강민호가 추격의 총성을 뒤에 달고 꿈처럼 나타났다. 그는 급히 목세루천을 달라더니 오직 하나뿐인 혁명의 길에서 죽지도, 변하지도 말고 기어이 살아서 다시 만나자며 사라졌다. 그러느라면 반드시 장군님의 품에 안길날이 온다고 했다...

《언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난 다 알아요.》

재봉대의 《막내》가 곁에 와서 속삭이자 윤실은 과거로부터 현실을 찾았다.

《아니, 그건 무슨 중뿔난소리냐.》

《언니두 참! 내 눈은 못속여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짓는 여름군복을 올해는 언니의 그 사람도 입을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네.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고 언니는 반가와서 울고... 그럼 우리 재봉대는 명절처럼 흥성거리고...》

《쓸데없는소리... 어서 재봉기나 돌려라!》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윤실은 모든것이 《막내》의 이야기처럼 되어주었으면 싶어했다. 윤실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금년에는 3월도 되기전에 겨울군복과 여름군복을 같이 짓는품이 꼭 무슨 좋은일이 있을것만 같았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윤실은 다감한 긴숨을 내쉬며 재봉기만을 돌리고 또 돌리었다. 그의 재봉기는 짜릿한 환희처럼 부르르 떨리고 씩씩이 뛰는 바늘은 군복을 누벼 나간다. 마주 흘러오는 군복천은 끝없는 광야이고 재봉기는 그것을 주름잡아 달리는 군마이다. 윤실은 하루에 천리를 가는 군마를 탔다. 갈기를 날리는 군마에 박차를 가하며 윤실은 어느새 총을 멘 군사로서 이미 넘어온 그 많은 시련의 준령들을 다시 다 넘어보고 떠나는 고향에도 가보고 마을사람들도 만나보고있었다.

송아지의 울음소리, 저녁노을에 물든 시내물의 《이야기》, 풀피리소리, 닭, 개 짐승들을 불러들이는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아슴푸레하니 들려오는 향촌의 석양에 술한 부엌문들과 사립문들이 열리면서 윤실이 자기와 강민호를 맞아주는 그네들의 얼굴을 본다. 눈물겨운 상봉이다. 반갑다는 것이 우는것이다. 몰라보게 늙으신 어머니를 그리안고 얼굴을 마주비빈다.

윤실은 가슴이 쓰리었다.

(자랄 때에는 왜 어머니를 그렇게 속태워드렸을가. 그래놓고나면 가책과 후회를 아프게 느끼면서도 철없이 대답질을 했었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며 조르기도 했었지. 이 딸은 매번 웅성으로 그랬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피같은 눈물이 어리군했었다...)

윤실은 재봉기를 멈추었다.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두눈이 따라와왔다. 그는 지금 자기

가 울고있는줄을 몰랐으며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줄을 모르고있었다.

손등으로 얼른 눈자위를 훔친 윤실은 곁을 살피었다.

아무도 느낀것 같지 않았다. 키낮은 초막에는 여러개의 석유등이 켜져있었으며 아직 살아서 숨을 쉬는듯, 그냥 자라고있는듯한 통나무벽에는 송진이 흐르고 푸짐하게 쌓아놓은 군복더미들사이에는 너대원들이 불빛을 마주하고 재봉기를 돌리었다.

(모두 나처럼 자기 생각을 따르고있는것일가!)

윤실은 다시 재봉기를 돌리었다. 온 초막안에는 활엽수림의 설레임소리갈기도 하고 무수한 풀벌레들이 동시에 울어대는것 같기도 한 재봉기소리가 가득 차고넘치였다.

그러나 윤실에게는 벌써 재봉기소리가 그렇게 만은 들리지 않았다. 패주하는 일제놈들을 추격하는 우리의 통쾌한 기관총소리로 들리었다. 기어이 강민호와 함께 장군님을 옹위해 모시고 만세의 함성높이 조국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상상의 군마인 윤실의 재봉기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물결을 건너차며 국경선으로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고있었다. 얼마나 궁지로운 길이라!

장군님께서는 나란히 달리는 윤실이와 강민호를 분명 대견하게 바라보아주신다. 실로 그이는 인자하신 어버이이시며 조국이시며 미래의 전부이시고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는 전설적위인이다.

윤실의 이 마음속기쁨을 몰래 눈치챈듯 《막내》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 꽃 못피운 원한
아느냐 그대여 너성동무들

재봉대원들은 《막내》의 노래에 공감을 느낀듯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자기의 눈물겨운 과거와 결별한 그들의 노래는 얼마나 명랑하고 씩씩한지 몰랐다. 윤실이라도 불렀다. 다른 재봉대의 초막에서도 따라불렀다.

너자들 우리 동무 다 일어나라
부르조아제도를 없애버리고
동등한 권리위해 총들을 들자

노래는 가슴뿌듯한 혁명가의 크나큰 궁지로서 온갖 피로와 어둠을 말끔히 밀어내고있었다. 그후날도 재봉대원들은 노래를 부르며 군복을 지었다.

이제는 재봉기에서 노래가 나오는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재봉대원들의 노래는 갑자기 예리한 가위예라도 잘리운듯 끊어졌다. 부엌문이 벌컥 열리더니 피창이 허양 밖으로 떨어져나갈

것처럼 쿵 닫기였다. (아이구 깜짝이야...) 누구나 놀래었다.

녀성들의 못시선이 지켜보는 문가에는 뜻밖에도 밀영병원의 군의가 들어와있었다. 표표한 인상으로 보아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았다.

《모두 정신들이 있소, 없소. 영? 밤마다 노래는 무슨 노래요. 대관절 여기서선 군복을 짓소 매미들처럼 노래만 부르오 영?》

군의의 말에 의하면 요즘 재봉대원들의 노래바람에 온 밀영이 흥분에 겨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병원 환자들은 노래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리 부상을 당하면서도 원썬을 죽치던 그 통쾌했던 전투담으로 밤을 보내고있다는것이 다.

《환자들이란 약물치료와 함께 안정이 중요한 말이요.》

그제서야 윤실이들은 《아빠사!》라는 생각이 들어 숨소리를 죽이며 조용해졌으나 군의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 매미들처럼이라는 말에 일종의 가책과 웃음을 동시에 느끼었다.

《가불간 깨달았음 됐소... 그리고 저! 거시기 재봉대책임자인 윤실동문 나하구 좀 가기로. 사령부에서 재봉대에 파견하여 보낸 동무가 만나겠단만.》

《그래요?!...》

(군복제작과 관련한 새로운 지시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윤실은 군의를 따라 초막을 나섰다.

숲속의 흰눈은 푸릿하니 밝은 달빛을 발산하여 새벽녘같이 희뵈하였다.

《거시기 그 동무가 윤실동물 그전부터 잘 안담네. 이름이 무어라더라... 생각이 안나누만. 제길 이렇게 덜통하구나야. 좌우간 군복짓는 숨씨뿐 아니라 재봉기수리두 많이 해봤단가...》

(그렇다면 정말 좋은 녀동무로구나. 재봉기들이 낡아서 모두 얼마나 애를 먹고있는가...)

《음, 마침 거시기 그 동무가 서성거리누만... 만나보오. 난 병원을 비울수 없어 가봐야겠소.》

(누굴가?!...)

녀성이 아니었다. 어깨에 총을 멘 남자였다. 배낭도 메었다.

이름모를 흥분에 가슴이 후부두 뛰여 굳어진듯 서있는 윤실의 앞으로 서걱서걱 눈을 밝으며 그 사나이가 마주 다가오고있었다. 아니 웬 일일까. 윤실은 뒤걸음을 쳤다. 그 사나이는 마주 반달음쳐오고있었다. 그러더니 몇발자국앞에서 넘어서지 못할 계선에 다달은듯 갑자기 멈춰섰다.

《윤실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소? 나요, 나라니까.》

(혹시 착각이 아닐까?)

너무도 귀에 익은 그 음성에 꿈결에서처럼 놀랜 윤실은 가슴속에 불같이 뜨거울것을 품고있으면서도 녀성의 일부러스러운 속성같은 차디찬 목

소리로 침착하게 물었다.

《미안하지만 누구세요?》

분명 이렇게 묻고있었으나 예감이 앞선 윤실의 목소리는 현악기의 금선처럼 떨리고있었다.

《이젠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누만 허! 그럴수 밖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나는 강민호요. 당신의 강민호...》

강민호는 억대우같은 사나이이지만 도저히 뒤말을 이어낼수가 없었다.

《예, 뭐라구요?!》

윤실의 이 목소리는 자기자신만이 들을만큼 너무나도 낮게 떨리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이런 큰 뜻밖의 충격을 받는법도 있는가. 호수에 무쇠덩어리가 출렁 떨어지는것 같은 그 현물적인 충격은 가슴과 뇌리를 치더니 굉장한 무게로 윤실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그리하여 곁에 선 이깁나무가지들 얼른 잡아쥐였으나 윤실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소리를 내면서 약하지 않은 이 깁나무가지가 부러져내렸다. 두 운명의 무게를 이깁나무가지마저 도저히 감당해낼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동안 나때문에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그렇지만 멀리 에돌기는 했어도 헤어질 때에 한 약속대로 변심없는 혁명의 끝은 길을 따라 이렇게 장군님의 품에서 우리 다시 만나질 않았소. 그이께서 삼포밀영에 통신원을 보내주시여 교하에서 적들의 포위에 들었던 2, 3련대를 백두산근거지로 불러주신덕분에 나도 따라올수 있었소.》

그는 부상병들과 환자들을 데리고 오느라 몇달 지체되었다는것, 그들의 건강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장군님을 뵈옵던 일을 눈물겹게 이야기하였다. 강민호는 목이 메어 잠시 뒤말을 잇지 못했지만...

두손으로 얼굴을 싸낀 윤실은 입술을 깨물며 흐느끼다못해 그만 오열을 터뜨렸다.

잠시도 그이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도 삶이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도 아닌 두사람을 다 찾아서 구원해주신 장군님의 한량없이 뜨거운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서였다. 그러기에 그의 흐느낌소리는 고요한 이 밤의 하늘땅 온 공간에 가득차고 주위의 거목들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교감하듯 엄숙하게 서있었으며 밝은 달은 그들의 상봉이 너무 눈물겨워 그만 구름속으로 들어가버린것만 같았다.

(파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는단말인가!)

윤실은 자리에서 힘들게 일어났다.

《저는, 저는... 그저 그쪽에서 잘못된줄로만 알았어요.》

《허허! 잘못되다니. 억척같은 마음속에 장군님을 모시고 이 한몸이 천만 대원의 심정으로 웅위해드리려는 소원을 품은 사람은 절대 죽어지지않소.》

추위와 굶주림속에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도 기

어이 혁명을 하기 위해 죽음과 싸워이긴 인간의 말이였다.

그 말에 윤실은 동지적인 공감을 느끼며 와락 강민호의 두손을 뜨겁게 마구잡았다. 그러나 윤실이 잡아챈 강민호의 손은 사람의것이라기보다 나무뿌리같이 차고 째깍하였다. 더군다나 기가 막히는것은 강민호의 왼쪽 손가락 두개가 없어진 것이였다. 적탄이 아니면 모진 추위가 귀중한 그것을 빼앗아갔으리라.

강민호는 절절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는 웬만한 난관도 두렵지 않도록 자신을 시험해보아 몸과 마음을 단련시킨 사람만이 웃을수 있는 그러한 웃음이었다. 그럴수록 윤실은 더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원, 그까짓게 무슨 대수요. 오른족손만 성하면 총은 얼마든지 쏠수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윤실이한테 뭘 가지고 왔는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을... 어디 한번 보여줄가.》

강민호는 이제야 생각난듯 부라부라 배낭을 풀었다. 밝은 달도 여러 자식들같은 못별을 거느린 채 구름을 헤치고 구경을 하였다.

강민호의 배낭에서는 비웃친으로 지은 자루가 나왔다. 윤실은 강민호의 거치른 숨소리며 그 상한 두손이 떨리는것을 느끼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약속을 받소.》

강민호는 그 자루속에서 보자기에 싸고 또 싼 진회색 목세루천을 꺼내었다.

윤실은 급기야 두눈이 아프도록 뜨거웠다. 가슴아픈 추억때문에 눈물 없이는 윤실이도 도저히 받을수 없는 천이었다. 그때 소박한 자기들의 마음으로 마련했던 이 진회색 목세루천이 그동안 얼마나 긴 세월과 준엄한 사선들을 넘어 여기에 까지 왔으랴싶어 윤실은 그저 북받치는 걱정을 금할수가 없었을뿐이었다.

《고마와요. 정말, 정말...》

윤실은 눈물속에 그 천을 받아안았다.

《무슨 소릴 하오.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죽음보다도 더한 모든것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을거요.》

윤실은 강민호의 그 말이 리해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색깔이 너무 고상하고 점잖아보이는 그 진회색 목세루천을 마련할 때 그들은 장군님의 옷을 지어드리자고 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가지 문제때문에 늘 걱정하지 않았던가.

그 한가지는 진세루(모직)도 아닌 목세루천인데다가 군복색갈과 달라서 어찌랴싶은것이였다. 다른 한가지는 장군님의 몸을 어찌 외람되게 치수를 재이랴싶은것이였다. 이제는 그것이 문제로 되지않았다. 자기들을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안아주시던 장군님의 품, 어깨를 두드려주시던 그이의 두팔, 감격과 흠모의 눈길로 푹푹히 우려러본 그이의 후리후리하신 키- 실로 절세의 위인

이시고 강철의 령장이신 그이의 체구를 비롯한 모든것이 아직도 생생한 감각으로서 윤실이와 강민호의 몸과 기억속에 간직되어있었던것이다. 그것이든 충분하였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기도 하였다.

이튿날, 강민호는 다시 군의의 안내를 받으며 재봉대의 초막들을 찾아다녔다. 윤실이네 초막에도 왔다.

《서로 알고들 지내오. 재봉대의 일을 돕기 위해 온 동무요. 이름은 강민호...》 눈길은 일제히 강민호한테로 쏠리었다. 까다롭고 예민한 관객들 앞에 나선 느낌이 들었으니 강민호는 재봉기수리도 해주고 뭇자무도 푼푼히 보장하겠으니 군복만 명령받은 날자전에 빨리 잘 짓자고 했다.

재봉대원들은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윤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데 저 오늘까지면 군복천감이 다 떨어집니다.》

《군수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 들어올때까지는 재봉기들도 수리하고 이미 지어놓은 군복들을 운반하기 좋게 꾸겨놓읍시다.》

군의가 뒤말을 잇기전에 먼저 선손을 쓰다싶이 말을 하는 강민호와 윤실의 몸에서는 땀이 흘렀다. 남다른 사랑의 행복을 자기들만이 누리는것 같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정작 남이 아니라 자기들부터 속이지나 여간 힘들지 않았다.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자기 동지들을 속이기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실로 못할 일이였다.

《동무들! 이 강민호가 누군지 아오?... 윤실동무의 애인이란말이요. 나더러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군의의 말에 깜짝 놀란것은 강민호와 윤실이지만 아니였다. 모든 재봉대원들이 그러하였으며 더군다나 《막내》는 너무 기뻐 윤실의 손에서 일감이 떨어지나가도록 두팔을 마구잡아흔들었다. 그러더니 아주 구면사이처럼 강민호곁으로 다가갔다. 도대체 여적 어데 가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고 했다. 곱게 흘기는 《막내》의 두눈에 반가운 눈물이 펴 어리는 순간 가슴뭉클하니 안겨오는 동지들의 뜨거운 축복을 느끼며 강민호는 그만 밖으로 나갔다.

초막안에서는 춤이나 노래보다도 더 유쾌한 녀성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군의동지! 비밀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진정어린 누군가의 말에 군의가 한마디 더 하고있었다.

《아니, 나라구 목석이겠소.》

또 와-웃음이 터졌다.

《야, 그런데 우습네, 사람이 기뻐도 운다더니 정말 윤실언니가 우네요.》

분명 《막내》의 목소리 같았다.

《너성들의 나라》같은 재봉대에 강민호가 나타나며부터 모든 초막들은 활기를 띠었다.

강민호는 더 극성스레 일손을 다그쳤다. 초막마다에서 부절히 《왕진》을 요구했던것이다. 모두가 손재봉기여서 고장나는 부분은 거의 손잡이나 밀실을 감아넣는 복이었다. 밀실과 옷실이 헝클어지고 바늘이 자주 부러지곤했다.

《제길 <천황>의 물건은 다 이렇다니까. 내 손맛을 봐야 제구실을 하니...》

강민호는 《천황》을 마치 부실한 동네집아이처럼 여기면서 재간껏 다 고쳐놓은 다음에는 손잡이를 뺄다 돌려 재봉대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곤 했다. 밖에서는 아침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친다.

저쪽 언덕반이에 있는 제일 큰 초막에서는 무슨 세간을 나는 벌통처럼 재봉대원들이 웃고 떠들며 들락날락 야단법석이었다.

각 초막들에서 모아온 군복들을 미리 꿰고있었다.

윤실은 지금 자기 초막에서 혼자 그 진회색 목세루천으로 장군님께 올릴 봄가을의투를 짓고있다.

강민호는 다감하였다. 온몸에 새힘이 솟구쳤다.

매일 기다리는 군복천은 들어오지 않았으나 동지들이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릴수도 있고 지하조직에서 총성이 없는 결사전을 벌릴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강민호는 자기가 지금 너무 무사태평한것 같았다. (내가 편안해서야 안되지...)

강민호는 재봉기수리를 끝내자마자 흰천이 들어오면 지체없이 염색할수 있도록 가독나무껍질물도 꾸짘히 울려놓았으며 그 일에 뒤이어 땀나무를 하러 떠났다.

마침 강대나무들을 만났다. 서서 죽은 가문비 강대여서 두드리면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강민호는 손바닥에 침을 뱉더니 밀간도끼를 휘둘러 한번에 한뿔씩 들입다 찍어 나무한대를 제껴 잡았다. 넘어가던 나무는 돌개바람을 안고 핑그르 돌더니 무성한 봇나무가지에 걸리었다.

(네가 아직 나를 채 몰랐구나!)

목재판에서 소년로동으로로 뼈를 굳힌 강민호라 한번 본때를 보일겸 강대 하나를 더 제껴서 봇나무가지에 얹힌 그놈한테 얹어지기를 했다. 강민호는 그것이 통쾌하여 지금 누가 자기를 부르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줄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가지가 많은 봇나무에 사선으로 든든히 걸리었던 첫번째의 강대가 두번째의것에 허리를 정통으로 맞는 순간, 강민호는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밀간도끼를 집어던지었다. 그러더니 넘어지는 두대의 나무밑으로 번개처럼 달려들어갔다. 뜻밖에도 윤실이가 바로 그 나무밑으로 들어왔던것이 다.

《윤실이!!-》

강민호는 무엇에 걸채이는줄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정없이 윤실이를 넘어뜨린채 자기 몸으로 그를 막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었다. 강대의 가지들이 강민호의 뒤통등을 연방 내리 때세졌다.

윤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억척같은 팔다리로 땅을 든든히 짚은 강민호의 얼굴에서는 몇초사이에도 땀이 비오듯했다.

다음순간에야 강민호는 박달나무그루터기에 걸채이면서 장판지를 몹시 다쳤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발에 심한 동통이 오고 바지가랭이 안으로부터 끈적끈적한것이 배어나왔다.

응급처치를 받고난 강민호는 윤실이를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다.

《내가 여기를 온 다음부터 눈물이 헤어졌군, 재봉대책임자가 그제 무슨 꼴이요. 그래 장군님의 코트는 다 지었소? 다 지었다.... 야 이거 정말 살맛이 있구만... 끝내 우리의 약속과 소원이 성취되었으니... 저 나무들이 보지 않는다면 춤이라도 추고싶구만. 좌우간 수고했소. 어디 좀 보기도 하가요. 어서!》

《...》

윤실은 가슴에 불안고 왔던 보자기를 풀더니 그 사연많은 진회색코트를 강민호에게 보여주었다.

강민호는 두눈을 습벅였다. 동만에서 윤실이가 헤어질 때 미처 찾아가지지 못했던 그 세계의 회색단추가 코트에서 해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있었다.

밀영쪽에서는 까닭모를 만세소리가 들려온다.

윤실은 점점 더 흐느껴울었다. 그는 장군님께 올릴 옷을 다 짓자 기쁜 김에 먼저 보이고싶어서 초막을 막 나서는데 군복천을 잔뜩 질머진 동지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는것이였다.

《무슨 소식이요. 응?》

윤실은 울음을 삼켜가며 겨우 말을 외었다.

《장군님께서 며칠전 서강회의를 여시고... 조국으로 진군할데 대한 력사적인 방침을 제시하셨대요.》

《아니 뭐 뭐라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던 강민호는 몸의 균형을 잃으며 주저앉았다. 한쪽다리가 이미 자기의것이 아니었다. 윤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지만 강민호의 두눈은 안타까움에 이글이글 타고있었다.

윤실은 자기자신이 민망스러워 가슴을 쥐여뜯고싶었다. 동만에서도 강민호는 자기때문에 화를 입은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 자기때문에 펄펄뛰던 사람이 다리를 상한것 같아서였다.

《윤실이! 내 상처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 마오. 우리의 소원도 성취되고 장군님을 따라 조국땅을 밟아볼 날이 앞에 있는데 이쥘한거야... 그리구 병원두 군의도 가까이 있겠다 한 사날 걸리면 다 나을거요. 이미 내 몸에는 <천황>놈이 쏜 흉탄

이 세계나 박혀 깔깃거리며 말쑥하게 굴긴 하지만 서두 그건 되려 나에게 적개심이나 더 불러일으킬뿐이지 전투나 행군에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

강민호의 말에 눈자위를 훔쳤으나 윤실의 가슴은 더 쓰리었다.

간도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부모형제를 다 잃고 혼자 살아남은 강민호인 까닭에 윤실은 그가 이번에 꼭 조국땅을 밟아보았으면 싶어했다. 간절하던 그 생각이 한순간의 자기 불찰로 뒤집혀진것같은 윤실의 가슴속에는 또 하나의 슬픔이 못박혀있어 참기 어려운 심리적인 시달림을 받고있었다.

《아니, 왜 그러고 쏘소. 또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라도 생긴게 아니요. 얼굴색이 말이 아니구만.》

자기 상처의 아픔을 망각한 강민호의 이 말에서 뜨거운 애정을 느낀 윤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로했다.

《오늘 들어온 동지들의 말에 의하면 저! ... 직후에서 공작하던...》

여기까지 말한 윤실은 목이 꼭 메여 뒤말을 잊지 못하더니 고개를 돌리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였다.

《...<막내>의 오빠가, 오빠가... 이번의 군복천을 해결하다가 희생되였대요.》

자기의 그 모든 시련은 의지로, 랑만으로 이겨온 윤실이건만 사랑하는 《막내》의 슬픔 역시 참 아내기 어려웠던것이다.

강민호는 함마같은 주먹으로 지구라도 꺾듯이 땅을 내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냐말이요.》

강민호의 호랑이울음같은 소리에 모든 산들이 메아리로 도로 그에게 반문하고있었다. 두사람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시여 밤마다 숲속을 거니신대요... 게다가 국내인민들은 놈들의 총칼에 매일 수없이 쓰리진대요.》

《아, 조국으로 진군하면 이 두팔에다 기관총을 잡고 마음껏 쏘보구싶구만.》

강민호는 담배대신 가랑이를 종이에 말고있었다. 두루 속이 쿵쿵한 모양이었다.

윤실은 오래전부터 건사해두었던 담배 한박을 품속에서 꺼내어 민호에게 주었다. 알박한 쇠통에다 넣은 가치담배였다.

강민호는 뜻이 깊은 담배를 천천히 음미하듯 피웠다. 그의 두눈에는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다. 생각할수록 《막내》의 일이 가슴아픈지.

《윤실은 그만 가보요. <막내>를 더 따듯이 대해주요... 그리고 천도 염색하고.》

강민호는 밀영병원까지 부축하며 같이 가겠다는 윤실을 끝내 《막내》한테로 떠밀어보냈다.

윤실은 갔다. 강민호의 부상은 온 밀영에 알려졌다. 강민호의 상처는 치료하기 말쑥 장판지인

데다가 이외에도 크게 굵기까지 했다.

《막내》는 윤실이보다 더 자주 병원에 들리곤 하였다.

《윤실언니! 강민호동지는 수술후에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또 오늘 다시 수술을 한대요. 이 일은 저한테 맡기고 오늘은 언니가 좀 가보세요.》

《막내》의 말은 윤실의 일손이 굳어지게 했다. 의약품도 수술설비도 원만하지 못한 밀영병원에서 맑은 정신으로 두번이나 수술을 받고있을 강민호의 모습이 윤실에게는 너무도 잘 보이었다.

윤실은 저녁무렵에 혼자서 강민호를 찾아갔다.

《아, 왔소?...》

강민호는 몰라보게 수척한 얼굴로도 웃고있었다.

윤실은 가슴속에 가득한 위로의 말을 오직 눈빛으로만 전하고있을뿐이었다. 강민호는 고장난 재봉기가 없느냐고 물었다.

《없어요. 웬만한건 우리끼리 얼마든지 하기때문에 <기술자>의 시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마음을 꼭 놓고 치료를 받아야 빨리...》

《그러지않아도 이 강민호의 팔자가 늘어졌소. 매끼 노루고기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를 먹소. 그건 그렇구 수술이라는게 당해보니 바느질 문세와 비슷하더구만. 칼로 찌기도 하고 가위로 <재단>하기도 하고 바느질로 잡아매기도 하고... 그저 재봉기보다는 아직 수공업적인것이 결함이거든.》

강민호의 말에 같은 호실에 있는 환자들이 유쾌하게 웃었다. 윤실이기도 웃었다.

다만 군의만이 강민호의 어깨를 쥐여박았다. 신성한 의학을 그렇게 우롱할 법이 어데 있느냐더니 먼 미래에 가서도 외과학령역에서는 손바느질이 아주 없어지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윤실의 이해 봄은 이렇게 지나가고 어느덧 이른 여름이 다가왔다.

마침내 재봉대원들은 물론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한 동지들까지 사령부의 부름을 받고 후방밀영을 떠나는 날이 왔다.

그사이에 수술을 세번씩이나 받은 강민호지만 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약까지 써서 건강이 한결 좋아진터라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떠나는 사람들을 웃음으로 바래여주었다.

윤실은 제일 마감으로 그를 만났다. 윤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인간이 자기 감정을 이겨낸다는것도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다. 일제를 죽이는 처절한 전장에서와 맡겨진 혁명임무앞에서는 남자못지않게 담이 크던 윤실이가 지금은 강민호앞에서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저!... 부탁할것이 없어요? 아무거나 있으면 부탁하세요.》

강민호는 결으로 다가왔다. 긴숨을 내쉬었다.

《하나의 우리의 약속을 희망대로 올렸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는거요. 그리구 다른 하나는 장군

님께서 조국땅에 첫자욱을 찍으신 바로 그 흙을…》

강민호는 조국의 푸른 하늘과 그것을 제나라름으로 떠받들고있는듯한 그 많은 산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잠시 명상에 잠겨 실눈을 짓던 강민호는 윤실이더러 군수관과 잘 의논하라고 했다. 군수관은 동만에서 자기를 구출해준 사람이라고 윤실이한테 알려주었다.

《아니, 그래요?…》

윤실이로서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자! 이제 떠나보요.》

《떠나겠어요. 그러나 저는 혼자서 떠나는게 아니에요.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같이…》

윤실의 목소리는 떨리었다.(내가 왜 이럴까!)…

《그래 윤실은 조국으로 혼자 간다고 생각했소?

장군님곁에서 한시도 떨어질수 없는것이 바로 나란말이요. 지리적으로는 혹시 내가 천리나 만리밖에 있다 해도…》

강민호는 윤실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유쾌한 얼굴로.

건투와 성공을 바라는 그에게 손을 맡기는 순간 윤실은 마치 작별의 향구나 정거장에서 기적소리를 듣는듯한 충격을 느끼었다.

윤실은 돌아섰다. 군모밑으로 중발머리를 날리며 달려갔다.

저만큼 앞에서 윤실이를 기다리던 《막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부랴부랴 들쭉을 꺾어든채 자기가 건사했던 그 담배갑을 꺼내들고 강민호한테로 갔다 왔다.

《언니! 강민호동지가 왜 오늘따라 우리 오빠처럼 생각될가요.》

《그래?!… 그런데 담배는 왜 주었나.》

《인젠 나한테 그 담배가 필요없지요 뭐…》

《…》

윤실은 가슴이 저려오는 육친의 정으로 《막내》를 으스스리게 그러안았다.

《막내》는 울면서 말하였다.

《우리 오빠의 소식은 내가 밖에 나간 사이에 언니가 채봉대원들앞에서 이야기하는것을 엿듣구 알았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없이 급기야 두눈을 습벅이던 윤실은 《막내》가 놀랍게도 자랐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손을 꼭 잡고 부지런히 대오를 따라갔다.

…기다리고기다리던 그 력사적인 조국진군을 바로 이를 앞둔날이었다. 윤실은 망설이고 또 망설이던 끝에 군수관을 만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였다.

군수관은 깜짝 놀라왔다. 그의 난처해하는 표정이 윤실이의 가슴을 얼마나 조여주는지 몰랐다.

《동무들의 소행은 실로 탄복할만하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신이 없구만… 동무들도 아는것처럼 원래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을 우리와 조금도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기때문에 대원들보다 다른 대접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오. 대원들이 있기때문에 사령관도 있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있기때문에 조선도 혁명도 굳건히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늘 당부하신타말이요. 그래서 그이를 보좌해드리는 우리한테도 가끔 고충이 없지 않소. 게다가 이 코트는 군복색갈과도 다르고…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무들 쪽에서 리해하여주기를 바라오.》

윤실은 고개를 들수 없었다. 소박한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제야 외람되게 느껴졌던것이다. 하늘이 낸 전설적인 위인이시고 온 민족이 자기의 생사운명을 맡긴분께 과연 목세루코트가 무엇이란말인가.

《물론 섭섭하겠지만 재삼 부탁을 하니 잘 리해해주어야겠소… 사실대로 말하면 국내진출의 의미가 큰것만큼 우리는 이미 최상의 재질로 된 천으로 그이의 옷을 마련하였소.》

군수관은 갔다.

윤실은 자책으로 몸부림을 쳤다. 생각할수록 자기들의 충성과 보답이 너무도 소박했던것이 놀라왔고 그렇게밖에 받아들여모실수 없었던 자신들이 한갓 철부지로만 느껴졌다.

윤실은 그날밤 자책에 겨워 꿈에서도 울고 깨어서도 흐느꼈다.

×

국내진출을 위한 원정대는 사령부앞에 정렬하였다. 모든 대원들이 출발시각을 앞두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을 때 윤실이만은 진대나무에 걸터앉아 한쯤 두쯤 바느질을 하듯이 재단을 하다가 남은 꿩다리연필로 또박또박 편지를 쓰고있었다.

민호동무 보세요.

방금 군수관동지가 찾아왔어요. 장군님께서 우리가 지어올린 코트를 기쁘게 받으셨대요. 몸에 꼭 맞도록 지은 그 코트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고 진회색 목세루친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서 탐탁히 짚,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훌륭한 천이라시며 기쁘신 마음으로 입으시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글썽 우리가 지어올린 옷이 마음뿐이지 무슨 그리 훌륭한것이겠어요. 그이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정치적인음과 사랑은 온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것인데.

그러나 민호동무!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다 보답하겠다고 자부할 사람은 아마 영원히 없을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량심껏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크던작던 가장 값높은 충성으로, 귀중한 보답으로 받아주시는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넓으나 넓은 도량을 지니신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것을 민호동무한테 꼭

전하고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안녕히 계세요.

동무의 김윤실로부터

윤실의 편지는 장군님의 전사된 행복과 긍지에 겨운 눈물로 얼룩졌다.

혁명을 위하여 총을 잡으시기전에 인민대중의 심장과 연결된 두손을 먼저 굳게 잡아주신 장군님의 그 위대한 믿음에 한생을 다 바쳐 보답하는 것을 떠나서야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과연 무슨 참된 행복이 있으리란말인가. 장군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이 최상의 영광이라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것이 전사의 가장 빛나는 삶일것이다.

민호한테 보낼 편지를 끝낸 윤실이가 정렬한 원정대의 자기자리에로 돌아왔을 때 사령부의 초막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체구에 바로 그 진회색 봄가을외투를 입으신 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

만세의 환호가 터졌다. 우렁찬 그 환호성에 조용하던 숲도 설레이고 모든 산봉우리들이 몇배로 우렁찬 메아리로써 원정대원들의 격정을 보태주었다.

국내진출과 관련한 연설을 끝내신 장군님께서서는 연신 눈굽을 훔치는 윤실의 곁으로 다가오시여 거듭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더니 신중한 표정으로 강민호의 건강을 자세히 물으시였다.

《장군님!》

윤실은 더 말씀을 올리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행복에 겨운 울음을 터뜨릴가봐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이께 올리는 전사의 대답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여야 한다고 생각한 윤실이라 눈빛과 얼굴 표정이 상반된채로 정중히 아뢰였다.

《장군님! 예상외로 수술경과가 좋아서 자기발로 밀영병원 트락에까지 걸어나와 우리를 배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장군님께서서는 강민호가 생각나시는듯 환히 웃으시면서도 윤실의 어깨를, 그다음에는 《막내》의 어깨를 어루만져주시였다.

원정대는 밀영을 떠났다.

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태양은 창공높이 솟아올라 찬란한 빛발을 뿌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끝간데 없이 아득히 뻗어나간 원시림의 수해너머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윤실은 옷깃을 여미며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고계실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오직 자신의 한몸에 지니신 장군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을 안겨주시기 위해 강도 일제침략자들의 아성을 찾아력사적인 국내진출의 길에 나서신 이 력사적인 순간에도 강민호와 《막내》의 오빠에 대하여 생각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윤실은 걱정의 파도가 밀려오며 심장의 세찬 박동을 의식하였다.

윤실이와 《막내》는 그이의 위대한 영상을 후대들을 위한 전설로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러르고 또 우러러 바라보고있었다.

가사

《노래를 부르지 말것》

장병철

노래소리 우렁차게 발걸음 맞춰

병사들이 마을앞을 지나가는데

조요히 울리는 지휘관구령

《중대! 노래를 부르지 말것》

아, 싸움의 그날에도 멈추지 않던

그 노래 어이하여 멈추었을까

사랑넘친 탁아소 요람속에서

축복받은 아이들 잠들었다고

전호속 명령처럼 울리는 구령

《중대! 노래를 부르지 말것》

아 행복의 고운 꿈 깨지를 말아

병사들 너를 지켜 노래를 멈춘다

이 땅에 꽃피나는 미래를 위해

병사들 노래소리 멈추어도

락원을 지켜가는 보위의 노래

가슴속에 더 높이 부르며 가네

아, 행복의 꿈을 지켜 미래를 지켜

병사들은 포화속도 헤쳐가리라

악 속

전흥식

나는 지금 고향의 밤거리를 거닐고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찾아본 고향땅이다. 6월의 밤하늘에서는 잘 여문 별들이 소리없이 반짝이고 처절쌩! 기슭을 치며 흘러가는 가림천의 물소리도 한결 조심스러워진듯하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길가의 가로등도 더욱 풍만한 표정으로 끝없이 고요를 지켜보고있다. 고향의 밤거리에도 안식이 펼쳐진것이다. 다만 어디선가 은은히 들려오는 너가수의 서정적인 노래소리가 밤의 고요를 부드럽게 휘저어놓을뿐이다.

민들레꽃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

어쩌면 모처럼 찾아온 고향손님인 나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소리인듯만싶다. 나는 걷고 또 걷는다. 얼마나 그리웁던 고향땅인가. 오래동안의 바다생활을 거쳐 수산부문 일군으로 된 나는 옛 추억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땅에 별로 자주 와볼수 없었다. 그러다가 보천보전투승리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려고 불시에 온것이다. 와놓고보니 이번에도 역시 감회가 새롭기만하다.

나는 어느덧 가림천가의 소공원에 이르렀다. 가로등의 불빛속에서 이팝, 분비, 가문비 그리고 붓나무와 황철같은 고산수목들이 기쁨을 칠한것처럼 번쩍거렸다.

나는 긴의자에 잠시 걸터앉았다. 그 옛날의 장마당자리에 앉아있노라니 자연 생각이 많아진다. 바로 여기서 나는 버림받은 교아의 설움을 한껏 겪어보았으며 인생의 새봄을 약속받았었다. 추억의 쪽배는 벌써 그날을 거슬러달리고있었다.

X

...그날도 나는 온몸에 람루를 걸치고 맨발로 장마당을 찾아갔다.

곤장덕기슭을 안고도는 가림천가의 장마당은 아침부터 범람하는 홍수마냥 사람들로 붐비었다. 싸구려소리, 물건 흥정하는 소리, 누군가의 뺨을 치는 일본순사의 호통소리... 땀먼지와 악취와 갖가지 소음으로 정신을 차릴수 없는 이 혼잡속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갈 마련을 보아야 했다. 나는 래일에 대한 걱정이란 몰랐다. 그저 오늘을 굶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그것도 나 자신보다는 나 어린 누이동생 순이를 위해서였다.

얼마전에 나는 홀어머니마저 여의었다. 그래서 열한살밖에 안되는 내가 자신만이 아닌 어린 순이까지 돌봐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는 순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처량한 목소리로 동냥질도 다니였고 장마당의 지짐장사나 송편파는 로파의 음식그릇에다 손을 대는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늘 매를 맞았다. 어디서나 구박과 멸시뿐이었다.

오늘은 처음부터 일이 시원치 못하였다. 내가 나타나자 장마당의 지짐장사 아낙네는 멀리서부터 물러가라고 아우성을 쳤고 송편 파는 로파는 슬그머니 회초리부터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경계하는 눈길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아무 항변도 없이 발길을 돌리었다. 인제는 그런것쯤은 별로 타내지 않았다. 나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두손에 쳐들고 호들갑을 떠는 일본 장사치를 멀찌기 피하여 장마당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거기에는 귀보리나 농마와 언감자가루가 아니면 찌리바구리며 구름노전파위의 초물제품을 등집으로 지고와서는 돈있이나 쥐여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좁게 자리잡고있었다.

문득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 눈에는 한 젊은 녀인이 귀밀쌀을 팔고있는것이 비쳐든것이다. 귀밀쌀! 낱것채로 먹어도 고소한 맛을 주는 귀밀쌀! 그것은 어느새 내 마음을 짱그리 사로잡았다. 나는 쌀자루에서 눈을 땔수 없었다.

가만보니 쌀을 파는 젊은 녀인은 장마당에 처음 나온것 같았다. 흰적삼에 검정치마를 수수하게 반쳐입고 머리수건을 폭 내리쓴 그 녀자는 누가 쌀값을 묻기라도 하면 가우름한 얼굴을 활짝 붉히며 입속말처럼 겨우 무어라고 대답하곤하였다. 대체로는 남들이 부르는대로 군말없이 값을 쳐주었으며 노닥노닥 기운 옷을 입은 할머니한테는 덤으로 한보시기나 더 떠담아주기도 했다.

《뉘집 새애긴지 정말 맘이 곱구만.》

《장사질을 그렇게 해선 손해뿐이라우.》

쌀을 사가는 사람마다 다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러면 녀인은 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확실히 마음이 어진 녀인이었다.

(벌어볼가? 덮칠가?)

나는 오래도록 망설이였다. 어느쪽도 선뜻 결심을 내릴수 없었다. 벌자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덮치자니 그럴 틈이 없었다.

자루속의 쌀은 자꾸 줄어들었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나는 저도 모르게 한발두

발 쌀자루 가까이로 다가갔다. 낫가락모양의 기운자리가 유묘한 자루였다.

마침 그때 곁에서 와작 떠드는 소리가 났다. 물건값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다름질이었다. 너인의 눈길도 그쪽으로 쏠리었다.

(이때다!)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보자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벌써 나의 두손은 자루속의 귀밀쌀을 움키고있었다. 귀밀쌀의 자르르한 촉감이 전류처럼 온몸으로 흘러드는 순간 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뛴다뛰었다. 자지러진 비명소리, 욕지거리, 무지막지한 매질을 미리부터 체험하며... 허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됐구나!)

나는 여라문 발자국을 가서야 멈춰섰다. 놀란 참새마냥 가슴은 터질듯 높뛰었지만 성공의 쾌감은 그보다 더 컸다. 마수거리가 멎어버진셈이다. 아무렴, 내가 누구라구. 나는 자못 흡족한 기분으로 너인을 돌아다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쌀임자녀인이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있었기때문이다. 욕설도 없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쌀을 빼앗자고 뒤쫓아올 기색도 아니었다. 그저 잠자코 바라볼뿐이었다. 호수처럼 깊어보이는 그 눈에는 나를 동정하는 빛이 어린듯하였다. 아니 무엇인가 크나큰 슬픔을 담은듯한 눈길이었다.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나는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눈에서 동정이나 슬픔을 볼수 있다는것을 상상조차 못하였다.

나는 슬며시 고개를 돌리었다. 어쩐지 아무런 나무람도 없이 바라보는 너인을 마주 보기가 짐작했다. 나는 너인의 시선을 등뒤로 느끼며 사람들의 물결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별난데?)

그러나 나는 인차 그 너인을 잊어버렸다. 또 새로운 벌이를 해야 하였다. 호주머니에다 쓸어넣은 쌀로 하루를 굶배버릴수는 없었다. 나는 먹이를 찾는 새매처럼 눈을 밝히며 장마당안을 누비기 시작했다.

문득 누구인지 내 어깨를 가볍게 잡아흔들었다.

《애야!》

나는 본능처럼 부르르 떨며 목을 움츠리었다.

(이크! 그 녀자다!)

귀밀쌀임자라는것을 직감한 나는 무작정 내뿔려했다.

《애야, 애!...》

나를 놓쳐버린 너인이 다급히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 ?》

나는 또한번 멍청해졌다. 그 너인이 쌀자루를

쳐들어보이며 오라고 하기때문이었다. 내 머리속에서는 돌개바람이 부는듯하였다. 너인의 어진 인품과 서너되박은 잘될상실은 쌀자루가 못견디게 마음을 끌어당겼으나 무언지 모를 공포가 나를 불안케 했다. 나는 이미 까닭없는 선심의 뒤에는 무서운 불행이 숨어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애야, 이리 오라는데...》

너인은 안타까이 말했다. 물기 어린듯한 그의 눈에는 간절한 빛이 떠돌았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너인의 손길이 또다시 와당자 나는 불에 덴것처럼 화닥닥 물러나며 사람들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그때 나는 마주오는 아끼야마형사의 동가슴을 들이받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거지새끼가...》

하마트면 뒤로 벌렁 나자빠질번한 아끼야마형사놈은 왁살스레 내 멱살을 거머쥐었다. 나는 단박 넋을 잃어버렸다. 사람을 잘 치기로 소문난 아끼야마라면 우리 거지애들한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두려운 존재였다. 벌써 내 눈앞에서는 별찌같은것들이 번쩍번쩍 부서졌다. 주먹질, 발길질, 또 발길질... 나는 죽는줄로만 알았다.

바로 그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누구인지 나를 감싸주듯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다름아닌 그 너인이었다.

《넌 뭐야?》

뜻하지 않은 저지를 당한 아끼야마놈은 한동안 어이없어하는 상관이더니 꺾 소리를 질렀다.

《뭔가말이다.》

너인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아끼야마놈을 곧추 쏘아볼뿐이었다.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는 의젓하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술한 사람들이 아연해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건 어디서 건방지게...》

자존심이 상한 아끼야마놈이 길다란 말상을 일그러뜨리며 주먹을 쳐들었다.

하지만 너인은 그놈을 무시해버리듯 나한테로 허리를 굽히었다. 그리고는 서두르지도 않고 손수건으로 내 코피를 막아주었다.

《어서 일어서라.》

너인은 내 손목을 잡더니 놀라움에 찬 사람들의 눈길을 태연히 받으며 강가로 걸어갔다.

가림천의 물은 맑았다. 노란 모래와 하얀 조약돌이 알른알른 들여다보이는 물우에서는 해빛이 반짝이며 뛰놀았다.

너인은 나를 이끌어 물속에다 세워놓았다. 그리고는 부어오른 내 코등이며 미간을 조심스레 쓸어만지었다.

《악귀같은놈! 너한테 무슨 죄가 있다구 이 지경으로 만든단말이나? 무엇을 잘못했다구.》

이렇게 말하는 너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었다. 유순하게 빛나던 두눈도 무섭게 이글거렸다.

너인은 내 얼굴을 조심조심 씻어주었다. 머리로 감겨주고 손발의 때도 말끔히 벗겨주었다.

얼마후 우리는 물가로 나왔다. 물가에는 파아란 잔디풀이 웅단처럼 보드랍게 깔려있었다. 잔디풀우에는 노란 민들레꽃이 다문다문 박혀있었다.

너인은 민들레꽃을 하나 꺾어들고는 탐스럽게 향기를 맡으며 살뜰히 물었다.

《이름이 뭐지?》

《차돌이예요.》

《차돌이? 이름이 참 좋구나. 그래 집은 어디냐?》

《저기...》

나는 눈을 쳐들어 멀리 려수덕기슭을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외딴 오두막이 여기서도 잘 보이였다. 금시 한쪽으로 실그려질듯싶은 오두막우에는 쭉대들이 파랗게 자라났다. 나는 눈길을 떨어뜨리고말았다. 그것이 차마 우리 집이라고 말할수 없었다.

《집엔 누가 계시니?》

《순이가 있어요. 동생이...》

《부모님들은?...》

《없어요.》

《뭐라고?》

너인의 손에서 꽃송이가 떨어졌다.

《그럼 네가 동생까지 먹여살린단말이나?》

너인의 놀란 소리에 나는 왈칵 설음을 쏟아놓았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나도 알수 없었다.

《그만해라. 내가 너의 아픈데를 다쳐놓았구나.》

너인은 따뜻한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어려있었다.

《나한테두 너만한 남동생이 하나 남아있었다. 지금은 어디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지... 난 헤어질 때 그 애한테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했구나... 다 나라가 없는탓이지, 왜놈들때문에...》

너인은 잠시 눈물만 삼키고있었다.

가림천은 쉬임없이 흘러갔다. 물소리도 이상하게 구슬프게 들리었다.

《하지만 차돌아, 이 세상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너희들은 저런 오두막이 아니라 크구 밝은 집에서 잘살게 되구...》

물우에서 뛰노는 해빛을 바라보는 너인의 두눈에는 다감한 미소가 떠올랐다.

《큰집이지, 거기선 낮에두 밤에두 늘 해님이 높이 떠있단다. 어디를 가나 꽃들이 가득가득 피구, 고운 새들이 늘 와서 우짖구... 거기엔 왜놈들이 없단다. 지주놈두 순사놈들두 없구. 사람들

은 누구나 다 잘 산단다. 정직하게, 의 좋게... 아이들은 모두 새옷을 입구 학교로 가구 정말 그 집에서는 배고픔두 눈물두 모르구 오직 기쁨과 웃음만 차넘친단다.》

나는 꿈을 꾸는것 같았다. 세상에 과연 그런 집이 있을가,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가.

《너두 그런 집에서 살구싶지?》

《...》

《왜 말이 없니?》

나는 그런 집에서 살고싶다고 말하고싶었다. 하지만 얼굴을 쳐들수 없었다. 너인이 고맙게 굴수록 귀밑살을 덮친 일이 마음에 켜기고 창피스러웠다. 나는 빨리 이자리를 모면할 생각뿐이였다.

《두고보렴. 그런 집에서 꼭 살게 될테니까. 참, 넌 배고프겠구나.》

너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간만 기다려라.》

너인은 다시 장마당쪽으로 걸어갔다. 먹을것을 사오려는것 같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냥 앉아있다가 친절한 너인의 동정을 받아안고싶었으나 지은 죄가 있는만치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와 함께 무언가 귀중한것을 잃어버린것 같은 허전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렇듯 고마운 너인앞에서 얼마나 비렬한짓을 했는가를 생각하니 자신을 용서할수 없었다. 그래서 호주머니의 쌀을 죄다 쏟아버렸다. 그렇지만 이미 깨어진 사발이라 내 마음은 조금도 진정되지를 않았다. 나는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다.

저녁무렵에야 나는 침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순이는 저녁해빛이 비치는 문앞에서 혼자 소꿉장난을 하고있었다. 사금파리 몇개를 놓고 《밥상》을 차려놓으며 노는것이 일곱살 먹은 순이의 유일한 일과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없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

나는 눈이 등그래졌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순이는 한번도 저렇게 노래를 불러본 일이 없었다. 노래와 웃음을 아주 잃어버린듯싶었던 순이였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순이의 얼굴은 얼마나 밝은가. 놀라운 일은 그뿐이 아니였다. 목은 새둥지같던 머리로 말쑥하게 감아빚었다. 외래로 땅아늘인 머리에는 민들레꽃도 한송이 꽃혀있었다.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었다.

《오빠!》

순이가 나를 보더니 반색하여 맞았다.

《오빠, 언니가 왔었어.》

《언니?》

《응. 와서 밥이랑 해주구 갔어.》

《뛰어? ...》

나는 성급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문지방앞에 못박혀버렸다. 구수한 밥냄새가 풍기는 부뚜막은 진흙으로 알뜰히 매질해놓았고 그릇가지들도 깨끗이 닦아 쟁겨놓았다. 방안도 몰라보게 거두어졌다. 마치 남의 집으로 들어온것만 같았다.

《이것봐!》

어느새 가마목에 난딱 올라앉은 순이가 솔뚜껑을 열어보였다. 솔안에는 귀밀밥을 무독히 담은 밥그릇 두개가 이마를 마주대고있었다.

《누가 왔었다고?》

《언니래. 정말이야. 그렇게 부르랬어.》

나는 순이만 뻔히 바라보았다. 우리한테는 일가친척이란 없었다. 어머니가 늘 그것을 한탄하곤 했었다. 난데없는 누나란 대체 누구일가? 혹시 누가 친척집을 헛갈리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것봐! 쌀이야.》

순이가 이번에는 쌀자루를 쳐들었다.

《이걸 다 주구 갔어.》

《아니 이게?...》

나는 와락 쌀자루를 뺏어들었다. 낫가락모양의 기운 자리가 눈에 띄었던것이다. 자루속의 쌀도 바로 그 귀밀쌀이다.

《아, 그러면?...》

나는 숨이 차올랐다. 그 녀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호수처럼 그윽히 빛나던 다정한 눈동자, 미소를 머금은 가름한 얼굴, 어머니와도 같은 살뜰한 그 소길...

순이가 신이 나서 사유를 설명했다.

《언니가 와서 네가 순인가구 했어. 그담엔 날 안구 막 볼을 비비며 울었어. 아빠랑 엄마랑 없이 어떻게 살았느냐구 하면서...》

《그래서?...》

《그담엔 엿두 주구 밥이랑 하구... 참 오빠, 언니가 우릴 데려간됐어.》

《데려간다고?》

《응. 이제 다음번 장날까지만 더 기다리랬어.》

내 머리속에는 녀인이 말해주던 그 신비스러운 집이 생각났다. 낮에도 밤에도 해님이 늘 떠있는 평장한 집이...

《그게 정말이야?》

《정말 아니문!》

나는 또다시 그 녀인을 그려보았다. 지금껏 미처 모르고있던 친적인지도 모른다. 혹은 그전날 어머니와 각별하게 지내던 녀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보살펴주자는것일수도 있었다. 어쨌든 의지할데가 생겨난 일이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치나 기뻐다. 정말 그런 집에서 살게 된다면...

그날밤 나는 잠을 잘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옛말속에 나오는 룡궁같은 집에서 살게 될 광경이 자꾸만 현실처럼 펼쳐졌다. 인제는 정말 살고난 셈이다. 나는 온 세상을 받아안았다 해도 이처럼 기쁠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랴!)

나는 마지막숨을 거두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실로 가슴이 저리었다. 문풍지가 청송맞게 붕붕거리던 겨울밤, 가물거리는 고फल밀에서 차디찬 손으로 내 손목을 잡은채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러했었다.

《네가 조금만 철이 들었어두!...》

어머니는 철부지 우리 오누이를 두고 가는것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눈을 감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그 어머니도 인제는 무덤속에서 눈을 감을것이다.

허나 나에게는 기쁨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정작 그 녀인을 만날 일을 생각하니 실로 기막혔다. 귀밀쌀을 두번씩이나 훔친 내가 무슨 낯으로 그를 만나랴싶었다. 어떠한 구실로써도 나는 그 녀인한테서 질이 나쁜 아이라는 인상만은 지워버릴수 없는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앞이 막막했다.

(어떻게 할가 어떻게...)

이튿날도 다음날도 나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약속된 날자가 가까와질수록 불안은 더해만 갔다.

나는 울고라도 싶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순이야, 차비를 해라.》

《마중가나?》

《빨리!》

나는 짜증을 냈다. 그리고는 먼저 집을 나섰다. 아직은 새벽이었다. 마을은 뽕얀 비안개속에 잠겨있었다.

나는 뒤산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오빠! 왜 산으로 가나?》

순이가 의혹을 담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마운 녀인을 기다리지 않고 이슬찬 숲속으로 피해가는 까닭을 말할수 없었다. 나는 녀인을 만나는것을 될수록 미루고싶었다.

어머니의 묘지가 나타났다.

《오늘은 여기 있어야 해!》

《언니가 여기루 오나?》

《응, 여기루 온됐어.》

나는 순이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렇지만 내쳐 우겨낼수밖에 없었다.

《내가 올 때까지 까딱 말구 기다려.》

나는 내키는대로 숲속으로 걸어갔다. 가만 앉아서는 도저히 마음을 다잡아낼것 같지 못하였다.

(하필 그걸 덮칠건 뭐람?)

나는 또 자신을 저주했다. 수치스러운 그 일만 아니었다면 오늘은 얼마나 기쁜날이라. 차거운 이슬방울이 소낙비처럼 내 머리위에 쏟아져내렸다. 허나 나는 거기에다 마음을 쓰지 못하였다. 걷다가는 멍하니 서고 그랬다가는 다시 걷고...

한낮무렵이 지나서야 나는 피륙 묘지근처에 두 고온 순이를 생각했다. 나는 부랴부랴 숲속을 헤쳐나갔다.

순이는 울고있었다.

《어 엄마야-》

순이는 크게 울지를 못한다. 내가 욕할가봐 울어도 늘 이렇게 가만가만 우는것이다. 오늘은 그 정상이 어찌나 측은한지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 갈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는 이 을씨년스러운 하늘밑에서 떨고있는 순이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싶지 않았다. 인제는 너인을 만나게 되면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바라는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나는 순이를 업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너인이 찾아온 흔적이 없었다. 그때문인지 집안은 별로 쓸쓸해보였다.

순이도 몹시 심란해하는 눈치였다.

《인제 올거야. 몹시 춥니?》

《아니.》

순이는 이발을 덜덜 쫓으면서도 아니라고 도리를 지었다.

《큰저고리를 쓰구 누워라. 내 불을 땔게.》

나는 순이에게 너슬너슬 해어진 솜옷을 씌워준 다음 부엌아궁이에다 불을 지피었다.

《오빠, 나 찬물을...》

《뭐?...》

나는 순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가마목에 웅크리고앉은 순이는 그냥 와들와들 떨고있었다.

《너 어디 아프니?》

《아니, 찬물을...》

나는 바가지에다 찬물을 떠주었다.

순이는 걸탐스럽게 바가지의 찬물을 다 마시었다. 그다음 또다시 큰저고리를 뒤집어쓰고 누웠다.

나는 이상해서 그 애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순이의 이마는 불덩어리같았다.

(감기에 걸렸구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마 차고 눅눅한 숲속에서 내쳐 떨다가 감기에 걸린 모양이었다. 의지

할데 없는 고아인 우리한테는 무엇보다 무서운것이 병이다.

《순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 가서 누나를 데려올게.》

순이는 눈을 떴다. 눈물을 가득 담은 두눈이 간절하게 나를 쳐다본다.

《꼭 데려오마. 》

나는 주먹을 부르쥐고 장마당으로 달려갔다. 나도 그 이상은 더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장마당안을 돌아쳤다. 하지만 꼭 와있으리라 생각했던 너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안왔구나!)

나는 마침내 단념하고말았다. 서글프게 돌아서자니 발걸음을 온전히 떼 옮기기도 힘들었다. 거리에서 뻥히 올라다보이는 오두막도 무척 멀어보였다. 그만치 몸도 지치고 마음도 녹초가 되어버린것이다. 생각같아서는 아무데나 쓰러져서 폭잠으면싶었다. 하지만 앓는 몸으로 눈이 까매서 기다리고있을 순이때문에 그럴수는 없었다.

(순이를 어떻게 한다?)

내가 무거운 생각으로 한적한 《소방회관》 뒤 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옆골목에서 바구니를 낀 너자가 불쑥 나타났다. 물색 고온 비단옷차림에 하얀 고무신을 신은 그 너자는 재빨리 인적없는 거리를 살펴보더니 건너편 골목길로 총총히 걸어갔다.

(아니?...)

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비록 눈감박할 사이에 띄여본 일이지만 분명 낯익은 너인같았다. 아니, 지금껏 내가 찾아헤매던 너인같았다.

나는 성급히 너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너자를 따르기는 험치 않았다. 그의 걸음은 매우 빨랐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것 같은 걸음이었다.

나는 숨가빠 달려 그 너인을 앞질러갔다. 얼마 쯤 앞선 다음에야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너인의 발자국소리가 차츰차츰 커갔다. 내 가슴도 높뛰기 시작했다. 맞춘한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무심히 그러는것처럼 고개를 돌리었다. 그는 곧바로 앞을 보며 걸어왔다. 나한테는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허나 내 가슴은 환희를 안고 마구 뒤설레였다. 분명 그 너인이었던것이다.

《저, 저...》

나는 용기를 내어 한발 나섰다.

《저, 우리 순이가 앓아요.》

너인도 주춤하였다. 그러나 한순간뿐이었다. 어느새 너인은 나를 피하여 바람같이 지나가버렸다.

《알아 못보는구나!》

눈물이 콧 눈앞을 가리웠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나는 그만 땅바닥에 퍼더앉아 목놓아울고라도 싶었다. 그렇다고 너인을 놓쳐버릴수는 없었다. 앉고있는 순이를 생각하니 또 비위를 쓰지 않으며 안되였다.

나는 또다시 너인의 앞길을 막아섰다.

《저, 내가 차돌이에요. 내가...》

너인도 끝내 벗어섰다. 그는 입술을 꼭 깨물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호수처럼 그윽히 빛나던 두 눈에는 물기같은것이 어리여있었다. 그 눈빛은 무엇을 애원하는듯도 하고 모진 아픔을 참는듯도 하였다. 어떤 간절한 부탁을 담은듯도 하였다.

나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도 의식하지 못하며 다급히 말하였다.

《우리 순이를 살려줘요, 순이를...》

《...》

《전번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다신 그런 짓을...》

《...》

나는 무춤 입을 다물었다. 무수한 생각을 담고있던 너인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얼음같이 차갑게 번뜩이였다. 내 가슴도 싸늘히 얼어버리는것 같았다. 나는 비실비실 물러섰다. 그러자 너인이 획 내앞을 스쳐지나갔다. 나는 비칠거렸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자신을 지탱하였다.

나를 외면해버린 너인은 태연히 고개를 쳐들고 걸어가고있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믿어지지 않았다. 믿을수 없었다.

(아, 다 그렇구나!)

나는 인제야 비로소 세상인심을 다 깨닫는듯하였다. 나는 너인이 저럴줄을 몰랐다. 아끼야마의 구두발에 차굴리던 나를 구원해주던 너인이였다.

가림천의 맑은 물속에서 내 얼굴과 손발만이 아닌 마음까지도 깨끗이 닦아주던 너인이였다. 우리 오누이에게 참으로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던 너인이였다. 허나 약속은 고사하고 순이를 구원해달라며 애걸하는 피타는 부탁까지도 매정스레 외면하고 피해가는것이다. 하긴 자기 동생도 때버렸다는 너인이 아닌가!...

《야!》

우악스런 손이 내 목덜미를 틀어쥐였다. 키가 컸던 아끼야마형사가 나를 잡아먹을듯이 노려보았다.

《저 녀자를 잘 알지?》

《...》

《짜식.》

그놈은 불이 번쩍 나게 내 따귀를 불이였다. 그리고는 두손을 허리에 얹고 멀어져가는 너인을 한동안 바라보며 고개를 기웃하더니 발길을 돌려버렸다. 아마 내쳐 너인을 뒤뉘아보다가 단념

해버린것 같았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그자리에 서있었다. 아끼야마놈한테 매맞은것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것이 없었다. 기대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희망의 등불은 꺼져버렸다. 세상이 텅 비어버린듯한 허무감을 의식한 순간 나는 앞으로 푹 꼬꾸라져버렸다...

만약 가림마을의 합수목에 사는 사공할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그후 나와 순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이리하여 우리는 할아버지 내외분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살게 되었다. 허나 그날밤부터 나는 아주 침울한 아이로 되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보천보전투가 벌어졌다. 가림마을에서 10리밖에 안되는 보천보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화염은 나의 우울을 가셔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심장속에 깊이 새겨넣었으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게 되었다. 또 할아버지가 왜놈들을 반대하는 뜻있는 일을 한다는것을 눈치챈 다음에는 남모르는 금지도 가지였다.

슬픈 일도 없지는 않았다. 눈썹이 훑날리는 초겨울 어느날 할아버지가 경찰놈들한테 붙잡혀간것이다. 그때 할아버지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사색이 된 나에게 말했었다.

《락심 말구 누나를 기다려라.》

《예? 누나라니...》

《너석두! 너희들과 약속하신분이 있잖느냐? 꼭 데리러 온다구말이다. 잊지 말구 기다려라. 너희들때문에 울면서 갔으니 꼭 오실게다. 해님을 모시구 꼭!...》

그때의 내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랑이 일어나는것 같았다. 나는 야밤에 불을 켜든듯이 모든것이 환히 해아려졌다. 나의 《누나》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리고 《누나》가 왜 나를 피해갔는지도 다 리해되었다. 아끼야마놈이 끈덕지게 뒤를 밟을 때 《누나》한테는 아주 중하고 급한 일이 있었을것이다. 그래서 울며 사정하는 나를 외면한것이 분명했다. 그때의 누나는 얼마나 가슴아팠으랴, 얼마나 피눈물을 삼키었으랴. 하지만 정처없이 방랑하는 친동생조차 찾아보지 못하는 《누나》는 우리 오누이를 할아버지한테 든든히 떠맡긴것이였다.

(아, 누나! 나의 누나!)

누나에 대한 그리움은 무어라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날마다 순이와 더불어 압록강가로 나갔다. 《누나》를 기다렸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올 나의 《누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렸다.

압록강의 푸른 물도 변함없이 출렁이며 나에게

가만가만 속삭이는듯하였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도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얼마후 나와 순이는 할머니와 함께 유격구로 들어가게 되었고 비로소 나의 생활은 인생의 진정한 향로를 따라 펼쳐졌다.

×

세월은 그때로부터 50년이 흘러갔다. 내 귀머리도 희숙희숙해졌다. 하긴 몇달 지나면 나도 환갑을 맞게 된다. 허나 나는 아직 나의 《누나》를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보천보에 정찰을 나왔던, 항일유격대원이었던 그는 그후 어느 성시습격전투에서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고 한다. 그가 찍어놓은 자국자국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을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보천보의 뒤꼍목에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보다 더 강한 인상은 없다. 나는 결코 잊을수 없다. 입술을 꼭 깨문채 안타까이 나를 내려다보던 물기어린 그 눈빛을! 무언가 애원하는듯도 하고 간절한 부탁을 담은듯도 하던 그 눈빛을! 그리고 하많은 생각을 다 감추고 얼음같이 차갑게 변해지던

그 눈빛을!...

그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는 과연 약속을 어기었던가! 낮이나 밤이나 늘 해님이 떠있는 집! 슬픔도 불행도 모르고 오로지 기쁨과 웃음만이 넘쳐나는 집!...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 조국이 아닌가. 그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을것이다. 지하공작의 나날에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과도 그랬을것이다. 또 그 약속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귀중한 모든것도 아낌없이 바쳤을것이다. 어찌 그 혼자만이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성전에 나선 모든 혁명가들이 만난을 무릅쓰고 불의 바다, 피의 언덕을 넘으면서도 미래앞에서의 언약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으리라. 그러고보면 조국과 겨레앞에, 미래앞에 다진 혁명전사의 약속처럼 값높고 고귀한 언약은 또 없을것이다. 참으로 약속이란 새겨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다.

나는 또 걷는다.

가림천은 소리없이 흘러간다. 별들은 유난스럽게 반짝인다. 가로등의 불빛은 더 부드러워진다. 보천보의 밤거리는 신비스러운 꿈을 안고 래일로 가고있었다.

전호속의 물동이

박승원

새벽닭이 우는
아침이면 아침마다
김오르는 박우물가에
고향집 어머니 이고 나서던
그 물동이 여기 왔다

밀보리 익는 여름
무더운 점심참이면
동이굽을 훑치며
정든 안해 발머리에 이고 오던
그 물동이 여기 왔다

바위도 불타고
하늘도 불타는
격전의 고지에
전선마을 너인들이
맑은 물 가득 이고 온 물동이

햇바가지 동동 띄운
물동이의 맑은 물은
온종일가도 한모금만 마시면

갈증을 물랐으니

물동이 물동이
전호속의 물동이
너는 정든 고향의 노래로
너는 못잊을 고향의 샘 그 맑은 정기로
전사들 가슴에 흘러들지 않았던가

총메고 떠날 때
따라서던 그 모습들이
그 물동이속에 어려오고
승리하고 돌아갈 그날의 기쁨이
그 물동이속에 그림처럼 비껴와

바위도 타는
그 전호가에서
멸적의 함성은 더 높이 울렸어라
빼앗길수 없는 귀중한 모든것이
가슴마다 소중히 물결쳐와서
때로는 그 한모금의 샘물이
가슴마다 노한 파도를 일으켜서

세대의 임무

김원복

분석실 최향희는 확실히 현숙한 처녀였다. 물결치듯 구불구불한 긴 머리태가 반달같은 어깨위에 곱게 드리워 그의 가름한 얼굴을 한결 아름답게 해주었다. 반듯한 이마밑에 붓으로 그려놓은 듯한 가느다란 두눈섭과 그아래 날이 선듯한 코마루, 호수처럼 깊어보이는 까만 두눈, 발기우러한 두볼... 천성으로 타고난 어여쁜 체모는 그의 속마음까지도 그렇듯 아름답게 느껴지게 했다.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눈부터 웃곤하였다. 그 웃음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입가에 퍼져나가면 그의 결을 지나치던 사람들이 꽃을 본듯 멍없이 즐거워서 걸음을 멈추고 피곳 돌아서기까지 하였다.

향희는 지금 사람들의 현혹된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강안공원으로 총총히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만곡광산의 박수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걸음이 빨라지고 거리가 좁혀질수록 수진의 얼굴이 눈가에서 환히 웃고있는것만 같았다. 그리웠던 얼굴이었다. 향희의 이마에는 어느덧 송이땀방울이 송글송글 돋혔다. 손수건이 손에 쥐여져있었으나 향희는 그것마저 잊어버린듯싶었다.

가로수 우거진 큰길을 지나 공원에 다달은 처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처녀는 해빛을 막아 휘날려진 수양버들의 그늘밑에서 여기저기를 살피었다. 어데선가 지저귀는 피콜레의 노래소리가 그 어떤 환영을 불러일으키듯 류창하게 들려왔다.

향희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고서야 이마의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푹푹 찍어내었다.

《향희동무!》

이때 등뒤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자기의 어깨를 감싸듯 들려왔다. 순간 향희는 심장이 딱 멎는 듯했으나 그런 리는 조금도 내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다. 남달리 자존심이 강한 그의 성미를 아는 지라 청년은 나무뒤에서 몸을 숨긴채 오히려 석션한 목소리로 어함- 하고 위엄있게 헛기침을 했다. 향희는 그것이 더 즐거웠던지 입가에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그는 울렁이는 가슴에 두손을 얹었다.

혈기왕성하고 두눈이 서글서글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향희앞에 불쑥 나타났다.

《수진동무!》

처녀는 암반같은 그의 가슴에 몸을 맡길듯이 응시하여 손을 쑥 내밀었다.

《언제 오셨어요?!》

수진은 못이 박힌 솔뚜껑같은 손으로 향희의

보드라운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낮차에... 그동안 앓지는 않았소?》

《아니요. 수진동무는?...》

《나야 언제나 이렇게 하하하...!》

박수진은 손에 들고있던 한송이의 꽃을 향희에게 주었다. 향희는 진분홍 함박꽃을 받아들며 더욱 환하게 웃었다.

《아이, 고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향희동무가 그리워서...》

그 말에 향희는 눈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리고 눈꽃을 코앞으로 가져갔다. 향기도 맡아보고 입술과 볼에 대고 살그니 문질러도 보는 향희의 마음에는 수진의 손길이 얼굴에 닿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향희는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하였다. 오래동안 헤어졌다가 이렇게 만나기가 벌써 그 몇번이던가. 헤어지면 그리워 낄과 달을 쏘았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여 만시름을 잊게 되는 향희였다.

《걸지 않겠소?》

향희는 수진이 이끄는대로 공원속을 거닐었다.

만곡광산의 전차길받침목우에 걸터앉아 저녁노을 붉게 물드는 마을을 바라보며 속살거리던 그 날로부터 산천어 옥실대는 송두천기슭을 지나 여기로 이어진 황홀속에 잠긴 달콤한 길이었다.

향희는 수진의 넓적한 잔등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남달리 키가 흰칠하고 넓은 이마와 씨원스런 질은 눈섭밑에 영채롭게 빛나는 눈으로 자기를 애무하며 바라보는 수진이가 더없이 미더웠다.

향희는 수진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그의 삶을 찬양했고 지향과 신념에 동감했으며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였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수진이도 향희의 의지를 감수하고 거기에 애정을 기울이기에 남다른 경주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태연자약하였다. 두사람은 지금까지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나눈적이 없었지만 꿀을수 없는 애정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수록 제각기 앞날에 대하여 오만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을 광산에 함께 있을 때는 미처 다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날적마다 향희는 그때가 얼마나 귀중하였던가를 깊이 새겨보는것이였다.

두 젊은이는 얼마동안을 말없이 자기 생각에 몰두한채 걷기만 했다. 그러다가도 마주 쳐다보는 소리없이 웃음지었다. 말은 비록 없어도 그 웃음으로 귀중한 수만마디의 말을 나누며 몸으

로 감수하고있었다. 드디어 못참아낸 수진이 먼저 말했다.

《향희동무! 내 이번에 창안한 기계가 성공했소. 발명권이 나왔단말ियो.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이, 그래요?! 어찌먼!... 정말 축하해요!》

향희는 감격하여 탄성을 질렀다. 그는 수진의 성공을 곧 자기의 성공으로 감수하였다. 그리고 보니 수진의 몸이 몹시 축간것 같았다. 향희의 가슴이 알찌근해왔다.

《어쩐지 수척해지셨다 했어요.》

향희는 수진의 수척한 몸이 자기때문인것처럼 느껴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뭘, 향희동무가 기뻐할걸 생각하니 힘든줄을 몰랐소.》

진정이 담긴 말에 향희는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고마워요. 수진동무!》

향희는 자기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그 열정이 고마왔다. 그래서 더욱 기동처럼 믿게 되는 것이었다. 다소곳이 머리숙인 향희는 수진의 의지를 따른 그 행복감으로 하여 무엇인가 가슴에 짝 차오름을 느꼈다. 지금 수진을 위해서는 자기도 모든것을 다해야겠다고 속다짐하게 되는 것이었다. 수진은 향희의 마음을 짐작한듯 말머리를 다 떼데로 돌렸다.

《향희동무는 도시에서 살고 또 도시사람이 다 되었는데... 내가 너무 산골내기같지 않소?》

《그건 갑자기 무슨...》

《하하... 산골내기... 그저 그렇다는 말ियो.》

수진은 룡담 비슷하면서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말을 열거무렸다.

향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저 그렇다는 말이 아닌것 같았다. 단순히 빈정대는 말은 더욱 아닌것 같았다. 그럼 무엇일까....

향희는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쩐지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설마 아닐게야. 아무렴 다른 생각을 할가...)

박수진에 대하여 늘 좋게만 생각해오는 향희인지라 구태여 까밝혀 따지고싶지 않았다. 그것도 오래간만에 만나지 않았는가. ...

공원의 키높은 나무가지사이로 부채살같은 해살이 새어내렸다. 해빛을 함뿍 받은 버드나무잎사귀는 빛의 자양을 젖줄기마냥 한껏 들이키며 흐느적이고있었다. 떨기진 꽃들이 방글방글 우는데 나비 한쌍이 춤을 추듯 꽃밭우를 날아오고있었다. 모든것이 그렇듯 유정하고 모든것이 자기들을 부러워하고 모든것이 이 순간을 축복하는듯 정다웠다. 그들은 공원에서 나와 강안길을 거닐었다.

푸른 강물이 진주를 뿌린듯 해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거리며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어데

신가 날아온 물오리 한쌍이 저쪽 수면우에 텀벙 텀벙 내려앉았다. 그중 한놈이 물속으로 자맥질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얼마 있으려니 이쯤에서 불쑥 솟아오른 물오리가 자기 쌍이 있는곳으로 미끄러지듯 찾아가고있었다. 그것이 재미있어 향희는 물오리를 가리키며 방실 웃었다.

《그래 요즘 재미가 어떻소?》

향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정색한 얼굴로 며칠전의 이야기를 하였다. 생각하면 지난 며칠사이느 참으로 허전한 나날들이었다. 동무들과 한호실에서 덩굴 때는 미처 다 몰랐었다.

요람에서 깃을 털고 날아간 새들처럼 한호실동무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간석지건설장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장으로 떠난후에야 그 하루하루가 열흘처럼 길어보였고 홀로 호실에 있으면 오만가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었다.

원래 향희는 대학을 졸업하면 떠나왔던 만곡광산으로 다시 내려갈 결심이였다. 광산은 바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키워준 요람이였다. 더우기 향희가 광산을 떠날수 없는것은 갱장아바이를 비롯한 광부들의 믿음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물론 광산에는 (아직 약속은 없었지만) 자기가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박수진도 있었다. 그래서 《광산학》을 공부했는지도 모른다.

광부들은 《말이 그렇지 이제 기사가 돼보지. 이 길로 다시 가라면 발버둥칠게야.》 하며 룡담이 섞인 웃음의 소리를 하였다.

하긴 지금까지 대학으로 떠나간 사람은 많았지만 기사가 되어 실지 제고장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극히 적었다. 그러니 광부들의 말이 근거없는것은 아니였다. 그래서 향희는 더욱 열을 올려 두고보자고 장담하였었다.

그랬으나 뜻밖에도 향희는 대학을 졸업하자 도분원 분석실에 배치받게 되었다. 자기의 등을 떠밀어준 광산의 로동계급앞에 죄를 짓는것만 같았다. 첫 로동계급으로 키워준 만곡광산의 정든 광부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린것만 같았다. 그래서 광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폐질을 할 생각도 해보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배치되었으니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내려갈수 있는 기회는 꼭있게 될것이므로 여기 남아있게 된 것이었다.

《전 떠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것이 막 안타까웠어요.》

박수진은 묵묵히 듣기만 하였다. 향희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옷깃에 붙은 나무잎을 떼주며 속삭이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이 있는 광산으로 가고싶어요. 광산기술자들이 채취한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분석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분석에 대한 실무적문제를 기술과에 제기했어요.》

《음, 그런 일이 있었구만. 하지만 공연한것은 하지 마요.》

수진은 혼자말처럼 《무엇때문에...》 하고 조용히 외우면서 화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뭐라고요?! 무엇때문에 공연한것을 하는가구요?!)

향희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꽃송이우에서 나폴대던 흰나비 하나가 어디론지 날아가고 한놈만이 날개를 저웃거리고있었다. 박수진은 그것을 멍청히 바라보며 걷다가 향희에게 돌아섰다.

《물론 시대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나 향희! 그렇다고 안타까와할진 없소.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렵고 힘든 광산에 진출하여 할 일을 다했소. 나는 지금도 하고있고...》

하긴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보면 그때는 참으로 시대앞에 우리 세대가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몸바쳤다고 말할수 있을것이였다.

향희의 눈앞으로는 광산에서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하기 위한 정력적인 로력투쟁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향희는 그때 현장에서 수진을 알았다.

향희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광산에 배치받았다. 그는 당당한 로동계급의 한 성원이 되였다. 그런데도 향희는 안전모에 조명등을 번쩍이며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하였다. 그들은 매일 자기 계획을 넘쳐한 기쁨을 안고 개선장군처럼 가슴을 쭉 펴고 출근하곤하였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꽃다발을 안기고 꽃보라를 뿌려주고 꽃테프를 감아주었다. 향희도 꽃뭉치를 들고 갱안으로 달려가곤하였다. 그들이 진짜 로동계급으로 보람있는 일을 한다고 느끼게 된 향희는 생각이 깊어졌다.

하루는 수진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 굴뚝기공이 된 그를 대하자 어쩐지 자존심이 꺾이는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향희동무! 우리 소대에 오지 않겠소?》

박수진은 꽃다발을 흔들면서 궁지있게 싱글벙글 웃었다. 향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광산에 가면 광석을 캐고 탄광에 가면 탄을 캐야 진짜 로동계급이다. 녀성굴뚝기공은 없단말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갱으로 들어갈수 있을까?...)

향희는 갱밖에서 경리인이나 하는 자기가 더는 참을수 없었다. 그는 로동파에 찾아갔다. 파장은 향희의 요구를 두말안팎으로 거절하였다.

《너자는 갱안작업을 못하게 돼있소. 알겠소?》

《그러면 저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깎겠어요.》

《뭐, 뭐라고? 그래 머리를 깎으면 너자가 남자로 둔갑이라도 한다우? 허참, 나중에는 못하는 소리가 없는걸.》

파장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허거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향희는 꺾이지 않았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과 같이 그는 인차 운전공이 될수 있었다. 하루계획을 넘쳐한 광부들을 태우고 출갯하면 자기에게도 꽃다발이 듬뿍 안겨지곤하였다. 향희는 그것이 기뻐다. 보람이 있고 궁지가 생겼다. 무엇이든 더 많이 일하고싶었다. 그는 입출갱시간외에는 광차를 끌고 갱으로 들어갔다. 이제야 당당한 로동계급이 된듯싶어 광부들앞에 버젓이 나타났다.

《이거 향희동무가 기세를 올린다! 팬참은걸! 이제 온 광산에 짜하게 알려질게요.》

광부들속에서 박수진이 나서며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알려지길 바래서 일하는것 같아요?》

《나빨거야 없지. 그게 다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하단말이요.》

《앞으로요? 아이참... 전 로동계급이 되자는거예요.》

《언제 는 로동계급이 아니구 과학자였소? 하하...》

향희는 마주 소리없이 웃어버리고말았다. 그후 향희는 속보판에 사진까지 나붙게 되었고 얼마 안되어 혁신자가 되었다.

향희는 갱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수진을 만났다. 그때 수진은 벌써 기술혁신조에 망라되어 여러건의 기술창안과 합리화안을 내놓았었다.

언젠가 열기모임에서 토론하면서 수진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지고 더 많이 일하겠다고 결의하였다.

향희는 저도 모르게 박수진에게로 마음이 끌려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향희는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수진에 대한 존경과 환희가 가슴속의 깊은곳에 자리잡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수진앞에서는 별스레 조심스러워졌고 부드러운 몸가짐과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다. 어느덧 수진에 대한 류다른 감정이 불뭉싹처럼 움터나고있음을 느낀 향희는 와락 겁이 나기도 하였다. 그랬으나 그것은 막을수도 꺾을수도 없는 진심이었다.

이렇듯 향희의 생활은 기쁨속에 나무잎 떨어지고 랑만속에 새 꽃이 피어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향희는 그후 대학추천을 받게 되었다. 그날밤 두사람은 버들방천 우거진 강변을 거닐었다. 어느틈엔가 옥같은 별들이 하늘에서 솟박꼭질을 하고있었다. 언제이든 호젓한 기쁨이 생기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정작 마주서고보니 입이 굳어

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둘이 다 가슴이 그냥 쿵쿵 뿔뿔이다.

두사람은 어둠이 깔린 강물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향희가 기껏 생각하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동무,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모두 몰라보게 되겠지요?》

《물론. 향희동무는 기사가 되구...》

《동무는?!》

《나야 뭐 그저 굴진공이지.》

《아이참...》

그전만 같아도 너럭바위같은 수진의 잔등을 종주먹으로 쿵쿵 두들겼으련만 지금은 그러지를 못했다.

《하기야 나도 달라지겠지. 수염도 많이 나고...》

《호호... 정말 우습네.》

향희가 우습다고 깔깔대는데 수진은 무엇인가 결심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향희동무, 내... 내 진정음...》

향희는 그 말이 기다려졌던것이기에는 했으나 그래도 가슴이 화닥거려 달아나고싶은 심정이였다.

하여 그는 변명하듯 얼른 말머리를 돌려버렸다.

《저것 보세요. 하늘의 별바다! 정말 굵지요?!》

《굽구만. 하지만...》

《하지만 뭐가 또 고와요?》

《동무가 더 굵단말이요!》

《어마나!》

향희는 가슴에 두손을 얹으며 놀랍게 소리질렀다.

《동무는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군요.》

향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대낮같은데 아마 고추빛으로 붉어진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고 달아났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어둠은 그를 붙잡아놓았다. 얼마동안인지 두사람은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고있었다.

《동무는 저 별을 따라 날아가는데 내 신수는 왜 이렇게 막히는지...》

박수진이 탄식하듯 말했다.

《날아가다니요. 우리 광산을 버릴수 없어요.》

《이거보우, 도지에서두 얼마든지 광산을 도울 일을 할수 있지 않소.》

《...》

향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도 대학에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남아야 했다. 그의 마음을 몰라주고 말대답을 한다면 좋을것이 없었던것이었다. 그랬으나 향희와 수진은 어성버성한 마음을 마무리지 못한채 헤어지고말았다.

그 다음날 아침, 방금 떠나려는 렬차승강대에 서 향희는 수진이 안겨주는 책과 가방을 받았다.

대학기간 향희는 광산을 떠나오던 날 박수진에게 했던 말대로 지켜나갔다. 그는 언제나 광산을 잊지 않았으며 그래서 방학에는 광부들속에서

지냈다.

향희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박수진은 여기 대학통신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날에 향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향희? 무얼 생각하오?》

박수진이가 어깨를 슬쩍 건드리며 말을 거는바람에 향희는 즐거운 회상에서 소스라쳐 깨어났다. 그리고는 쑥스러운듯 애뜻한 미소를 입가에 띠었다.

《아무것도 안예요.》

《동문 별걱정을 하누만. 그만하면 우리는 떼떽하게 살았지. 부끄러울게 하나도 없소.》

먼 하늘가를 쳐다보는 수진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그 무엇이 비껴있었다. 수진은 자기의 얼굴을 지켜보는 향희를 보자 생각에 잠긴듯 말을 이었다.

《당을 위해서, 당이 부르는곳에서 성실하게 일했거든. 말하자면 우리는 선배들이라고 할수 있지...》

향희는 수진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조용히 걸음을 옮기였다...

향희는 박수진의 가방을 들고 그와 함께 역으로 나갔다. 박수진은 렬차승강대에 오르면서까지 자기의 성공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말했다.

《향희! 내가 지금 새로운것을 착상하는데 그것만 성공하면 나도 향희앞에 버젓이 나설게요.》

《아니 언제는 뭐!》

《허허허... 그저 그렇다는 말이지. 딴 생각은 마오. 모든 일이 잘돼가니까...》

향희는 그가 얼마 안있어서 결혼을 하자고 요구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간이 흐르면 결혼은 할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의 동요를 일으키고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향희는 수진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렬차에 오른 박수진을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래였다.

호실로 돌아오는 향희의 눈앞에는 여전히 수진의 얼굴이 남아있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텅빈것 같은 공허한 감정이 향희의 마음을 잡고 흔들었다.

×

사랑이란 참으로 고상하고도 복잡한 감정이다. 향희는 박수진이 떠나간후 요즈음 사랑에 대하여 줄곧 생각하였다. 그럴수록 잡다한 상념에서 빨리 벗어나 무엇인가를 다그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향희는 《현장분석》을 할데 대한 새로운 발기를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현장들에서 제기되어오는 시료를 객관적립장에서 분석해주는데 그치고있었다. 이곳 기술자들은 현실과 떨어져 한갓 사무원식으로 제기되는 시료를 분석하고 분석표를 작성하여 현장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을 하였다.

향희의 주장은 현장가까이에 한개 지역을 설정하고 분석의뢰서와 같은 문건놀음이 없이 현장기술자들과 같이 책임적인 립장에서 시료를 제때에 분석하고 연구하면 시간도 효과적일뿐아니라 연구효율도 높아질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채취한 시료를 기차에 붙여오는 일도 없어질것이고 도중시간낭비도 막을수 있을것이였다. 문제는 스펙트르분석이였다. 그래서 일부 기술자들은 머리를 긁적거리고있었다.

《물론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현장에 접근시키는것은 세부탐사의 효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희는 설득력있게 설명하기에 진땀을 흘렸다. 드디어 향희의 제기는 일군들의 지지를 받았다. 스펙트르분석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현미경분석은 직접 탐사지에서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부탐광에 직접 이바지할수 있을것이였다. 향희는 현장분석을 진행할데 대한 대책을 취해나갔다. 일은 어렵게 진척되어갔다. 그는 씩없이 땀과 지혜를 바쳐 일했다. 어느덧 바쁜 날이 흘러 두달이 지나갔다. 바로 이때 만곡광산에서 박수진이 도착한다는 전보가 날아왔다.

(아니 수진동무가?!)

향희는 저오기 놀랐다. 지금쯤은 변론준비와 함께 졸업시험기간이였다. 혹시 론문준비에서 무엇이 애로되는지...

향희는 역으로 나갔다. 흠에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맨앞으로 나갔다.

《아이, 수진동무?! 》

하마터면 소리칠뻔하였다. 넥타이를 의전하겐 흰 사쓰에 제긴 양복을 입은 박수진이 한손에 들가방을 들고 가벼운 걸음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박수진은 향희를 대번에 알아보고 바쁘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향희동무!》

수진은 향희의 손을 덥석 잡고 힘껏 흔들었다.

《잘 있었소?!》

《오시기에 수고하셨어요!》

향희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끔하였다. 박수진은 고무풍선처럼 동동 뜬 기분인듯 향희를 정겹게 바라보며 웃었다. 두사람은 역광장을 벗어났다.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허허... 그렇게 됐소.》

《지금 시험기간이 아니예요?》

《저쪽으로 갑시다.》

박수진은 동문서답하고 향희를 이끌어 강안유보도길에 들어섰다. 강물은 그 언제나와 같이 조용히 흐르고있었다.

《시험준비는...》

《자- 이렇게 바쁘다구야. 우물에 가서 승농 찾겠구만...》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향희도 그의 곁에 앉았다.

《향희동무! 내가 어떤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는지 아오!》

《반가운 소식어요?!》

박수진은 가방의 자크를 주르륵 소리나게 열었다. 그리고는 가방속에 손을 넣고 무엇인가 뒤적이였다.

《내가 이렇게 바쁜 걸음을 하게 된것은말이요...》

수진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다말고 그 무슨 두루마리같은것을 끄집어내어 향희의 무릎위에 척 올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드디어 성공을 했단말이요!》

《성공이요?! 이게 뭔데요?》

《뭔가 보오! 내가 도에 오게 되었던말이요》

향희는 얼빠진 사람처럼 수진을 뵈히 바라보다가 두루마리를 풀어헤쳤다.

《무슨 도면이 안예요?! 》

《도면? 하하... 도면이야 도면이지,》

《...?!》

《그게 바로 도에 나을수 있는 문건이요,》

《...?!》

《수고가 헛되지 않았소. 드디어...》

수진은 이번에 만곡광산골짜기를 빠져나오지못하면 영영 광산에 묻히게 된다고 하면서 도에 있는 어느 기업소에서 요구한 무슨 대차합리화안인이 도면이 그곳 일군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이제 멀지않아 그 기업소에서 자기를 데려갈것이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럼 졸업시험은요?!》

《그거야 한해쯤 더 다니면 되지. 기본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본문제를말이요.》

《?!...》

향희는 너무도 꿈같은 말이어서 미처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자, 이젠 우리 결혼도 합시다. 집이야 또 사엽하면 생기겠지.》

《아니 그게 정말이예요?!》

《허허. 꿈같겠지. 하지만 정말이요.》

향희의 입은 갑자기 굳어졌다. 그 무엇에 흘린것만 같았다. 향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젖은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룡담이지요?! 예, 그렇지요?!》

《룡담이라니! 내가... 아, 이젠 됐소. 모든 희망이 다 풀리게 됐소.》

박수진은 시라도 읊을 심정인듯싶었다.

향희는 슬며시 수진의 손을 놓아주었다. 옆에

앓은 수진이가 진짜 박수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푹 떨구며 돌아앉았다.

(속히웠구나. 이런 사람인줄을 모르고 사랑했던 말인가.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창고고안을 하고 일에 열성을 내던것이 광산을 벗어나기 위한 연극이었구나....)

향희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빈혈이 왈칵 몰려왔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는 한참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언젠가 여기에 왔을 때는 한쌍의 물오리가 다정하게 노닐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텅 비어있다. 햇빛에 번쩍이는 물결이 가슴속 허전한 빈자리를 채우려는듯 밀려들었다. 강건너 웅장하게 자리잡은 공장굴뚝에서는 흰 연기가 쉼없이 솟아오르고있었다. 하늘을 받들고 아슬하게 솟은 굴뚝에 큼직하게 내려쓴 《속도전》이라는 글발이 눈알을 짝 메웠다.

순간 향희는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나던 한호실 동무들의 얼굴이 되새겨졌다. 그중 나이 어린 영란이가 결의토론을 하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려왔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켜냈고 바다에서 건져낸 새땅을 인계받고 거기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향희에게 세대의 의무를 자각하게 해주는것이기도 하였다.

한때는 자기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서있지 않았던가! 그때 향희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는것이 없었다. 오직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 하나뿐이었다. 그것이 향희에게는 삶이며 기쁨이며 미래의 전부였다.

(그런데 어쩌면 저런 사람이 되었을가. 의리도 량심도 없이...)

향희는 자신의 동요와 함께 수진의 마음을 너무도 깊이 물랐음을 깨닫자 몸이 오스스 떨렸다.

사실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보면 그의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스쳐지낼수 없는 오점들이 있었다.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향희는 그의 장점만을 보았으며 간혹 눈에 띄우는 단점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였었다. 그것이 오늘 수습할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른것이 아닌가...

물론 그를 사랑했기때문에 이렇게 된바하고는 수진이 바라는데로 따른다고 그 누가 나무랄 사람은 없을것이였다. 이것은 량심에 관한 문제였다. 그러니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시대앞에 부끄럼없이 산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향희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그럴수 없어. 그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며 비렬한것이다. 그렇다. 비렬하다. 부끄러워...)

이때 수진이가 향희의 곁으로 다가왔다.

《향희동무! 이번에 자리를 잡고는 매년에 졸업시험을 치겠소.》

향희는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아니, 왜 그러오? 향희동무!》

향희는 휙 돌아섰다.

《그만해요. 수진동무는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동무는 그전에도 자기가 하는 일을 진정을 바쳐 성실하게 한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싶어 그러지요?》

향희의 목소리는 차거웠다. 수진은 깜짝 놀라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무슨 소릴...》

《동무는 것처럼 저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동무는 저를 속였어요. 동무한테 속히운게 분해요. 가슴이 아파요.》

향희는 흐느끼다가 겨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광산학을 전공한 동무가 이 도시에서 어떤 꽃다발을 바라고있어요? 어떤 명예를 바라는가말예요? 명예가 차레지지 않으면 또 다른데로 옮겨가겠지요?...》

《향희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전 아무 말도 안듣겠어요.》

《향희, 아무 말이면...》

수진은 발끈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무 흥분된 나머지 몸둘바를 모르고 씨근덕거리기만 하였다.

《소리는 치지 마세요. 그래 광산에서 무엇이 부족하던가요. 그렇게도 아껴주고 받들어주는 동지들을 기만하고 도시에 나와서는 무얼 하겠어요. 저는 남을 기만하는 그런 박수진동무는 몰라요. 저는 만곡광산으로 내려가겠어요.》

《아니, 아주말이요?!》

《그래요. 영원히...》

《뭐라구?!》

향희는 소리치는 수진의 목소리를 뒤에 남겨두고 시내쪽으로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향희? 어딜 가요? 내 말을 듣소. 향희?》

그랬으나 향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뒤따라 가던 수진은 우뚝 서버렸다. 무엇이 무엇인지 자기로서도 얼떠름하여 멍청히 서서 아-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

...

어느날 박수진은 만곡광산쪽으로 떠나는 려객렬차에 몸을 실었다. 바래주는 사람은 없어도 모 든것이 정답게 손저어주는듯싶어 마음은 무척도가벼웠다. 그는 멀어져가는 도시전경을 차창밖으로 이윽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바래준 사람은 없지만 마중해주는 사람도 없을까!)

순천의 밤에 외 2 편

오재신

밤하늘을 태우며
련포벌에 넘치는 불빛 불빛

수령님 모시였던 감격의 이 하루
못잊어 아, 못잊어
열정에 타는 순천의 밤

수령님 품에 안겼던 그 병사의 마음
어느 불빛에 어려있느냐
어느 기초굴착장에
어느 기둥
어느 란간에...

아, 저 불빛
아아히 솟아오르는 기둥뿌리에 량심을 묻고
경건히 평양하늘 우러르는 건설자-
그 생각깊은 눈빛이나 이닌가
안겨주신 믿음에

련포강기슭
자갈무지들이 솟아나고있는곳
거기엔 있다네
련포벌 로인들
그들이 스스로 무은 《지원분조》

새벽엔 고기를 낚고
한낮엔 자갈을 추고
그리고 또 깊은 밤
돌격대합숙 아궁이마다 불도 더 지퍼주는
수고로운 그 손들...

그날이 오면
수령님 모시고 사진도 찍을테지
비날론 쏟아질 그날이 오면
평생 가장 큰 소원을 풀테지

이제 겨우 첫 삽을 떠올린
이 건설장

잠 못드는 마음들
그 가슴에 고이 간직된 그 열망으로 타오르는-

오로지 인민을 위해 이어가시는
수령님의 그 귀중한 시간으로
건설의 속도를 재촉하며
그 귀중한 시간으로 뛰는 심장들

그 숨결
그 맥박이여라
련포벌은 그 열풍에 휩싸여
분화구를 터친 불꽃바다

저 한점한점의 불빛은
우리 수령님 지퍼주신 열정의 바다속에
영원히 생을 둔 위훈의 불꽃
하늘을 덮으며 쏟아져내릴
비날론꽃숨 그 송이송이여라

진정

어릴적
토스레 실밥을 피눈물로 삭였다는
그들이라네
그 세월은 아득히 흘러갔건만
오늘도 그 옛 일만은 잊지 못하는 그들

합숙가마에서 송어국이 끓을 때
따뜻한 잠자리가 기다려줄 때
나는 생각했네
흘러간 세월의 흰서리를 없고
흘러온 세월의 행복에 안겨
청춘을 되찾은 그들의 진정을 두고

그날

아직 그날은 앞에 있었건만
사진을 찍었네
아버이수령님
우리 함께 사진찍어 주시었네

첫 기둥을 세운 이 터전우에서
방사직장이 일떠설 그 구내에서

그 사진 소중히 품고서
그날부터 건설장을 떠날수 없는 마음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은 왔어도
수령님 바라시는 그날은 앞에 있어

아, 우리네 소원은 풀렸건만
가슴속엔 그대로 남아있네
그날
순간도 미룰수 없는 그날은...

대성산 옛 성터에서

리성철

-검을 휘둘러라
이마에 창을 맞아도
돌격전에 죽자!

우람찬 웨침소리
달리는 말발굽소리
쟁쟁히 들리는듯
비뿌리듯 엇갈리는 화살
번쩍이는 창과 검
눈앞에 보이는듯

오, 대성산 옛성터우에 서니
아득한 옛날에로 마음 달려
무수한 성돌처럼
가슴에 쌓이는 생각이여

아마도 저 벽을 방패삼아
번개의 화살 날렸으리
복숭아꽃 살구꽃 만발한 고향
사랑하는 평양을 지켜
분노의 장검 휘둘렀으리

성돌마다 애국의 붉은 피
력력히 어려 지워지지 않은곳
지금도 원썩을 무찔러

격조높이 울리던 인민의 함성 들려오는곳
역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느니
가슴에 칼을 맞고 결전에 쓰러져
민족의 넋을 지켜온 인민이었다

공포로 량반들 살구멍찾을 때
강토를 지켜 선혈 뿌리며
전장에 뛰어들던 인민이었다

오, 조선을 안고
혈전에 쓰러진 그네들의 웨침소리
흘러간 세월속에 묻혔어도
조국앞에 절개지킨 인민의 넋은
세월의 락엽속에 묻히지 않았거니

생각하노라
나의 심장, 나의 총창은
오늘의 락원과 풍만한 강토만
지키는것이 아니구나

일일천추
선조들이 갈망하던
자유의 이 강산과 함께
오, 이 나라 애국의 력사도
병사, 내가 지키는것이구나

가사

축복받은 사랑

김영근

해빛속에 밝게 웃는 신랑과 신부
벗들의 축복을 잊지 말아라
두 가슴에 함께 지닌 소중한 행복의 꿈
백년토록 꽃피라 청춘의 사랑

우등불 타던곳에 함께 부른 노래 있고
달빛어린 길우에는 꿈을 나눈 자옥 있네

로동속에 맺어진 귀중한 그 사랑
백년토록 꽃피라 조국의 기쁨으로

함께 바친 구슬땀은 눈비에도 식지 말고
서로 도와 걷는 자옥 들우에도 꽃피우라
두 심장 한뜻으로 한생토록 변함없이
해와 별 우러러 길이길이 만발하라

하나로 이어지는 마음

김정남

레사로이 흘러가는 생활에도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이야기들이 있다는것을 나는 이번 취재길에서 느끼었다.

내가 이번에 찾아간곳은 우리 나라 서부해안지대의 한 농촌마을이었다.

서부해안지대의 농촌마을들이 그러하듯이 이 농장마을도 앞으로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뒤로는 구름이 저서 물결쳐나간 마치나도 락타등 같은 산봉우리들이 바라보이는 마을이었다.

나는 군소재지로 가는 차편이 있다고 하여 숙소에서 아침 일찍 관리위원회로 나갔다. 애초에 나는 차를 타고 군소재지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이 마을에서 군소재지까지는 10리길이 못되는 길이여서 걸기로 했던것이다.

관리위원회 앞마당에는 《승리58》형 배스가 발동을 건채 서있었다. 군소재지에서 농촌리로 다니는 배스였다. 나는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배스가 이 마을로 달려왔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관리위원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배스가 오게 된 사연을 알려주었다.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에 프락포르를 접수하러 가는 운전수들을 태워가기 위해 온 배스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나를 바라보던 관리위원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들도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프락포르를 새로 준다고 해도 몇대밖에 차례지려니 했는데 글썄 프락포르를 접수해올 운전수들을 한배스 태워보내게 됐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운전수들을 양성해놓았기에망정이지 프락포르를 받아다 놓고도 세워놓을번했습니다.》

관리위원장은 배스에 오르는 운전수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정말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 로동계급이 이번에 그렇게 많은 프락포르를 생산하여 보내주리라고는 미처 생각못했지요. 이제는 우리 농장도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도 농사를 기계로 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프락포르를 접수하려고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으로 가고있는 운전수들과 함께 배스를 타고 군소재지로 가면서 깊어지는 생각에서 헤어날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 로동계급이 많은 프락포르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수 있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한작업반에 여러대씩 차례지게 된 프락포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가까운 앞날에 프락포르 대수를 빨리 늘여 작업반마다에 여러대씩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이 농장의 작업반마다에 프락포르가 여러대씩 차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마당에 배스가 멈춰선후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이미 실현된 조건에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프락포르와 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넓은 마당에 줄지어선 배스들마다에는 프락포르를 받으러 가는 운전수들이 타고있었다. 내가 머물렀던 농장에서만이 많은 프락포르를 받게 된 줄로 생각하였던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군의 모든 농장들에서 똑같이 프락포르를 받으러 가는것이였다.

배스에 타고있는 운전수들의 얼굴에도 대렬지휘를 담당한 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 넘쳐나고있는 미소는 온 군의 모든 농장들이 일시에 프락포르를 받아오게 되었다는 기쁨만이 아닐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그 미소에는 프락포르공장 로동계급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어려있다는것을 느끼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 넓은 경영위원회 마당에 배기가스를 남겨놓고 떠나가는 배스를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 얼마전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에서 받아안았던 가슴뜨거운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바로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 전체 로동자들이 아침에 결기모임을 가진 날이였다.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 로동계급이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을 찾으시여 책임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프락포르생산을 더 늘일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이곳 로동계급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일하고있는 작

업장의 온도가 떨어진것을 헤아려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한겨울작업장의 온도가 좀 떨어져도 그것은 의례 있을수 있는 범상한 일로 여기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의 온도를 헤아려보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것이였다. 금성트락토르종합공장 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한없는 사랑에 트락토르생산으로 보답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거리가 들썩하게 출근시위를 하고 쫓기모임을 가진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금성트락토르종합공장 로동계급들, 금성트락토르종합공장 로동계급은 우리 나라 농촌에 더 많은 트락토르를 생산하여 보내줌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를 실현할수 있다는 하나의 마음속에 언

제나 심장이 고동치고있기에 지난날에는 혁명적 열정을 안고 트락토르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고 오늘도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트락토르생산에 펼쳐나선것이였다.

기계바다가 펼쳐진 넓은 시운전마당에도 출하장에도 파란 락크칠을 한 트락토르들이 줄지어 달려가고있었다....

금성트락토르종합공장에서 받아안았던 그날의 가슴뜨거운 일을 돌이켜본 나의 생각은 한뼘으로 흘러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있어 로동계급의 마음과 농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것이다.

나는 기계로 흥겹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 봄빛이 짙어가는 대지를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축복의 인사

-일본방문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의 나날에-

손승래

막은 벌써 몇차례 여닫겼는가
극장안이 떠나갈듯
그칠줄 모르는 박수소리
한번만 그 얼굴 다시 보자고
귀여운 우리 꼬마배우들을 불러내는 소리

무대우의 어느 종목이라
그저는 넘기기 아쉬워
오래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쉬이 아니 놓아준 관중들

얼마나 포근히 감싸주었던가
열석줄 가야금이 울리는 맑은 소리
신비로운 단소의 질은 정서
시름겨운 그들의 마음속에
우짚는 종다리 노래로
넘치는 꽃향기로

마치 황홀한 꿈세계에 잠긴듯
그들은 시종 흥분을 누잡하지 못했다
흥겨운 춤가락에 비끼 아름다운 동심에 젖어
샘물처럼 맑은 노래소리에 취하여

뛰어난 재능
높은 기교에 탄복해서만이던가
자기 아이들은 감히 세울수 없는

하나같이 깨끗하고 림름한 모습

얼굴에 함뿔 어린 밝은 웃음과
레절바른 단정한 몸가짐에서
그들은 보았어라
백두의 흰눈처럼 때묻지 않은 깨끗한 녀
어디에도 숙여들지 않을 높은 존엄을

선률도 제것, 장단도 제것
제것을 귀중히 향기롭게 가꾸며
세상에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그 위대한 손길아래 더욱 빛날
조선의 훌륭한 앞날을

막은 이미 내린지 오래여도
우리 아이들이 부러워
부러워 차마 자리를 일지 못하고
극장안이 떠나갈듯 보내는
저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

그것은 정녕 사심없는 마음으로
미래에 살 주인들
그 주인들을 새세계의 얼굴로 자랑스레 키우신분
아, 위대한 수령님께 인류가 올리는
뜨거운 인사, 축복의 환호여라

고요한 한낮에

박철

《격전》이 지나간 바다가
고요한 한낮의 철참
돌격대총각 단잠을 자는듯
방금 마감막이를 끝낸 긴 제방
베개로 삼고

새땅이 보고싶어
땅을 거닐다
그만이야 흙냄새에 취했는가
밭치아랜
행복에 겨운 잠투정에 밀어놓은 이불인양
무연한 간석지벌

언제였던가 고난에 찼던 그 나날은
해풍에 그슬은 얼굴에
밝게 피어나는 미소
머리말엔
승리자를 축복하는 자장가인양
출렁이는 흰물결

아, 조국의 옥토를
날바다 한가운데 펼쳐놓은 청춘
단꿈을 꾀다
간석지 새땅에서 쏟아질 행복
그 크나큰 요람에 누워

금 지

문선건

용해공은 세상이 다 아는 직업
조피공은 많은 사람 알지 못하는 직업
친구들은 허물없이 말하더라
이왕이면 용해공을 하라고

나는 생각하였노라
용해공이 아버지라면
조피공은 어머니

두 마음이 하나로 합쳐야
좋은 강피가 쏟아져나온다는것을

사람들이여
나라에 장한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되지 못한것을 후회하는
세상에 그런 어머니 있었던가

노래와 함께 사는 의미

강선규

나는 요즘처럼 노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것 같다.

노래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왜 노래를 부르는가?

본래 음악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동과정에서 나와 생활속에서 발전하여온, 인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하기에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직해할만큼 심한 음치인 나도 즐겁고 흥겨울 때면 풍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곤했다.

물론 꼭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의무성은 없다. 잘 부르는 사람에게는 가깝고 부를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지 않을것이라고 지금까지 나는 생각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온 나라 텔레비존시청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근로자들의 노래경연》을 보고 나의 노래에 대한 관점은 허물어져버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불리워지고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며 그들을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서부지구근로자들의 노래경연이 방영되던 어느 날이었다. 텔레비존화면에는 뜻밖에도 탄광청년 합숙시절에 나와 한호동에서 생활한 처녀(지금은 서른이 훨씬 넘은 아주머니이다.)가 나타났다.

(아니?!...)

텔레비존화면에서 노래부르는 그를 본다는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믐밤에 달이 떴다는것과 같은 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몇해전의 저녁에 있던 합숙오락회 장면이 떠올랐다..

한창 고조를 이루었던 오락회가 갑자기 흥이 깨졌다. 지명을 받은 3명 콘베아운전공처녀가 까투리처럼 동무들속에 머리를 틀어박고 종시 일어나지 않았던것이다. 모두의 성화에 할수없이 몸을 일으켰으나 모기소리만큼 약하게 분명치 못한 선물을 뽑더니 얼굴을 싸쥐고 폴짝 주저앉았다.

(저 동무도 나처럼 음치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시뚱해서 불협화음을 연발하면서까지 목청을 돋구지 않았는가. 물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웃음발속에서...

종시 그 처녀는 그날 오락회에서 다시 나서보지 못했었다.

세월은 흘러 그때의 일도 이제는 망각속에 사라졌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사람들앞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노래부르는 그때의 그 처녀를 텔레비존에서 다시 보게 될줄이야!...

노래와 함께 그는 몰라보게 자라났던것이다.

그리고 보면 노래- 그것은 결코 불려도 되고 안불려도 되는 그런것이 아니였다.

그렇다. 예술- 그것은 인간의 재능이라고만 볼수 없는 보다 숭고한것의 표현이다. 예술적기량- 그것은 재능이기전에 우선 자주적인간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한 부분인것이다.

노래경연참가자들은 환희에 넘쳐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당이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인간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참으로 문학예술을 대중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체모를 더욱 완성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기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원대한 구상은 오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노래, 노래와 함께 사는 우리 생활의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꽃피는 군민일치

박창민

집집의 창문들에 하나둘 불빛이 흐르기 시작하는 저녁.

방금 농촌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존앞에 마주앉았다.

화면가득 모내기로 들끓는 농장벌이 펼쳐졌다.

봄바람에 펄펄 휘날리는 오색기발, 드넓은 벌에 푸른 옷을 입혀가는 모내는 기계들, 들에 넘치는 선동방송... 사람들 모두가 성수가 났다. 그 들속에는 인민군 군인들도 있다.

즐겁게 웃으며 일하는 농장원들과 병사들의 모습은 마치 다정한 한집안식구들 같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오늘 낮에 농장벌에서 목격한 일들이 떠올랐다.

모내기 실참에 농장관리위원장과 한창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삽을 멘 농장기사장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말하였다.

《군대동무들하구 또 <싸움>이 벌어져 겨우 말리고 읍니다.》

기사장의 말이였다.

(아니, 군대들하구 《싸움》을 하다니?!)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말하자면 <좋은 싸움> 이지요.》

(《좋은 싸움》이라니?...)

기사장은 흥겨운 물길공사장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지금 농장에서는 물길공사를 하고있다.

그런데 인민군구분대에서도 자기들에게 공사구간을 맡겨달라고 하였다.

농장에서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는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세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구분대에서는 정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구분대앞으로 흐르게 되는 물길구간을 《위수구역》으로 정하고 군인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던것이다.

농사야 우리가 주인이니 농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민군대가 인민을 도와주는거야 응당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농장에서 한다거니, 구분대에서 한다거니 하며 서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다는것이였다.

듣고보니 정말 가슴 찡한 일이 아닌가.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물었다.

《끝내는 하나로 결정짓고말았답니다.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하기로. 저길 보십시오. 지금 농장원들과 군인들이 한데 어울려 성수가 나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런 《다툼》이야 백번천번한들 어떠랴. 저런 일이 많을수록 군대와 인민이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되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여야 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다.》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은 우리 군대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런 일뿐아니라 농장에서는 구분대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하고 또 구분대는 구분대대로 의견이 있기에 때때로 《의견상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의견상이》라니, 무엇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는단말인가?) 나는 의문이 실린 눈길로 관리위원장을 쳐다보았다.

관리위원장은 그 내용을 말해주었다.

며칠전 일만 해도 그렇다. 때아닌 무더기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동쪽이 터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 지나가던 세명의 병사가 물에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동쪽을 구원하였다.

터져나오는 물구멍을 가슴으로 막는 병사들의 눈앞에는 어린시절 잠자리를 잡으며 뛰놀던 고향의 동쪽이 떠올랐다.

가슴속에 넘쳐나는 고향에 대한 사랑은 낯선 고장의 동쪽과 그리운 고향의 동쪽을 하나로 합쳐주었다.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농장원들은 고마움을 금할수 없어 그들에게 주소와 이름을 물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우리아 인민군대가 아닙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농장에서는 군대동무들이 성의를 너무도 무시한다고 구분대에 섭섭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구분대에서도 농장에 자주 의견을 제기하고있다.

농장에서는 군인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그들을 친자식처럼 살뜰히 보살펴주고있다.

병사들이 고향생각이 날세라 풋강냉이며 울사과도 따가지고 구분대에 찾아가고 부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농기구도 보내주고...

그때마다 구분대에서는 인민들에게 폐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다른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기해왔다.

듣고보니 좋은 의견이었다. 이거야말로 군민일치의 뜨거운 정이 아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자기들이 말아하겠다고 하여 《의견상이》가 생기고 군대명절을 맞으며 양수기를 고쳐준 병사들에게 편지를 해야 하는데 우편대호를 몰라 처녀들이 속상해하고...

영예가 차례지면 서로서로 양보하기때문에 부모라고 생각하면 농장원들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할수 있겠는가고 노여워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병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수 있겠는가고 섭섭해하고...

참으로 들을수록 군민의 뜨거운 정 가슴가득 흘러들어 눈시울이 후터워졌다.

한나절밖에 안되는 이 짧은 시간에도 나는 한집안식구처럼 뜨거운 혈육의 정이 오고가는 화목한 군대와 인민을 보았다.

진심으로 우리나라오는 그 뜨거운 정이야말로 끊을래야 끊을수가 없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사이에 혈육처럼 오고가는 순결한 사랑의 감정, 날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공고해지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붉게 피워주신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꽃!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피어린 항일혈전의 불길속에서 붉게 피운 군민일치!

산에 들에 피는 자연의 꽃은 계절에만 피지만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꽃은 사시절 지지 않고 계속 붉게 핀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은 미제를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더욱 높이 발양되었다.

하기에 이 나라 그 어디에 가도 군민이 힘을

합쳐 조국을 지겨낸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저기 고성땅에 가면 피로써 인민군전사들을 원호한 슬기로운 남강마을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 절승경개로 자랑높은 금강에 가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인민군전사들을 원호한 세동서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 직동령을 넘어가면 오늘도 마음속에 들려오는 전선원호의 방아소리!...

군대는 목숨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인민은 군대를 사랑하고 정성껏 돕는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

그들은 하나의 목적과 리상속에 한마음한뜻으로 단합된 혁명의 한가정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길에서도 한마음,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도 한마음, 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싸움의 길에서도 한마음이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뜨겁게 오고가는 혈육의 정속에 군민의 정 깊어가고 조국의 방선은 나날이 철벽으로 다져진다.

굳게 단합된 군민의 이 힘을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인민은 인민군대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성의껏 원호하는것을 도리로,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목숨바쳐 보위하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기는 혈연적관계속에 오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온 사회에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텔레비죤에 나오는 저 병사들, 어쩌면 오늘 내가 본 병사들의 모습과 꼭같은가.

잠시후 텔레비죤에서는 너배우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시내가에 버들꽃 피어나는 봄날

처녀들이 모여서 속삭이였네

양수기를 고쳐준 그 병사에게

군대명절 맞으며 편지를 쓰자

그렇지만 어디로 쓸가 아이 속상해

우편대호 몰라서 아이 속상해...

어쩌면 저 처녀는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렇게도 실감있게 노래에 담고있는가.

(저 처녀가 사는 고장에서도 꼭같은 일이 있었군.)

나는 혼자 즐겁게 웃었다.

처녀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꽃피는 군민일치를...

대학생아, 너를 쳐다본다 외 1 편

김철

나에게 굳이 자리를 내어주고
달리는 열차의 의자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선 대학생 젊은이
다시 책읽기에 여념이 없는
너를 내 조용히 쳐다본다

흰칠한 키
꼭 다문 입모습
지성과 정열이 내비친 얼굴에
근면과 겸손을 함께 갖추어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차창밖은 봄
너도 바야흐로 삶의 청춘기...
네 꿈이 가닿는곳 어디이기에
눈동자는 그리도 그윽한것이나

차는 달리고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내려야 할 역도 가까웠건만
나는 어째서인지

너와 함께 더 먼길 가고싶어지는구나
가고싶어지는구나
가고싶어지는구나
너와 길동무하여
90년대로! 2000년대로!

아, 피로 지킨 땅
땀을 뿌린 땅
선렬들의 한생이 바쳐진 땅에
네가 마중가는 창창한 미래

그 하늘의 빛발이
너의 온몸을 감싸고있기에
대학생아
내 너를 이렇게 쳐다보는것이다

조국이 또한 너를
기대와 믿음과 애무를 담아
지켜보는것이다
지켜보는것이다

가고가는 길우에

가고가는 길우에 날은 저물고
가고가는 길우에 노래는 깨어나네
힘겨우나 환희로운 시문학이여
너는 언제 어디서 끝이 나는가

옛사람은 말했더라
시 짓는 일 자기에겐 하나의 병이라고
허나 내게 있어서는
호흡과도 같은것, 생존과도 같은것
그와 헤어질 때에 나는 죽는것

누가 내게 주는가, 이 숨결을
원하노니, 나의 시여
한시도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자
우리의 젓줄인
생활과 시대와 그의 지향과...

가고가는 길우에 날은 다시 밝고
가고가는 길우에 노래는 이어지네
기쁨이며 보람인 시문학이여
너는 언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평범한 로인

1

힘한 산발들에 빙 둘러싸인 석암마을은 어찌 보면 커다란 함지안에 들어앉은것 같기도 하였다. 이 크지 않은 마을을 아슬하니 치솟은 부전령이 굽어보고있었다. 어른이 귀여운 아이들을 지켜 보는것처럼.

날이 밝자 마을은 젖빛같은 안개를 소리없이 밀어치우며 청신한 아침을 불려들이었다.

나는 작업반을 책임진 사람의 관습대로 일찌감치 집을 나서 작업반실로 향했다. 신선한 아침공기가 폐부속으로 스며들며 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다. 한것은 요즘 음악공부에 더욱 성수가 난 딸애 명옥의 귀여운 모습이 대견스레 떠오른탓인지도 모른다. 어제밤 딸애의 담임선생이 찾아와 아이를 음악대학에 보내는 문제에 동의해주었다. 멀지 않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딸을 두고 가뜩이나 생각이 많아지던터이라 나는 넘쳐나는 행복감으로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안해의 마음도 다들바없었다. 집안에 자식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여서 딸이라면 오금도 못퍼는 안해인 것이다. 그동안 담임선생은 아이의 수준으로 보아 대학에까지는 어딘가 내키지 않아하면서 농장 일꾼들이 벌써부터 농장예술포조성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을 해왔었는데 마침내 안해의 성화같은 요구에 응해준것이였다.

산굽이를 돌아서니 외파로 떨어진 변재만로인의 집이 눈에 띄었다.

(로인내외에게도 알려드렸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보다도 명옥이를 귀여워하는 그들 내외였다.

변로인으로 말하면 나이가 많아 부대로력으로 일하는지 오랬지만 산골농사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는 석암마을의 좌상이다. 우리 집과는 해방전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남다른 인연이 있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후 내가 전선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부모들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로인은 나를 각근히 맞이하여 보살펴주었으며 나 역시 로인을 그만큼 따르고 존경하였다. 자식이라곤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로인의 아들이 나와 함께 전선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나를 볼 때마다 아들생각으로 가슴이 미여지련만은 이따금 안로인 김씨가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짙어낼뿐 변로인은 아무런 티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럴수록 나는 속깊은 로인의 마음이 더 뜨겁게 안

현설

겨와 어떻게 하면 잘 위해드릴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 줄 모른다. 그런 연고로 해서인지 명옥이에 대한 로인내외의 정은 각별하였다. 아마도 딸애는 제어머니보다 김씨의 굽혀진 등에 더 많이 업혔을것이며 나보다 변로인의 투박한 손이 쓰다듬어주는 애무를 더 많이 받았을것이다. 그러한 로인내외에게 명옥이 소식을 알리면 얼마나 대견해할가...

지척을 흐르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 계곡을 들부시며 발부리에 튕겨오른다.

변로인의 집이 점점 가까와졌다. 뒤뜰의 살구나무, 추리나무가 무성한 아지를 드리운탓으로 하얗게 회칠을 한 두칸짜리 기와집이 더욱 정갈해보였다.

내가 바깥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안로인 김씨의 청높은 목소리가 프락안에서 터져나왔다.

《아니 여보,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일일까?)

지금껏 나의 가슴속에 가득했던 즐거움이 일시에 사라졌다.

나는 뜨아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성미가 팔팔한 김씨가 구정물버치를 든채 날더러 응원을 청하듯이 떠들썩 푸념을 해냈다. .

《명옥이 애비, 저 령감 하는 일을 좀 보라구. 글세 채 여물지도 않은 감자를...》

《?...》

나는 금시에 땡해졌다. 우물길로 통하는 울타리 너머편의 터밭머리에서 얼씬거리고있는 변로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로인은 김씨가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밭고랑을 타고앉아 그대로 감자포기들을 뽑아던질뿐이었다. 나의 눈에는 의혹의 빛이 차올랐다. 김씨의 사실은 계속되었다.

《하, 이거 너무 이리저리 마십시오. 남이 들겠습니니다.》

나는 어망결에 끼여들었다. 변로인이 나를 흘끔 쳐다보다 말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원 로친네도... 감자장을 지지는데는 채 여물지 않은편이 더 낫다는것도 모르는가보지.》

나는 비로소 로인의 의도가 짐작되었다. 감자가 지내 여문것으로 장을 지지면 복닥하니 풀어져 오히려 맛을 떨어준다고 언제인가 안해가 하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아쉬워하는 마음도 이해하셔야지요. 애지중지 가꾼것인데.》

나는 김씨의 기분을 녹차혀볼겸 좋도록 편역을

들어주었다. 그래도 김씨는 혀를 끝끝 차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로인이 나에게 낯을 돌렸다.

《여보게 영식이.》

이 부름은 류별난 친숙감으로 나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마을에서 이렇게 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사람은 변로인 하나뿐인것이다. 모두들 《반장》, 《명옥이 아버지》라고 했으나 변로인만은 아이적에 부르던것처럼 정답게 이름을 불러주곤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서인지 친부모가 부르는것 같은 애뜻한련민의 정을 맛보기까지 한다.

《임자 요새 노루굴에 가보군할테지?》

《노루굴이요?》

반문하는 나의 머리에는 로인이 지금 때이르게 감자밭에 손을 대고있는 까닭이 대뜸 짐작되었다. 노루굴어구에서 풀베기전투를 벌리고있는 작업반원들을 위해 첫물 감자장맛을 보여주자는 의도가 아닐가?... 나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요즘은 노상 그곳에 붙어살다싶이 하는걸요.》

《음...》

《올해따라 풀이 참 실하게 자랐습시다.》

나는 터밭머리에 그득 캐놓은 감자알들에 이윽히 눈길을 떨구며 로인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말없이 담배를 꺼내어 권했다. 빼금빼금 담배를 빨기 시작하는 로인의 몸에서 흙냄새같은것이 구수하게 풍기였다. 한생을 땅에 묻혀살면서 밭을 다루고 거름을 주물러온 오랜 농사군의 체취였다. 밭이랑을 벗삼아 거름더미를 안고 먹씨름하며 땅과 함께 숨쉬여온 로인, 오랜 세월의 풍상고초를 다 말해주는 이마의 주름살들, 이제는 눈섭에까지 흰서리가 보인다. 총이 센 눈섭은 로인의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는듯싶다. 나의 눈길은 류별나게 큰 로인의 손에 머물렀다. 그 손은 평생을 돌에 할퀴우고 풀에 쓸리운 로인의 지난날을 말해주는것 같았다.

원래 변로인의 고향은 황해도의 어느 벌방이었는데 지주놈의 등살에 못이겨 살길을 찾아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주저앉은곳이 바로 이 석암마을이었다. 일밖에 모르는 부지런한 로인이었지만 한가정의 운명을 이끌어가기엔 세월이 너무도 모질었었다. 새 자식중 두 아들을 굶겨죽이고 더는 갈데가 없어 풀뿌리로 목숨을 부지해오다가 해방을 맞았었다. 아직도 나는 땅을 주신 장군님의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첫해농사를 지어놓고 목메여하던 로인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옛말에 흥부가 박을 켜서 잘살았다더니 장군님께서 오늘 그 박을 우리에게 켜주셨구만... 장군님... 고맙습시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철부지였던 나는 어느덧 고등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가진 아

버지로 되었으며 장정이었던 로인은 백발이 성성해졌다. 그는 마을에서 첫시기 당원의 한사람이기도 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아들마저 전사한 그무렵부터였던지 가뜩이나 말주변이 없던 로인은 더 입이 무거워졌다. 오직 로동으로 대답하고 로동으로 보답해오는것과도 같았다. 농장일에서는 누구에게 짝지 않으면서도 연단이나 주석단같은데 나서본 일이 없었다.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된적도 물론 없었다. 구태여 찾아본다면 마을 속보판에 이름이 나붙은것이 고작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농장일을 《졸업》한지 오랜 지금도 일손만을 놓을 줄 모르고 한본새로 오금을 놀리고있다.

나는 그러는 로인네더러 보다 편안히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해주고싶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다시 일었다. 관리위원회와 리당일꾼들로부터 잘 도와줄데 대해 자주 귀뜸을 받곤하던 일도 새삼스레 떠올랐다.

내가 이런 생각에 젖어있을 때 머리우의 호박손이 갑자기 와스스 소리를 지르며 선 자리에서 몸부림쳤다. 동실한 호박이 넝쿨채 아지에서 미끄러져내리다가 허공에 걸려 데롱거리였다. 제때에 새끼줄로 호박손에 비끄러매주지 못한탓이었다. 로인네를 도와준다는게 마음뿐이지 하다못해 호박손같은 하찮은 치닥거리에서마저 빈구석이 있는것이 아닌가, 허공에서 데롱거리는 그 호박은 마치 나를 나무라며 금시 땅으로 떨어질것처럼 보였다.

나는 서둘러 사다리를 가져다놓고 호박손에 올라갔다. 이리저리 새끼를 둘러감아 호박을 아지에 걸매는 나의 일손은 민첩하지 못했다. 되는데로 뒤엎킨 호박넝쿨들을 처리해놓고 내려온 다음에야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명옥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아까 집을 나설 때 품었던 큰 시름을 가신듯한 가벼운 마음이 못되었다.

이윽고 나는 작업반실로 가는 큰길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걸음 못가서 다시 주춤 서버렸다. 또다시 김씨의 말소리가 울려나왔기때문이었다.

《령감! 안에서는 그런다치더라도 밖에 나가선 제발 삼가할건 삼가하랴구요... 예구 원...》

나는 되돌아가 만류하고싶었지만 왜서인지 못박힌채 움직여지지 않았다. 자식들을 죄 앞세우고 내외간만이 남은 저들, 저물어가는 인생말년에 더욱더 정을 두터이 하며 살아가야 할 저들 내외가 아닌가... 하긴 변로인이 지금에 와서 그답지 않게 잔소리가 느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는 그의 지청구를 달가와하지 않으며 아낙네들속에서까지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없지 않은것 같다.

밖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까지 저렇게?...

나는 어딘가 모를 서운한 생각에 다시금 휩싸였다. 마음 무거운 걸음을 옮기려니 문득 지난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2

…부전령꼭대기에는 아직도 눈옹덩이들이 희끗거렸지만 마을에는 봄빛이 완연했었다. 나무아지마다 봄물이 어리고 진달래꽃망울에도 통통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봄을 맞아 약동하는것은 자연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숨결은 자연보다 먼저 세차게 높뛰며 들끓고있었다. 온 나라가 새땅찾기와 다락발건설에 떨쳐나섰다. 우리 마을처럼 땅이 씨원치 못한 고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였다. 곡식을 심을만한곳이면 모조리 두지여 부침땅을 얻어내는 한편 비탈진 발뚱기들을 다스려 다락밭으로 만드는 판이었다. 농사차비도 함께 다그쳐나가야 했다.

그날도 나는 일부 장정로력들을 다락밭을 쌓는 일에 돌리고 나머지는 집집마다 장만해놓은 거름을 밭에 나르는 일에 붙이었다. 아침에 작업조작을 해놓은 다음 작업반장들의 방식상학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나도 곧바로 다락밭을 쌓는데로 갔다. 모두들 성수가 나서 기세 좋게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돌을 썩썩 받아쌓고있는 경찰이란 청년의 모습이 류달리 눈에 띄었다. 껌싸게 망치를 휘둘러 이쪽저쪽 아귀맞춰 돌을 처리해나가는 숨씨가 여간아니었다. 모두들 신바람이 난 가운데 돌을 나르던 한 처녀가 경찰이더러 들으라는 듯 시까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쌓는조에서 빨리 해줘야지 우린 놀고있어야겠어요.》

《뭐라구?...》

경찰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욱 세차게 망치를 휘두르며 손에 불이 달렸다.

나는 모든것이 만족하였다. 어느덧 일이 마감고비에 들어선것이다.

이때였다. 프락포르운전수인 고수머리청년이 얼굴이 시뻘개서 헐떡거리며 뛰어왔다. 양성소들 갓 졸업한 애송이운전수였는데 오늘은 집집의 거름을 밭으로 실어내도록 분공되어있었다.

《반장동지, 큰일났습시다! 글썄 재만할아버지가... 거름을 잔뜩 실은 프락포르를 막 붙잡아요!》

《붙잡다니?》

《거름이 잘 썩지 않았다는겁니다. 당장 부리우라고 야단이예요!》

《어느 집 거름이길래?...》

《...》

그는 까뻘히기가 딱한지 갑자기 머뭇거리었다. 나는 아연해졌다.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 집거름이었던것이다.

《무조건 안된다며 떡 버티고 서있는데 어떻게 할수가 있어야지요. 예참!》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칼에서는 단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나는 사람들앞에서 된장신을 당하는듯싶어 무슨 말을 더 붙일수가 없었다. 경찰이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끼어들었다.

《그 할아버지가 요샌 점점... 그저 늙으면 그렇게 져지니 해야지 어찌겠어요.》

《...》

이번에는 고수머리운전수가 툄들었다.

《늙으면 말이 많아지기마련이라더니 젠장...》

여기저기서 뒤소리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그들을 향해 나는 본의아닌 화를 더럭 더뜨렸다.

《무슨 말들이 이리 많소?... 운전수동문 냉큼 돌아가오!》

나는 서둘러 일손을 다시 잡았다. 모두들 슬금슬금 나를 따라나섰다. 이럴 때 경찰이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마침 재만할아버지가 오누만요.》

아닌게아니라 빈지계를 진 번로인이 작대기를 지팡이삼아 내저으며 덜썩덜썩 올라오고있었다. 로인의 걸음새는 류별난데가 있어서 멀리서도 인차 눈에 알리였다. 걸음이 느리면서도 밭을 옮길 때마다 별스레 온몸을 들썩들썩 추어주는듯싶은 특이한 걸음새였다.

《자 어서들 다그칩시다.》

나는 로인을 보지 못한채하고 일손만 놀리며 사람들을 부추겨냈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머리를 짓숙인채 돌을 나르고 섬기고 말뿐이었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로인 역시 작업장초입에 주춤 섰다 말고 묵묵히 일손을 잡는 기색이었다. 이런 힘겨운 일판에 그를 섞이게 할수가 없어 굳이 만류했다. 그러나 로인은 막무가내였다. 한동안 일손을 놀리던 로인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부리나케 돌을 쌓아가는 경찰이걸로 다가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로인은 방금 쌓은 돌 몇개를 말없이 허물어내더니 한 청년의 죄책을 던지시 뻔아들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지며 우뚝우뚝 서버렸다. 경찰은 무시당한것 같은 못마땅한 낯으로 로인앞에 성큼 마주섰다.

《왜 그러십니까?》

로인이 들은척도 않고 메질을 시작하자 참지 못하고 울끈 울리받쳤다.

《이 아바이가?...》

《경찰이!》 하고 나는 소리질러 놀려놓은 다음에야 로인이 혹처럼 뚝뚝히 빠져쳐나온 돌뿌리를 다스리려 하던참임을 알아보았다. 로인이 주근주근 타이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석, 일을 이런 본새로 하다가 후날에까지 영영 귀아픈소릴 들어야 돼.》

나는 낮이 뜨거워움을 이길수 없었다. 로인의

그 지청구는 경찰에게 하는 말이기전에 나를 나무라는 소리로 안겨왔다. 다락밭돌 쌓는 작업에 성수가 난 청년들의 기세가 대견스러운 너머지 꼼꼼하게 뒤를 살피주지 못했던 나였다.

어느덧 나의 머리에는 아까 거름문제로 생겼던 일까지 뒤엉켜 맴돌기 시작하였다.

어수선했던 가운데 돌쌓기가 끝나버렸다. 청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떠들썩 고아치고 노래부르고 하며 마을쪽으로 내려가고있었다.

《영식이, 나 좀 보세나.》

드디어 로인이 나를 불러세우며 부실부실 담배를 붙여물었다.

《거름문제 말씀이지요?》

《거름도 거름이지만 아무래도 임자가 썩 잘하는것 같질 못해.》

로인은 울대뼈를 불끈거리며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다시 말을 달았다.

《젊은너석들을 그저 잘한다잘한다하며 어깨만 두드려주어선 못쓰네. 신발을 단단히 신겨야 할게 아닌가.》

나는 잠자코 수궁할뿐 대답할 말을 고르려 하지않았다. 옳은 말이었던것이다.

그런데 문득 다른 마음이 움직였다. 로인이 주는 충고는 충고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평소부터 로인에게 하고싶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나는 담배를 돌에 비벼끄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까 거름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간지하지 못한 탓이었나봅니다.…. 그런데 아버님, 우리 집 일에 대해서야 아무려면 뭐라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삼갈건 좀 삼가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릴?...》

로인은 금시 눈이 콧꽃해졌다. 이마의 주름살들이 실룩거렸다. 내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이지만 리해되지 않는 모양이다. 로인이 사람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외궂으로만 달아나며 고집스러워지는 양을 느껴오는 나였다. 한생울 땅에 묻혀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로인네가 이제 와서 뒤소리를 듣는것이 못내 가슴이 알찌근하였다. 침묵이 흘렀다. 두리에는 구수한 흙냄새만이 물씬물씬 풍겼다.

《아버님, 그렇지 않아도 두루 말들이 많단말입니다.》 하고 툭 빠개놓으려는데 뜻밖에도 로인이 다른 말을 끄집어냈다.

《명옥이 그 애가 노래재간이 여간 아니라면서?》

나는 어느새 명옥이와 안해의 모습이 그려지며 마음이 풀어졌다. 그러나 걸다르고 속다르게 대꾸했다.

《촌에서 자란것이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 개천에서 룡난다는 말도 있을라니... 이 좋은 세월에 우리 석암골이라고 가수가 못날까

않은 뵈고.》

로인은 자못 대견해하며 울창한 산림우에 펼쳐진 푸른 하늘에 은은한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그랬던 로인이 오늘은 난데없이 터발의 감자를 뽑고있던것을 생각할 때 아까 첫 순간에 느꼈던 그 호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가 역성을 쓰던 그 푸념의 소리만이 뇌리를 치며 되살아났다.

《...령감! 안에서는 그런다치더라도 밖에 나가선 제발 고집불통소릴랑 듣지 말라구요!...》

3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나는 풀베기전투장에 온종일 붙어있었다. 해가 떨어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다가 변로인집에 잠깐 들리기로 하였다.

뜨락가의 발머리에 이르자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못박혀버렸다.

(아니?!...)

엇그제 감자포기들을 뽑아치우던 바로 그자리, 담장밑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치 터발 한쪽머리까지 썩 베어버린것처럼 행해진 그곳에 난데없는 풀거름더미가 생겨나기 시작한것이 아닌가.

나는 스무평밖에 안되는 터발머리 한쪽구석에 까지 거만하게 침범한 두개의 풀더미앞에 그대로 잠시 서있었다. 저편의 돼지우리에서 무심한 집짐승이 저녁물을 달라고 꿀꿀거리고있었다. 그 소리에 꼬드김을 받기라도 했는지 김씨가 돼지물 바께쓰를 들고 나오다가 나를 알아보았다.

《명옥 애비왔구만, 그렇지 않아도 내 아까... 글세 우리 령감이 해놓은 일을 좀 보라구.》

그는 바께쓰를 땅에 내려놓으며 화해할수 없는 나무람을 담아 속에 엉킨것을 마구 쏟아놓았다.

나는 일부터 설레발을 쳐서라도 그를 가라앉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색시적엔 시어머니역정에 개열구리나 찻겠습니까? 오늘은 아버님 푸념에 돼지저녁 굶기려 그러십니까? 허허...》

나는 바께쓰를 성큼 들고 바가지로 돼지물을 휘휘저어 구유안에 퍼넣기 시작했다. 돼지는 살이 피둥피둥졌고 허리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했다.

《꽤나 잘먹었는데요.》

《령감이 공들인건 눈곱재기만큼도 없네.》

성을 삭이지 못해하는 김씨를 따라 나는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부엌밖에 걸어놓은 판가마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풍기고있었다. 김씨는 오이랭국을 풀려는지 싱싱한 오이를 칼도마에 놓고 부지런히 칼질을 했다. 나는 변로인이 보이지 않아 무심중 물었다.

《어디 가셨는가요?》

《뻔하지 않나, 물지게밖에 모르는 두상인걸...》

내가 대문밖에 나서서 이윽히 인기척을 떠보고 있노라니 김씨도 뒤쫓아나왔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아버님을 술술 구슬리십시오.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자들손탁에서야 양처럼 순해지는게 우리 남자들인걸요.》

《그 령감소린 하지도 말게. 젊어선들 언제 한번 곰살갑게 대해준적이 있었던줄 아나? 내 치마를 두르고 태어나지만 않았던들...》

《모를 말씀입니다. 왜정때 저기 노루풀 막바지에서 김을 딸 때는 물구지 한바가지에 낫술갈 하나를 담아가지고 허기진 속에서도 여간 깨가 쏟아지지 않았던데요. 허허...》

《자네가 그 소릴 어떻게?... 내 그때 송기를 벗긴다, 산나물을 뜯는다, 그러다 못해 풀뿌린들 작게 썰다구... 물구지이야기가 났으니말이지 풀뿌리치고는 그이상 없더구만. 가마가 넘치게 캐여다넣은 다음 온하루 불을 지펴삶고 졸이고 하면 팔죽하게 우려나서 진범벅처럼 엉켜버리지. 달짝지근하면서도 목이 아려 단번에는 먹어낼수가 없네. 가랑이를 덮은채 발고랑에 놓인 물구지바가지는 김군들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옮겨지는 판이었지. 그러니 손가락이야 하나면 되지 들썩 놓을 필요가 있었을라구...》

《그래서 너 한술 나 한술이었구만요.》

나의 목소리는 어딘가 맥적게 울렸다. 짜질듯이 가난한 그속에서도 눈물겹도록 정을 합쳐 고통을 이겨냈던 이들 내외이기에 인생도 저물어가는 이시절일수록 더욱 뜻이 맞게 보내도록 해주고싶은 내판의 런던이 떠올라서였다. 어떻게 하면 로인내외를 도와줄수 있을가... 더구나 로인네는 남과 같이 언제한번 호의호식을 해보거나 이름이 나가거나 큰 사업을 해보지도 못했고 이렇다할 락을 보지도 못했다. 늘그막에나마 때늦은 락을 보며 살아가도록 해드려야 할 의무를 지닌 나 자신이 아니었던가... 나는 도와주지 못하고있는 자책감으로 하여 낮이 화끈거렸다. 귀뚜라미소리가 초저녁의 어스름을 가르며 쓸쓸하게 들려왔다.

《아까 명옥 예미가 여간 좋아하질 않더구만.》

느닷없이 꺼내는 김씨의 말에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물구지이야기를 할 때와는 달리 한결 화기가 도는 그의 얼굴을 넌지시 마주보았다.

《가야금인가 하는걸 사다주니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지... 좋은 세월이야, 앞길이 구만리같은 그 애들까지 하필 이런 산골에 물어돌 까닭이 뭇고, 임자네 외동딸은 남의 집 열아들싸게 구실을 할가보네.》

《원 어머니두...》

나는 허구쁜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것은 안해가 그런 말을 꺼낼적마다 못하는 소리없다고 놀려놓곤하던 때와는 다른 목소리였다. 나는 저녁을 먹고 가라는 김씨의 말을 뒤에 남기며 집으로

향하였다. 저녁에 관리위원회에서 소집한 작업반장협의회에 가야 하는것이다.

내가 안뜨락을 벗어나려고 할 때 로인이 쑥을 한짐 걸머지고 다가오고있었다. 바지가랭이를 반쯤 걸어올린채 구부정하니 풀짐을 지고 오는 로인, 쑥집이 어찌나 컸던지 사람이 짐을 졌다기보다 짐이 사람을 안고오는것처럼 보였다.

《아버님, 이건 뭘 늦게까지 이렇게...》

나는 어망중에 로인이 내려놓은 풀지게를 붙잡아주며 되려 나무람조로 말했다. 로인은 어둠속에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풀거름으로야 쑥이상 좋은게 있을라구...》

물썩 코를 찌르는 구수한 쑥냄새, 그것은 풀지게에서가 아니라 로인의 몸에서 확 풍겨왔다.

《...?》

어느덧 나의 눈길은 터밭머리에 생겨나고있는 그 풀더미에 다시 날아갔다. 요전날 채 여물지 않은 감자포기들을 뽑고있던 로인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단지 감자장을 지져서 풀베기전투원들에게 맛보이려는 의도였을가... 의혹이 짙어가는 나의 눈길은 어둠속에서 더욱 갈팡질팡했다.

4

며칠후

나는 수리분조로 일을 보러 가다가 뜻밖에도 로인집마당가에서 늙은이내외가 우리밖으로 뛰쳐난 돼지를 붙잡노라고 법석여대는것을 보게 되었다.

숨이 하늘에 닿아 어쩔바를 모르던 김씨는 내가 뛰어가자 마침이란듯 헤덤벼쳤다.

《임자, 어서 저걸!》

《서로 뭉개기만 하지 말고 술술 몰아서 가뉘어야지요.》

나는 일부러 늦장을 부리듯 천천히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그제사 김씨도 숨을 녹잡히며 단전을 부리듯 말을 삼켰다.

《임자, 돼지우리가 어디로 이사하는지 아나?》

《이사라니요? 》

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릴수 없었다.

이때 변로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보게, 저놈이 또 달아나네!》

나는 열걸에 그놈을 뒤쫓아달려갔다. 그리고 애쓴 끝에야 겨우 삼면포위를 조여가지고 마당안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나는 김씨에게 대문을 닫으라고 이른 다음 굴뚝모퉁이에 기대여 썩썩거리고있는 돼지에게로 가만가만 다가갔다. 자세를 바짝 낮추고 재빨리 뒤다리를 붙들려는 순간, 위험을 느낀 그놈은 와지직 바자를 헤치고 터밭으로 뛰어들었다. 돼지는 뛰느라고 짓뭇개고 나는 붙잡느라고 밟아놓으니 얼마 남지 않았던

감자밭이 온통 짓이겨지는 판이었다.

《에이구, 아까운것이...》

김씨는 야속한 마음을 금치못해 연신 발을 구르다싶이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변로인은 새끼줄로 올라미를 만들어가지고 헐레벌떡 나를 뒤따르며 숨가쁘게 귀뺨한다.

《이사람, 뒤다리 하나만 잡아채라구!》

한창 볶아친 다음에야 우리는 마침내 뜻을 이룰수 있었다. 손을 씻고 담배를 붙이려던 나는 마당에 널려있는 판자쪽들이며 토방우에 놓인 여러가지 목수도구들에 눈이 미치었다.

《이건 뭇들인가요?》

김씨가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어 땀을 훔치며 령감대신 대답했다.

《이젠 감자농사를 그만두고 <돼지농사>를 한다네. 참 령감두...》

빈정대는듯한 말투였으나 전과는 달리 노여움이 아주 가셔진 그런 목소리였다.

뒤다리 한쪽을 묶이운 돼지가 끌끌거리며 로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까는 그렇게도 요동을 치며 곁을 안주었으나 정작 붙잡아놓으니 로인의 발치에 스스럼없이 다가와 연방 코를 벌름거리며 땅을 두저댄다. 로인이 돼지의 잔등을 벅벅 긁어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댔다.

《이놈이 기르던중 제일 무탈하거든, 먹성도 좋고 생기기도 잘했고...》

돼지를 두고 원심을 쓰는 빛이 보이자 김씨가 덩달아 맞장구를 치며 요구조건까지 내뱉었다.

《참, 거 손댄김에 구유까지 고쳐야겠수다. 좀 녀죽해야지 물을 줄 때 자꾸 한데 쏘곤해서...》

《아무래도 기동감이 뒤개는 더 있어야 할가 봐...》

변로인은 동문서답격으로 중얼거렸다. 엇서는듯 넘나드는 말마디속에 어딘지 모를 친숙감이 배젖아있는게 확인하였다. 나 역시 어설픈 안도감에 젖으며 입에 문 담배에 성냥을 그어댔다. 변로인의 친숙을 알게 되자 일전의 그 감자로 장을 지저 풀베기전투장에 찾아왔던 김씨의 걸음도 짐작할만했다. 나는 비로소 시름이 덜린 가벼운 마음으로 뜻도 없이 한마디했다.

《알다가도 모를것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변로인이 목수도구들을 주섬주섬 모아놓으며 속을 드러냈다.

《돼지우릴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네.》

《하나 더요?!》

나는 눈이 커졌다. 로인의 일손을 거들던 김씨가 끼여들었다.

《명옥이 애비, 그러다간 내가 목장장이 될가부네. 하하하...》

김씨는 자기성미대로 프락이 들썩하게 웃어댔

다.

변로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리었다. 옛정을 되살리고있는 늙은이들의 모습이 반가와나도 따라웃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목장에 들러 좋은 새끼돼지 두마리를 팔라 마대에 넣어 손달구지에 싣고 로인네 집으로 향했다. 노루골등성으로 보름달이 기웃이 머리를 내밀며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할수록 돼지를 많이 기르려는 로인의 의도가 다시 한번 마음에 들었다. 풀짐을 지고 산판을 오르내리는 힘겨운 일보다 집오래를 거두며 집집승이나 기르는것이 늙은이들에게는 아주 맞춤형 일거리이며 생활에도 보탬이 될게 아닌가. 그러니 뒤를 렸던 안로인의 마음이 풀어질만도 한일이다. 미리미리 관심을 돌려 이런 일거리를 주선해주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늘은 이렇게 새끼돼지를 가져다주고 래일쯤 안해에게 시켜 사료도 몇가마니 보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뒤따랐다.

나는 한걸음 늦게나마 무엇인가 값있는 일을 해드리는것 같은 안도감으로 하여 걸음이 가벼워졌다.

5

쉬는날을 타서 군에 다녀오던 나는 어스름이 깃들무렵에야 노루골뒤산등성이를 넘어설수 있었다. 썩바위가 등성등성한 골안막바지에 있는 감자밭머리에 거의 내려왔을 때였다. 난데없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혹시 착각이 아니였을가싶은 미심쩍은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다시한번 소리쳤다.

웬 그림자가 감자포기들을 스적스적 헤치며 나를 향해 걸어오고있었다. 뜻밖에도 변로인이었다. 채양이 쭈그러진 그의 모자에는 웬일인지 시뿌연 돌가루같은것이 한벌 덮여있었다.

《아버님이 어떻게?...》

《어딜 갔다 이렇게 늦었나?》

로인은 대답을 않고 오히려 되물었다.

《군엘 좀...》

《거긴 왜?》

나는 로인의 난데없는 거동에 의문을 품었던 방금전 같지 않게 어느새 낯색이 밝아졌다. 누구보다도 명옥이를 귀여워하며 정을 쏟아붓는 로인에게 기꺼이 알려줄 사연이 있는데서였다.

《아버님, 일이 잘될것 같습니다.》

《잘되다니?!...》

《명옥이문제말입니다.》

나는 딸애를 대학에 보내는 문제로 그 부문에

서 일을 보고있는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오는 걸음인것이다.

《너편네의 성화에 견딜수가 있어야지요. 집안에 자식이라곤 그것 하나뿐인데 뒤바라지를 단단히 해주어야겠다, 아이까지 산골에 파묻혀 살게 하겠는가 하고 입버릇처럼 뇌이군하는통에 말입니다.》

나는 안해에게 빗대며 갔던 사연을 기꺼이 털어놓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로인은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다. 《흐-음》 하고 한숨도 아니고 기침도 아닌 소리를 내더니 묵묵히 담배를 붙여물따름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잡자기 두리를 휘감았다. 로인의 담배불만이 더욱 빨개졌다. 그의 얼굴은 몹시도 굳어져보였다.

나는 의아해졌다. 아니, 선음식을 씹었을 때처럼 낫이 이그러졌다.

이윽고 로인은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수궁하는건지, 나무라는건지 모를 그런 소리로 중얼중얼 혼자말을 뇌이였다.

《음... 그 일로 해서 발걸음을 한단말이지?!...》
《?!...》

나는 멍하니 로인을 마주보기만 했다. 나무껍질처럼 거칠어보이는 그의 얼굴이 어둠속에서 실룩거리는것 같았다. 어색한 침묵이 또다시 꼬리를 물었다.

이윽고 로인은 움쭉 몸을 돌리였다. 발머리에 놓여있는 삼태기에 풀가루같은 허연가루를 담아가지고 감자발에 훌훌 뿌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대로 멍청히 로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시후에야 다가가었다.

《아버님!...》

로인을 부르는 나의 목소리는 이미 김이 빠져있었다. 로인은 한잠이나 나를 지켜보다 삼태기를 도로 놓고 허리를 폈다. 돌가루가 잔뜩 발린 그의 투박한 손가락들이 갑자기 추악스러워보였다. 마침내 로인이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게, 말 좀 해보자구, 지금 우리 농장에서 왜 난알을 더 내지 못하고 몇해째나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나? 땅이 쇠어버렸거든, 거름은 적게 주고 난알만 달라고 하니 그렇게 될수밖에... 농민의 도리를 떠난 뽕새란말일세...》

로인은 다시 담배를 붙여물며 그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담배불이 달아오를 때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드러나군했다.

《언젠가 방송을 들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땅의 지력을 높인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네. 나는 방송을 듣고 잠을 못이루었네. 우리가 농민된 본분을 다하지 못했지... 해방후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분여받고 목메여하던 그 마음을 잊었나보이. 백성된 도리도 농군의 의리도 다 멀어졌거든...》

로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머칠밤 생각을 뒤채이노라니 문득 머리에 스치는게 있질 않겠나. 그전에 황해남도에 있는 친척집에 갔을 때 본일이 떠오르더란말이네, 그 사람들이 마을 뒤산의 둔덕에서 좋은 <흙비료>를 파다가 소출을 높이고있는데...》

《<흙비료>라니요?》

나는 대뜸 짚이는것이 있어 얼른 되물었다.

《거 있지 않나? x... x... 몇인가 하는...》

《<x-6>말씀인가요? 잡지에랑 많이 났던...》

《흙요이! <x-6>... 이제는 차츰 까마중이가 돼가는지 온-》

로인은 말로는 멋적어하면서도 저으기 흐뭇해하는 기색이었다.

《x-6》이란 어느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찾아낸 그 지방의 특이한 흙인데 비료 못지않게 농사에서 큰 은을 낸다는것이다. 다른 지방들에서도 이미 그들의 경험을 적지 않게 도입하고있다는 소문도 들은바있는 나였다.

《아버님, 어디서 이걸?...》

로인은 지척에 있는 잡관목이 들성들성한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속담에 업은 아일 찾는다더니 이렇게 손바투 놔두고도 글썄... 아닌게아니라 그동안 신발깨나 닳아뜨렸는데 오늘에야 눈에 띄질 않겠나.》

희집스레한 석비레무지앞에 멈추어선 나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 험한 산발들을 수없이 오르내렸을 로인의 모습이 너무도 가슴후덥게 그려졌다.

나는 두손으로 그 흙을 듬뿍 담아쥐었다. 부근 부근 손맛이 좋은 그 흙은 맨손으로 비벼도 가루처럼 부스러졌다. 냄새 또한 송이발의 흙향기마냥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이것을 찾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로인은 어스름이 깃을 찢는것도 아랑곳않고 손수 발에다 뿌려보던 참이리라.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로인의 곁으로 달려가 말없이 그의 일손을 도왔다. 말없이 팔을 휘두르며 비료를 뿌려가는 로인, 이 땅을 다루며 한생을 바쳐왔으며 여생도 많지 않은 지금까지 땅을 더 잘 길구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이 령마루처럼 높아보였다. ...

얼마후 나는 로인의 뒤를 따라 묵묵히 산발을 내려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들썩들썩 몸을 움직이는 그의 특이한 걸음새는 여느날처럼 평범하였다. 해방직후 애국미를 바치러 갈 때에도, 전쟁시기 달밤에 두엄을 저나를 때에도, 협동조합의 첫 분배를 받아안고 돌아올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던 그 걸음새였다. 로인에게는 지나간 모든 나날들이 그러했듯이 이 하루 역시 아주 레사로운 보통날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소문없이 한생을 보내온 이 로인은 자신이 걸어오는 평범한 하루하루에 얼마나 값있는 자옥을 남기고있는것인가!...

어느덧 로인의 집앞에 이르렀다. 김씨는 낯은 담장안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반기었다.

《에이구, 늦었구만. 그래 갔던 일은 잘됐나? 명옥 애미가 방금 다녀갔는데.》

《?!...》

순간 나는 온몸에 모닥불을 켜듯 화끈 달아올랐다. 안해에 대한 불만보다도 노루풀밭머리에서 어두워졌던 로인의 얼굴이 생각되어 더욱 몸둘바를 몰랐다.

이때 로인이 김씨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버럭 울렸다.

《밥탄내가 나는데 무슨 쓸데없는 사설인고!...》

김씨는 급해맞아 허둥지둥 부엌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숨이 좀 나가는듯했다. 나는 뜻도 없이 마당가를 둘러보다가 문득 놀라며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터밭의 감자포기들을 뽑아던진 그 자리에 생겨난 두개의 풀더미위에 난데없는 돼지우리가 각각 올라앉은것이 우뚝 마주쳐왔기때문이다.

풀더미위에 올라앉은 두개의 돼지우리!...

(그럼?!...)

나는 무엇에 취해버린것처럼 멍청해지기까지 하였다. 놀랍도록 희한한 이 창조물은 얼마나 많은것을 말해주고있는것인가!

저번날 감자를 뽑아버린 터밭머리에 생겨나고 있는 풀더미앞에서 품었던 그 의혹이 삽시에 풀여졌던것이다.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거름을 받으려고 남모르게 애태우고있는 그 마음에 넘나간듯 황홀해졌다. 언젠가 로인이 터밭머리의 감자를 뽑아버리던 일, 달그림자를 밟으며 지게가 넘쳐나게 썩짐을 지고오던 일, 우리밖에 펼쳐난 돼지를 몰아넣던 일 등 지나간 여러 일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점차 승엄한 감정에 사로잡힐뿐이었다.

하기는 일인즉 이 모든 생활이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봄 썩지 않은 거름을 밭에 내서는 안된다고 프락프락을 막아나서던 그때 이미 시작된것이 아닌가?... 생활의 갈피갈피를 더듬을수록 솟구치는 걱정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이때 로인은 거름무지의 흙밥이 설핀곳을 메꾸면서 주근주근 입속말처럼 뇌이었다.

《임자가 나를 위해주려는 성의는 고맙네만... 땅을 다루자면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 하네. 사람은 속여도 땅만은 못속이네. 세상에 거짓이라는 걸 모르는게 땅이야. 땅이 우릴 지켜보네, 땅이!...》

로인은 얼핏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둠속에서도 웅심깊어 보이는 로인의 눈빛이 마음을

찌르듯 강렬하게 안겨들었다. 형언할수 없는 숭고한것이 흙벽을 두드리느것만 같았다. 로인은 계속하였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명옥이 일도 그렇지... 이 나이껏 살고보니 참으로 부모구실을 옳게 한다는게 험한 일이 아니야...》

《?!...》

울려엿은 흙밥을 매질하며 뜨직뜨직 갑자르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는듯한 그 절절한 토로는 나의 귀전에 뒤흔의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불시에 가슴속으로 뜨거운것이 몽클 솟구쳐 올랐다. 온몸이 전류에 닿은듯 찌르르해왔다.

한생을 밭고랑에 앉아 흙을 뿌지고 거름을 주무르며 땅처럼 진실하게 살아온 이 로인, 배운것도 없고 아는것도 많지 못했으나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심장으로 체득하고있는 로인이었다.

《아버님!》 하고 소리쳐부르며 다가가고싶었으나 굳어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로인처럼 이 땅에 순결한 녀를 심지 못하고 일해온 자신이 돌이켜졌다. 땅의 진가를 모르고 거기에 바치는 진정한 녀가 없다니 구름을 딛고 살아온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지난날이었다. 곡식을 키우면서도 땅을 몰랐고 자식을 자래우면서도 부모가 할일을 모르고 살아왔다. 좋은 거름을 많이 내여 땅을 살지우기 위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x-6》도 웅당 로인보다 앞서 내가 찾았어야 할것이 아니었던가.

명옥이 문제도 그렇다. 땅에 대한 애착이 없는 데로부터 결국은 딸애를 이 땅에서 뜨게 하려는데 진의도가 있어 오늘날의 걸음을 하지 않았던가.

땅에 대한 로인의 웅심깊은 속마음을 단지 돼지나 기르려는 의도로 알고 새끼나 가져다주는것으로 위해주려 했던 나의 치닥거리가 되살아나 환멸감에 젖어들었다.

땅에 묻혀 흙을 다루며 허구한 나날을 평범하게만 살아오면서도 가슴속에는 높이를 헤아릴수 없는 뜨거움을 지니고있는 농촌의 로세대, 땅의 지력을 높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이 로세대를 정녕 참답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의 자세를 어느 높이에서 가져야 할것인가!

동녘산마루에 달이 솟았다. 달빛이 비친 터밭의 풀더미와 그우에 솟아난 창조물은 거기에 바쳐진 한 평범한 인간의 마음이란듯 더욱더 류다른 정서로 가슴을 적셔주었다.

나는 형언할수 없는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참된 삶을 지향하는 인간들의 진실한 형상

- 중편소설 《여덟시간》(리희남 작)에 대하여 -

강진

8시간의 노동이 밝혀준 참된 삶의 진리

8시간!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 누구에게나 차려진 신성하고도 보람찬 하루의 노동시간이다.

바로 이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한달이 되고 한해가 되며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한생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 8시간을 언제 어디서나 차려지는 범상한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허수히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범상한 8시간의 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찾아내고 깊이있게 밝혀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야 가치 있는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다.》(《영화예술론》 5페이지)

문학작품에서 인간문제는 결코 허공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범하고 다양한 생활속에 있는 까닭에 그것은 인간생활을 통해서만 감명 깊게 구현될수 있다.

중편소설 《여덟시간》의 성과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 소설은 어느 한 광산의 지하파쇄장에서 벌어지는 8시간동안의 생활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의 결과 속, 인간생활의 진실과 허위를 갈라내고 어떻게 사는것이 정말 참되게 사는 길인가를 인상깊게 밝혀준 특색있는 작품이다. 소설의 중심에는 턱형파쇄기의 초소장 철우와 그의 친우 순기가 서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잘 어울리며 남달리 우정을 두터이해왔지만 어떤 일에서나 서로 다른 두측면에서 저마끔 자기를 드러내군하는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주인공 철우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수한 청년이지만 항상 꾸밈없는 순결성을 동경하며 허위와 가식을 모르는 성실한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그와는 달리 반고수머리에 굵게 쌍꺼풀진 눈을 가진 순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고 특히 처녀들의 호감을 사고있는 《잘난 사람》으로서 《공명》과 《위훈》을 펼치는 계기마다에서 자신을 나타낼줄 아는 인물이다. 그러기에 철우는 지배인앞에서 부속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실례를 까맣히고 걸린 고리를 풀어줄것을 제기했다가 조건타발을 한다고 통을 맞았다면 순기는 눈치빠르

게 자기비판을 잘함으로써 《점수》를 따게 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광산의 습통이라 할수 있는 지하파쇄장의 수직갱이 큰 바위돌로 하여 막혔을 때에도 철우는 그 타개책을 심중하게 모색하며 침묵을 지킨탓으로 지배인을 실망케 하였다면 순기는 직승기를 띄우자거나 박격포를 올려쏘자거나 엉뚱한 착상을 내놓기도 하며 남들의 앞장에 나서서 《용맹》을 펼치자고 호소함으로써 지배인의 환심을 사게 된다. 이처럼 생활에서는 흔히 인간들의 진가를 잘못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혼돈하기 쉬운 법이다. 그러나 자신을 형생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각이 오면 어쩔수없이 인간은 본래의 체모습을 드러내고야마는것이다. 철우와 순기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막혀버린 수직갱의 정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자 여러차례의 발파진동으로 금이 간 바위돌에 직접 착암기를 들여대고 발파구멍을 뚫어야하는 정황에서 순기는 공포와 비겁성에 사로잡혀 간신히 지탱해오던 허위와 가식의 발판에서 굴러떨어지고야만다. 철우는 방금전까지만 해도 비겁성을 단죄하고 용맹을 부르짖던 순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맹세와 의리를 저버린것을 타매하면서 착암기를 총창처럼 억세게 틀어쥐고 끝내 발파구멍을 뚫고 바위돌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고만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위선인가 하는것은 8시간의 노동이 검증해주었다.

그 8시간동안에 비상한 사건들만 계속된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생이 집약된 무한히 심각한 순간들이 흘러갔다. 그것은 정녕 참과 거짓이 어떻게 두갈래로 갈라졌는가를 명백히 보여준 8시간이었기에 지배인은 여기서 심각한 생활의 교훈을 찾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두갈래길이나 그것을 혼돈한 교훈을 보여주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 참과 거짓의 생활적근원을 밝혀내는데로 한걸음 더 깊이 육박해들어가고있다. 우리는 최근에 생활속에서 진실과 허위를 식별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있는 소설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지만 그 근원적요인을 깊이있게 밝혀낸 작품은 보기 드물다.

문학작품에서 흙속의 진주보옥과 도금칠한 가짜보석을 갈라내려면 인간과 생활을 피상적으로 대조시킬것이 아니라 그 본색이 드러날 때까지 생활의 밑바닥과 인간성격의 심처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 이것은 주체의 인간학이 요구하는 형상원리의 하나이다. 중편소설 《여덟시간》은 바로 이러한 형상원리에 따라 참과 거짓을 갈라

내고만 있는것이 아니라 주인공 철우와 같이 참되게 살려는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통하여 참된 삶의 숭고한 철리를 밝혀주고 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커다란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작가는 우선 오늘의 8시간이 밝혀준 생활의 진실이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 이루어진 어제날의 참된 인생행로들과 깊이 련관되고있음을 밝혀내고있는데 주인공에게 참된 삶의 념과 자양분을 준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파고들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성격적품도는 결코 8시간안에 비로소 마련된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것은 조국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친 아버지의 숭고한 삶과 련결되어있고 아들을 아버지처럼 참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온 어머니의 눈물겨운 한생과 련결되어있으며 자기를 참다운 삶의 길로 이끌어준 세포비서아바이와 자기에게 병사의 분동작을 익혀주던 분대장의 손길과 잇닿아있는것이다. 하기에 주인공 철우는 사랑하는 처녀 수련에게 뜨거운 열정을 담아 말하는것이다.

《얼마나 많겠소.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준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바이...그리고 얼굴조차 모르는 아버지도... 어제날의 나의 분대장까지... 그렇소.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피를 주고 녀를 주고 자양분을 준 대지였소. 정말 그 대지가 아니였더라면... 생각해보소. 만일 내가 이 성스러운 대지앞에서 티끌만치라도 거짓을 꾸민다면 사람이 아니지. 나는 대지가 바라는 대로 살았을뿐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 평범한 말속에 작가가 말하려는 인생의 숭고한 진리가 깃들어있으며 이 성스러운 대지속에 생활의 진실을 담고있는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심어져있는것이다. 각자는 이처럼 참된 인생의 진리를 그 어떤 논리적개념으로써가 아니라 오늘 의 《시간》이 뿌리내리고있는 《성스러운 대지》라는 뚜렷한 예술적표상속에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바로 이 8시간동안의 참된 삶이 깊숙이 뿌리내린 대지에 대한 찬가! 여기에 이 작품의 형상적매력이 있으며 그것을 대지가 주는 자양분을 고스란히 받아안고 자라난 철우네 집 뒤뜨락의 백양나무가 생동하게 체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철우와 함께 자라온 백양나무는 단순한 상징적존재가 아니라 철우자신의 지향과 념원을 년륜으로 새겨온 참된 삶의 체현자인것이다.

...

《엄마, 저 나무가 왜 저렇게 높이 자랐나?》
《생각해보렴. 제 혼자 저렇게 자랐을까? 아니야, 땅이 주는 물과 영양분을 고스란히 받아먹었기때문이야...》

어머니의 이 《소박한 철학》은 그대로 철우의 가슴속에서 백양나무와 함께 자라서 움직일수 없

는 생활의 신념으로, 인생의 철리로 되었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뚜렷한 예술적표상을 안고있을뿐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성격의 론리에 맞게 형상적으로 잘 가꾸어져있음으로 하여 더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있다. 작가는 여기서 철우와 순기의 성격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있는것이 아니다. 생활은 참과 거짓을 스스로 갈라놓는다. 물론 두 인물의 생활관점은 대조적이다. 철우에게 있어서 그것은 수많은 참된 사람들의 정신적양식을 받아안고 백양나무처럼 대지에 뿌리내릴것을 지향하고있다면 순기에게서는 다른 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홀로 아름다움을 빛내는 들국화의 꽃잎처럼 자기존재를 한껏 빛내어나갈것을 지향하고있다. 여기에 진실과 허위의 《딱지》를 함부로 붙일수는 없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까지 피는 들국화를 좋아하는 순기에게도 역시 외견상 적지 않은 긍정면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순기를 처음부터 허위와 가식으로 판습된 인물로써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인기있는 학습반장, 의협심과 인정이 많은 모범학생으로서 사람들을 경탄시킨 일화들을 많이 남겨온 인물로 그리고있으며 오늘도 수직쟁의 비상사태를 타개하는데서 사람들을 《용맹》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킬줄 아는 인물로 형상하고있다. 철우 역시 처음부터 리상화된 인물로가 아니라 참된 삶을 지향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완성해가는 소박하고 평범한 인물로 그리고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들의 본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것이다. 문제는 준엄한 시기에 바치는 희생이 자신의 《위훈》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조국과 집단을 위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인가 하는데있다.

중편소설 《여덟시간》은 바로 이것을 철우와 순기를 비롯한 인간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내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진실과 허위는 가장 준엄한 시각에 그 본색을 나타내며 진정으로 참된 삶은 준엄한 시각에도 평범한 나날에도 변함없이 가식을 모르고 자기를 다 바칠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구현할수 있다.

인간심리세계에 대한 섬세한 묘사

인간생활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그려야 하는 소설작품에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깊이 감동시키도록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려면 다양한 인간들의 내면심리세계를 섬세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감명깊게 그리려면 생활과정에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세계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파고들어야 한다.》(《영화 예술론》 56페이지)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정서세계를 그에 고유한 성격론리에 맞게 진실하고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라야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킬 수 있다.

사실상 인간과 생활을 그리는데서 작가는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생겨나는 인간내면세계의 섬세한 움직임들 체져놓고는 아무것도 감명 깊게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는 인간심리의 전문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편소설 《여덟 시간》에는 수직갱을 막고있는 큰 바위돌을 제거해야 하는 비상한 정황이 설정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다른 복잡한 사건선이 따로 파생된것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 기본정황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 역시 주인공 철우와 순기사이의 대조적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인간관계도 착잡하게 얹혀있지 않으며 두 인물의 관계 또한 처음부터 복잡한 생산기술문제를 놓고 대립되고 충돌되어오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해결되는 식으로 맺어져있지 않다.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건, 단순한 인간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책을 손에 들면 어느사이에 8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작품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그것은 다름아니라 조성된 긴박한 정황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발현되는 인물들의 다양한 내면심리세계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산 인간들의 성격발전과정은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게 되기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심리묘사의 특성은 그 어떤 심리적상태의 결과를 놓고 그것을 여러모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는것이 아니라 각이한 인간들의 심리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 부단한 변화발전과정을 섬세하게 개방하고있는데 있다. 그것은 수직갱에 발생한 정황이 각일각 긴박해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온 주인공 철우의 심리적 움직임을 여러모로 섬세하게 그려내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특히 온 광산이 숨을 죽인 비장한 사태앞에서 더는 망심이 허락되지 않아 폭약을 부동켜안고 직접 수직갱안에 들어가 장약작업을 하리라는 결심을 다지는 과정의 심리묘사는 참으로 섬세하다.

...

철우는 팽철한 리성으로 다시한번 생각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인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졌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내가 이다지도 주저하고 동요했단말인가? 그래 내가 필요한때에 자기를 바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단말인가? 아니, 나는 뻔뻔이 맹세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아직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는가?

철우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 몹시도 분개했다. 어찌나 치를 떨었던지 곁에 앉았던 사람이 놀라며 그를 이상스럽게 보기까지 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리면서 눈치나 보고있는게 아닐가? 내가 혹시 요행수를 바라고있는게 아닐가? 그렇다면 너는 정말 비렬한자다. 아니 의리와 신념을 저버린 배반자다....

사실상 이 분개의 웨침소리는 벌써 주저와 동요가 아니라 단호한 행동이행의 전주곡과 같았다.

작가는 이렇듯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밀바닥까지 들추어내고 우여곡절에 찬 심리적과동들을 그에 고유한 성격론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과정으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철우와 수련이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데서도 잘 표현되고있다. 만능나사틀개를 빌려쓰고 돌려주는 과정에 생겨난 호상 이해와 동정의 감정이 공감과 연모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거기로부터 마를줄 모르는 사랑의 열정이 샘솟아 올라 가슴속에 격랑을 일으키자 더는 억제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과정의 심리묘사는 정말로 극명하고 섬세하다. 그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고백을 했다는 자책감으로 하여 고민하면서도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사랑의 감정속에 모태기는 철우의 심리세계도 생동하며 진실한 사랑의 고백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인 자신을 뉘우치며 한밤을 지새운 처녀의 심리세계 또한 섬세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랑의 감정에 가슴을 불태우기도 하며 안타까이 모대겨보기도 하며 사랑이 열매맺는 장면에서는 사랑의 환희를 함께 맛보기도 하는것이다.

철우의 성실한 사랑을 모욕한 자신의 최악을 깨닫고 씻으려는듯 이제 철우와 운명을 같이해야 할 착암기에 묻은 기쁨기를 닦고 또 닦는 수련의 아름다운 마음을 웅심깊게 묘사한 장면에서는 어쩔수 없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섬세하게 정화되는듯하다. 사랑을 고백하던 날 밤 매정한 자기때문에 가슴을 불태웠을 철우를 생각하며 흘리는 처녀의 눈물이 착암기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감동적이며 그 착암기를 철우앞으로 내밀며 용서를 비는 수련의 심리세계 또한 참으로 섬세하고 아름답다.

...

《날 용서해주세요...》

처녀는 입술을 떨었다. 애수에 잠긴듯한 두눈이 불시에 핑 젖어들었다. 류다른 광채가 확확 뿔어져나오는 눈이었다. 그 눈은 벌써 자책에 잠긴 눈이 아니었다. 용서를 비는 눈도 아니었다. 더우기 위구와 불안을 담은 눈도 아니었다. 그 눈은 수천마디의 말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바로 그것-오직 사랑과 행복, 미래만을 약속해주는 불

라는 눈이었다....

이처럼 작가는 고결한 사랑의 감정에 눌리는 처녀의 아름다운 심리세계를 그의 불타는 눈을 통하여 섬세하게 그려내고있으며 그 사랑의 환희에 온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철우의 심리세계도 지극히 따스한 처녀의 손을 처음으로 잡아보는 행동묘사를 통하여 매우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개방하고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현란한 말도 장황한 묘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리세계가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안겨오는것은 두 청춘남녀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가장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심리적움직임을 그들의 성격론리에 맞게 간명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내고있기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심리묘사의 특성은 또한 인간심리세계의 변화과정을 평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 상반되는 심리적과동들을 극적으로 굴곡있게 그려내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심리극적특성은 주로 철우와 순기간에 맺어진 우정의 변화발전과정을 묘사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 작품은 어릴 때부터 서로 다른 성격적기질을 가진 두사람이 가까와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우정관계를 유지해온 그들의 다양한 사상감정과 심리변화과정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내고있는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그들은 오랜 생활적연고를 보아서는 벌여질래야 벌여질수 없는 관계속에 있고 오늘의 각이한 생활적지향성을 보아서는 가까와질래야 가까와질수 없는 관계속에 있다. 그러기때문에 지배인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순기를 철우가 예리하게 지적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균열이 생겼을때에는 그들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의문을 던져주기도 하며 수직갱에 정황이 생긴 다음에는 함께 타개책을 모색하는것을 통하여 좀처럼 깨뜨릴수 없는 우정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주도록 그들의 심리변화과정을 굴곡있게 그려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단적으로 다섯번째 발파시도가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있는 순기를 격한 소리로 꾸짖는 철우에게 무슨 뽕죽한 방법이라도 있는가 말해보라고 반박해나서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그의 심리세계는 얼마나 강렬한 극적체험으로 차있으며 순기의 공포증과 비겁성때문에 수직갱밖으로 밀려나왔을 때 두사람이 다같이 수직감을 느끼면서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심리세계는 또한 얼마나 섬세한 극적모대김으로 가득차있는것인가. 더우기 순기 자신이 비겁성을 뉘우치며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자고 호소했을 때 어린 시절처럼 순결한 우정을 다시 나누게 된것을 그토록 기뻐하던 철우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순기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에는 기만과 허위로 살아온 그 혐오스러운 존재에 대하여 무서운 환멸을 느끼면서 가슴아픈 공허속에서 모대기지 않으면 안되는 심리적고민과정은 참으로 섬

세한 심리극의 한장면을 련상케 하고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인간심리의 변화발전과정을 단순한 평면적서술로써가 아니라 서로 얹혀있는 심리적과동에 대한 굴곡있는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웅심깊은 체험세계까지 극적으로 섬세하게 개방하고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이 작품에서는 그 모든 극적인 체험세계를 다양하고도 섬세한 인정심리세계와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정서적감흥을 더욱 강렬하게 돋구어주고있다.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는 아들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참된 뉘를 따르게 하려는 어머니의 다심한 심리세계와 비내리는 봄밤에 제대군관의 유혹을 이겨내는 어머니의 착잡한 심리변화과정이 바로 그러하며 굴안에서 울려오는 착암기소리를 들으며 수련이와 함께 가슴조이면서 아들의 성공을 비는 어머니의 섬세한 심리적과동도 그러하다.

이밖에 세월의 갈피마다에서 철우와 순기를 보살펴온 장환아바이의 웅심깊은 심리세계와 그들에 대한 지배인의 교훈적인 심리변화과정 그리고 순기와 탐실이의 굴절 많은 심리변화과정도 다같이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모든 인물들의 생동한 사상감정세계를 정서적으로 체험하게 만들고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인간심리세계에 대한 섬세하고도 굴곡있는 묘사로 하여 수직갱에 조성된 비상사태를 타개하는것과 같은 생산기술적문제들은 뒤로 물러나고 참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운명적인 문제, 우정과 애정세계를 둘러싼 여러가지 인간문제들이 정면에서 나서도록 할수 있었다.

생활에 대한 립체적인 형상

중편소설 《여덟시간》이 우리들에게 독특한 예술적감흥을 안겨주는것은 생활을 다양한 시점에서 립체적으로 그림으로써 형상의 생동성과 심오성을 다각적으로 담보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예술에서는 인간성격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폭넓게 밝혀내고 사건의 깊은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낼 때 그리고 한 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 때 형상이 철학적심오성을 가지게 된다.

이 소설은 이런 의미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시사를 던져주고있다. 이 작품에는 노동자들이 휴게실에 출근한 때로부터 하루 8시간동안의 현장생활이 주로 반영되고있으나 고 밀바닥에는 주인공 철우와 순기의 성장과정과 철우네 부모들의 값높은 인생과 장환아바이의 지나온 생활 등이

다양하게 굴절되어있으므로 웅근 두세대의 생활력사가 유기적으로 얹혀있는 셈이다.

하기에 작가는 여기서 주로 여러가지 회상수법에 의거하여 현재에서 과거어로, 과거에서 현재어로 자유로이 시공간을 이동하면서 생활을 다양한 시점에서 립체적으로 그려내고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현재생활이 언제나 지나온 생활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과거생활 역시 오늘의 생활속에 굴절되어 함부로 지워버릴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생활의 이러한 본질적속성을 소설에서 그대로 진실하게 그림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것은 오늘의 생활과 지나온 생활을 하나의 형상계기에서 어떻게 잘 밀착시키는가 하는것이며 바로 여기에 형상의 립체성을 담보하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회상의 계기를 잘 선택하는 문제인바 현재의 생활에 굴절되어있는 과거생활을 바로 그 생활장면에서 회상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회상계기를 옳게 잡아야 한다. 말하자면 현재생활과 과거생활이 그 필연적인 회상계기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화폭을 이루고 인물들의 현재감정세계와 과거의 감정세계가 하나의 사상감정으로 이어지고 융합되도록 회상장면을 펼쳐야 한다.

이 소설의 작가는 이러한 형상적요구를 매우 자연스러운 생활의 흐름을 타고 각이한 정황에 맞게 다양하고 진실하게 충족시켜주고있다. 우선 첫 휴게실장면에서 다양한 인물군상들이 흥성거리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있던 철우가 때마침 들어서고있는 수련이를 보자 착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지난 밤에 수치스러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일들을 회상하는 계기를 지어주고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인상적인 회상계기라고 해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철우의 곁에 나란히 앉아 무척도 재미있게 속삭이고있는 순기와 탐실의 대조적인 형상을 보여준 다음 전투일정을 받아안고 현장으로 나가는 길에 철우와 순기가 부딪치는 계기에서 그 두 친구의 과거 우정관계를 회고할수 있게 하고있다. 그다음엔 강도속으로 걸어가고있는 장환아바이의 시점에서 자기와 철우의 운명이 련결되어온 과정을 세월의 갈피를 뒤지며 여러모로 더듬어보도록 회상을 심화시키고있다. 철우와의 첫 대면과 그에 대한 가슴아픈 비판, 뒤뜨락의 백양나무와 《우리 아버지》라는 그림에 깃든 사연들과 순기와 우정관계 등 사연많은 회상들은 추억의 공간속에 아득히 멀어진 어제와 오늘을 하나로 이어주는 생활화폭들이다.

이처럼 소설은 첫 장면에서부터 벌써 현재와 과거를 자유로이 오가면서 생활을 립체적으로 펼쳐가는 자체양상의 특성을 뚜렷이 가지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 만일 그 많은 회상장면들을 작가

의 자의대로 억지로 설정했다면 현재생활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감정조직의 진실성도 다 파탄되고 말았을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현재생활과 과거생활을 성격과 생활의 필연적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차시키고있기때문에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웅근 한개 절을 회상장면으로 설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전개와 감정조직에서 아무런 파탄도 야기되지 않도록 형상하고있다. 레컨대 수직갱에 조성된 심각한 사태앞에서 철우가 수치를 당하고있는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처녀의 심정》이란 절에서는 광부절축구시합때의 패전원인을 회상하는 장면과 철우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한 처녀의 고민세계가 아무런 무리없이 섬세하게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허황한 방안을 내놓은 순기는 환심을 사고 진실한 타개책을 모색하는 철우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있는것을 목격한 처녀의 가슴속에서 여러가지 원망의 련쇄반응이 일어나서 그와 필연적으로 련관된 과거생활을 회상하지 않을수 없게 정황이 조성되었기때문이다.

또한 순기가 자신의 실책을 뉘우치며 사람들을 두번째 결사전으로 불러일으키는 정황속에서는 그에게 매혹된 탐실이의 앙양된 시점에서 자기들의 사랑을 무르익혀온 과거생활을 회상하는 《들국화》라는 절이 설정된것도 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흐름에 기초한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과거생활에 대한 회상들은 착암기를 틀어쥐고 결사전을 벌리는 절정장면에서 종합되어 현재와 과거가 혼연일체의 생활화폭을 이루게 하고있다. 그것은 《추억》이라는 절에서 펼쳐지는 여러가지 회상세계가 잘 말해주고있다. 이 장면에서 추억은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번갈아 오가면서 수련의 얼굴과 《그림》속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고 분동작훈련을 반복시키던 분대장과 인생의 참다운 로병 장환아바이의 얼굴도,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도 련이어 떠올라 끝없는 회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모든 회상들은 자신의 최후를 각오한 사람에게 흔히 있을수 있는 숭고한 감정세계와 밀착됨으로써 극히 자연스러운 련쇄과정으로 교차되고있다. 그것은 최후시기에 지나온 삶의 자취를 더듬어보고싶은 욕망으로 하여 자기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기때문이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매개 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 각하게 만들도록 다양한 회상수법으로 형상의 립체성을 진실하게 담보하고있다.

이와 함께 이 작품에서는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하는 화폭들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형상의 밀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작가는 하나의 만능나사를개와 한대의 착암기에 대한 세부묘사만 가지고도 철우와 수련의 성격적본질과 그들의 아름다운 애정세계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형상을 심화하고있으며 《우리 아버지》라는 그림세부만 놓고도 철우네 일가나 장환아바이의 성격적특질과 생활전모를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하고있다. 《백양나무》와 《들국화》에서 풍기는 예술적표상으로는 철우와 순기의 인간풍모를 깊이있게 대조시키고있으며 일이 다 성공된 다음에는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만 철우의 행동세부를 통해서서는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지 않는 그의 성격과 생활신조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이 소설은 인상깊은 세부형상들을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함으로써 형상의 심오성을 훌륭히 돋구어주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도 형상을 한계단 더 높이

는 건지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우선 인간심리세계에 대한 섬세한 세부묘사에 뒤따라 정론투의 주정토로를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함으로써 형상창조에서 생활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있는 듯한 감을 부분적으로 주고있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주정토로를 엄밀히 절제하고 보다 유효적절하게 결합시켰더라면 형상의 생활적 심도를 더욱 확고히 담보할수 있었을것이다.

비록 이러한 요구성은 제기되지만 이 소설은 분명 그 사상적지향성의 높이에 있어서나 그 예술적형상의 깊이에 있어서 최근에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들중에서 가장 특색있는 소설의 하나로 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명대사

예술영화 《보증》 중에서

△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디딘 딸이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가고 물었을 때 박신혁의 대답.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가말이지... 그래, 양보하는것부터 배워라... 좋은 일은 남에게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제가 맡아하는 법을말이다.

일을 할 때에두 평가를 받을 때에두 지어는 상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거나 빠스를 탈 때에두 좋은것은 남에게 양보하는 기풍을 배워라. 알겠냐?

...사람의 인격중에서 제일 고상한것의 하나가 양보하는 품성이다.》

△ 박신혁이 허진성의 솔직한 자백을 듣고 그에게 하는 말.

《허동무, 우리 련합기업소 당조직은 동무를 믿습니다. 동문 25년동안이나 당에 속을 주지 않은 사실을 문제시하지만 우린 반대로 25년동안 그 누구에게도 지어 자기 안해와 자식들에게까지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당앞에 고백했다는 그 마음을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 시운전을 앞두고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는 원석해기사에게 하는 박신혁의 절절한 이야기.

《...기사동문 당을 멀루 압니까? 필요할 땐 얼굴 맞대고 위험할 땐 외면하는게 당인줄 알았습니까?》

《...제발 날 때놓을 생각 마시우. 어차피 우린 한배에 탄 운명이 아닙니까? 응-》

△ 박신혁이 아래일군이 당의 군중로선과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때 준절히 타이르는 말.

《초당성은 능력이 없구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 군들속에서 자기 보신을 위해 필요한 수단인것이요.

위험합니다. 동무같은 일군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면서두 당에 충실한 일군처럼 오인되어온것이 위험하단말이요...》

△ 원석해기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윤학부부장에게 원칙적인 비판을 주고나서 하는 박신혁의 말.

《언제인가 당에서는... 믿음은 충성을 낳고 의심은 반역을 낳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밝은 세상을 이 땅우에 건설하고있는데 벽에 타일루나 불이구 회칠이나 한다고 해서 밝은 세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매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없애주구 밝은 빛을 안겨줄 때만이 밝은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충고하겠소. 옛말에 바른소리 하는 사람 얻기는 힘들지만 버리기는 쉽고 아침하는자 얻기는 쉽지만 버리기는 힘들다고 했소...자신을 소생시키고싶거든 언제나 진실에 의거하시요.》

△ 원석해기사가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은정을 받아안았을 때 박신혁이 목메여 심장으로 웨치는 말.

《고맙습니다. 참말로 어머니당의 위대한 사랑은 또하나의 충신을 낳았습니다.》

단군대와 천주석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는 단군이 어느날 궁술훈련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벤채 활터에서 그대로 잠이 깜박 들었었다.

한동안 잠을 자다가 수만개의 무리화살들이 바람을 일쿠며 멀리서 날아드는것 같은 이상한 기척에 단군이 눈을 떠보니 향산천 건너편 산마루에 있는 천주석우에 웬 위엄있는 한 장수가 나타나 《네 이 화살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자기를 겨누고 활줄을 당기는것이였다.

화살을 막든가 아니면 몸을 재빨리 피하든가 하지 않으면 영낙없이 그 장수의 화살에 맞게 될 그러한 위급한 순간이였다.

그는 몽롱한 잠결에 벌떡 몸을 일으켜 옆에 있던 검을 빼들고 번개같이 휘둘러쳤으나 날아드는 화살들을 꺾지 못한채 발을 빗디디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자기를 겨누던 화살은 그대로 머리위를 스쳐지나갔고 계속 날아드는 화살들은 바위벽에 마구 부딪혔다가는 산산이 부러져서 바위바닥에 흩어졌다.

단군은 잠결에 부서진 화살조각들이 주변에 너저분히 널려있는것을 보면서 또 잠에 취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어 곤한 잠에서 깨어나본즉 너저분한 화살조각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두루 살펴보아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다만 자기를 겨누고 날아들던 화살만이 바닥에 고스란히 놓여 신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세상에서는 구할수 없는 신기하고도 훌륭한 은빛화살이였다.

(내가 아까 검으로 받아치지 못한 화살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고 그가 생각하면서 은빛화살을 집어들고 살펴보는데 여태까지 눈에 띄우지 않던 바위벽의 조그만 흠집에서 눈부신 빛발이 또 뿜어나오는것이였다.

《저것은 어이된 빛인가?》

단군은 곁에 다가가서 그 흠집을 더듬으며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자기 어깨만큼한 높이에 새로 생겨난 흠집이었는데 화살에 맞아 그렇게 된것이였다. 그런즉 그것은 단군이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고 넘어지는바람에 머리위를 스쳐지나 바위벽을 맞힌 자리가 분명하였다.

단군이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자책하기를 《고마운 일이다. 화살 하나 제대로 막지 못했으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환웅아버님께서 나의 궁술연마가 아직도 부족한것을 헤아리고 깨우쳐 주려함으로구나.》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후에 단군은 결심을 다시 다시고 궁술연마에 전력을 다하였다.

남쪽에서 바라보이는 천주석을 과녁삼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궁술연습을 계속하였다.

단군은 날마다 자기의 미흡한 궁술연마를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는데 그 궁술이 얼마나 신묘했던지 천주석을 맞힌 화살이 단군대에 다시 되돌아왔다. 뿐만아니라 단군의 궁술이 아주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 천주석을 맞힌 화살이 단군대바위벽의 화살자리를 매번 명중시키곤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고이 궁술터에 보관하여둔 그 은빛화살은 단군의 궁술이 이렇게 신묘한 경지에 이르자 곧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지고말았다 한다.

그리하여 후날 단군은 어떤 적이 어느 순간에 어디로 공격해오든지간에 그를 능히 쳐물리칠수 있는 궁술과 검술로써 자신을 무장하고 고조선시조로서의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고 한다.

흠이 생긴 그 화살자리에 지금도 귀를 대고 들으면 쉬익- 쉬익- 하는 무슨 바람소리같은 음향이 마치 활촉 날아가는 소리 같다고 해서 후세사람들은 단군이 화살을 되돌려세우는 묘술로써 맞이군하던 신기한 활촉음향이 그 금간 자리에 오래 간직되어있기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있다.

묘향산의 만폭동에서 향로봉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단군이 활쏘기훈련을 하였다는 단군대가 있는데 그 바위벽에 아직도 화살자리가 남아있다고 한다.

윤석범

금 강 산

전찬기

보화로운 우리 산

내 나라를 빛내자고
여기에 다 모였나
땅우의 절경들이
제 자랑을 겨루는듯

쳐다보면 기암들
굽어보면 진주구슬
둘러보면 타는 단풍
눈 감으면 산새소리

구름은 기여넘고
폭포는 내려쫓네
물안개는 꿈을 꾸고
휴양객은 아- 아-

골에 산에 채우고도
그냥 남은 절경들을

바다까지 내다 세운
우리 나라 금강산

아, 천하절경
바위돌을 던기조차
삼가해지는
사랑하는 명산아

내 조약돌 하나
맑은물 한모금
고운 단풍 한잎도
목숨으로 아낄 이 마음

천년세월 흘러가고
만년세월 더 살아도
너를 아낄 이 마음엔
티 한점 안오르리

구룡폭포

상패하여라
금강석 남창같은 천봉만악
하늘의 물주머니 찌르고 또 찢러
허공중의 진주옥수 폭포져내리는가

물기둥 내려쫓는 그 밑 물확은
지구의 중심까지 패어져내렸는지
천야만야 떨어지는
여라문 아름의 물묵음 받아안아도
튀겨나는 물방울없이 뿜어넘는 룡소

그날의 그 감격을 오늘도 못참느냐
하늘땅을 뒤흔드는구나, 너의 퇴성
깨지는듯 부서지는듯
내려만 쫓는 폭포수
사시장철 변함도 없이
장엄한 기개 떨치는 구룡폭포

너는 내 나라의 폭포
바다를 막아 감문을 일떠세우고
험산준령에도 철길을 펼쳐가며
오늘도 80년대의 새 비약을 일으키는
우리 인민의 기상 네 모습에서 보셨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선 그날
네 지닌 기상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절승경개라 높은 치하를 주셨구나
구룡폭포

아, 제일 큰 혼장들을 모두 골라
너의 물기둥 가득히 달아주고싶어라
우리 수령님 그리도 기쁘시게 한
금강산의 자랑, 네 더욱 빛나게

은사류를 바라보며

희디흰 옥너봉바위
실실이 은실이 감겼나
은사류
금바늘에 너를 꿰어
서틀어도 내 바느질하고싶네

만물상가위로
구룡포비단을 끊어
은사류, 네 은실로 지은 그 옷에
비로봉에 타는 단풍

천화대 하늘꽃 송이송이 수를 놓고
옥류담 옥구슬을 모두 모아 달고픈데

아, 여기와 즐기는
저 휴양객들 차림옷에
네 아름다움이 다 비껴있구나
폭포, 기암, 단풍, 구슬없이 금강산이 아니되리만
사람들이 즐기여 이름높은 금강산이라
금강산이 없어봐라 온 세상이 아쉬워하리

비바람속의 귀면암

《금강내기》 태풍이 일었네
아슬히 얹힌 바위 금방 굴듯
위태위태 조여지는 이 십사

휘뿌리는 비발속에 이리 흔들 저리 뒤뚱
크게 한번 더 들추면 아뿔싸
허공중에 날아떨어질듯도싶다만-

웬걸 소나기도 태풍도 멈춘뒤 보니
히죽이 웃는듯 굽어보며
드림없이 었혀있는 귀면암

옹거니 비바람도 금강산 여기서는
허공중의 바위를 받들어
한경치 더 돌구는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너를 두고
우리네 조상들 어찌하여
그리도 험한 이름 지었단말이나

금강산에 와서 내 보고 듣고 느끼는
천만명승들의 이름 다 잘 달았더라만
귀면암, 네 이름은 아무래도 서운해...

금강산 일만경치 한눈에 다 굽어보며
제사 즐거워 흔들거리는듯
보는이들 가슴에 웃음집도 흔들흔들

네 이름을 내 무엇이라 달아줄가
행복한 우리 삶에 웃음을 더해주니
에라 웃음바위라 하자꾸나

향붕에 비끼는 아침노을

신리섭

농촌풍경! 할 때면 당신들은 아마도 한쪽의 조선화를 감상하는듯한 다감한 표상을 가지게 될것이다.

주절거리는 내가의 물소리, 깃을 찾아 버들방천에 날아드는 새들의 지저귀, 개울가에 울리는 빨래방치의 유연한 소리와 너인들의 청맑은 웃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모습도 변하였다. 발갈이하는 황소의 영각소리대신 프락또르의 동음이, 농부의 짜증소리대신 운전수총각의 건드러진 노래가락이, 어찌다 한달에 한두번정도 관리위원회 마당에 이동영사차가 올 때면 허리춤을 추스르며 모여들던 동네조무래기들이 오늘은 텔레비존수상기앞에 점잔을 빼고 앉아 대륙의 한끝에서 벌어지고있는 체육경기를 구경하고있다.

하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농촌풍경은 또 어떻게 변할것인가?

1) 저녁길

예로부터 운수 경칩에 대동강배놀이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해의 절기에는 망녕이 들어도 톱톡히 들었는가보다. 우수가 지난지도 오랬고 경칩이 눈바투 닥쳤는데 철을 헛갈린 함박눈이 해종일 썸평종계 평평 쏟아져내렸다. 그래도 철이 철인지라 이 저녁에도 한풀뉘인 겨울의 여운인양 푸실푸실 흘날리는 눈발은 거의 비에 가까운 진눈까비였다. 푸근한 봄의 입김속에 시커멓게 독을 쓰며 아지랑이를 아물아물 피워올리던 생명동 드넓은 벌은 눈의 세례속에 휩싸여서 뿔뿔해지고 고즈넉하다.

저녁어스름이 깃든 눈내리는 포전길을 따라 호젓이 걷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묻혀있다. 하긴 누구에게나 눈내리는 푸근한 길을 걸을 때면 마음이 상쾌해지기마련이다. 그러구보면 그 사람 역시 야릇한 흥취속에 빠져든듯싶다. 하지만 그는 주위를 산뜻하게 뒤덮은 흰눈으로 하여 환기되는 그 어떤 정서적충동에 잠겨 이 길을 걷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늘 어둠이 깔린 저녁녘의 포전길을 걷고있다.

진눈까비 흘날리는 을씨년스러운 날도, 폭우 쏟아지는 사나운 날도, 달뜨는 맑은 날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건만 그 사람은 이런 저녁길을 20여년째나 걷고있다. 하루도 빠짐이 없이...

언제인가 그의 막내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다

치쳐 어머니한테 투정질을 했다.

《우린 언제나 남보다 저녁밥을 늦게야 먹어.》

《아버진 리당비서가 아니냐.》

《리당비서문 저녁밥두 늦게 먹어야 하나?》

《아버진 남보다 모범이 돼야 한단다.》

《피- 저녁밥 늦게 먹는것도 모범인가.》

오늘은 손자애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투정질을 한다. 볼수록 정이 가는 손자녀석을 무릎에 앉히고 애무해줄 때 맛보는 생활의 신미를 모르는바가 아니다. 허나 그럴새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이곳 리당비서이기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저녁길은 하루일을 총화하는 길이였고 매일의 사업을 설계하는 길이었다. 얼마나 많은 리내의 크고작은 일들이 그의 앞에 놓여있는가.

지난날 웅덩이를 메우고 비경지를 찾아 얻어낸 9천평의 땅도, 토지를 정리해서 찾은 2정보의 새땅도, 그리고 해마다 알곡생산을 넘쳐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저녁길에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하지만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성과에 자만할수 없는 리당비서였다.

어떻게 하면 이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꾸릴것인가.

요즘에 와서 그는 리당비서사업이 점점 힘에 부치는것을 느끼였다.

해방전 서발막대 휘둘러도 아무것 하나 거칠게 없는 막벌이군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열한살에야 겨우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하건만 대동아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놈들이 학교아이들한테까지 굶어모으던 낫그릇을 바치지 못해 쫓겨나고말았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신문배달노릇을 할 때 주인집에서 께진 양말 한켄테를 쥐여주며 물까지 길어달라고 할 때 인간이하의 모욕감에 신문배달노릇도 걷어치우고 뛰쳐나오던 일이었다.

그 세월에 무슨 일인들 안해보았고 무슨 모욕인들 안당했으랴, 그러길래 해방된 이 땅이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험했고 조국을 위해 락동강가에서 피도 흘리였다.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가 리당비서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련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업대회와 연회에도 참가하도록 해주셨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받아안은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지 못해 해를 두고 늘 모태김속에 사는 그였다.

전장천다리를 건너 화탄부락언덕우에 올라선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렬을 맞춰 모여앉은 문화주택들의 창가에 비친 불빛은 서로 무엇인가 살뜰한 이야기들을 정답게 주고받는듯 밝게 비치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집오래와 동떨어져있는 집들에 가 멎었다. 드문히 널려있는 불빛들은 다정부락과 향봉산앞에도 보이였다.

지난해말까지 발가운데 있는 260여세대를 야산 기슭으로 옮겨지였다. 불과 한두해사이엔 둔덕과 야산기슭에 6개의 새로운 부락이 생겼고 그로부터 수만평의 농경지를 얻는 동시에 정당수확고를 훨씬 높여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직도 옮겨야 할 집들이 한두세대가 아니였다. 이 봄중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상당한 경지면적을 얻어내고 금년농사는 또다시 장훈을 부를수가 있었다. 허나 문제를 그런 생산수자로만 볼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리당비서들을 믿고 우리 나라의 4,000분의 1의 령토와 4,000분의 1의 주민, 4,000분의 1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는데로 우리 농장에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아침노을이 남먼저 비끼게 하자.

오만수리당비서는 걸음을 내짚었다.

눈발은 점점 성글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관리위원회에서는 초급일군협의회가 열렸고 향봉산기슭에서는 집터를 닦는 불도젤의 동음이 우렁차게 터져올랐다.

2) 마지막집

꽃샘을 하던 실바람도 어느새 진해지고 들에는 그대로 푸른빛이 완연해가고있었다.

지금 농촌건설대에서 한창 진행중인 살림집건설을 지원하는 일과 당면한 영농준비를 어떻게 다같이 밀고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이 분분했으나 이렇다할 방도가 나지지 않고있었다. 일부 일군들의 의견은 주택건설지원을 뒤로 좀 미루더라도 바쁜 농사차비부터 해놓고보자는데로 쏠리고있었다.

봄, 여름, 가을, 철마다 자기 특성이 있는것이여서 어느 한철이라도 소홀히 하면 한해농사를 망칠수 있는것이였다. 그들의 의견을 탓할수 없었다.

말없이 앉아있던 리당비서 오만수동무는 이윽 해서야 입을 열었다.

《동무들이 말한것처럼 우린 농사를 첫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림집건설문제도 그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날씨가 아침저녁은 쌀쌀한것만큼 낮에

는 전부 벌에 나가 영농작업을 하고 아침저녁에 서너시간씩 건설을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거요. 여기에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비생산단위로력은 전부 동원되고말입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누구도 싯웃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이때 한쪽에 앉았던 관리위원회 한 일군이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

《합시다. 그렇게 하자면 농장원들의 열의를 발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 비서동무가 할 일이지요.》

《그야 물론이지요. 허허...》

그제서야 긴장했던 장내분위기는 풀리면서 회의는 일단락 지은셈이 되였다.

《이 문제는 그만하고 새집으로 이사한 집들에 대한 수도화공사를 좀 의논해봅시다. 내가 보건대 이 일이 무척 더디게 되는것 같군요.》

오만수동무의 시선은 뒤에 앉아있는 한 초급일군한테 가 멎었다. 리당비서의 눈길을 받은 그는 한참 갑자르다가 힘들게 입을 뻗었다.

《저-우리 반에서는 암만해도 두세대만은 수도화공사를 여름철로 미루어야겠습니다.》

《여름철이라니? 그럼 그 동리에선 녀인들이 물동이를 이고다녀야 한단말이요.》

오만수리당비서의 낯색은 굳어졌다.

《그럼 어찌겠습니까, 두서너달 물동이를 이고 다닌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뭘요? 동문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더구나 초급일군이란 사람이-》

다혈질인 리당비서의 얼굴은 검붉어졌고 눈길은 날카로와졌다.

《수도화를 동시에 하면 좋은줄 알지만 로력이 긴장한데 별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줄 알면서도 별다른 수가 없다? 여보, 예로부터 마당 한귀통이에 우물을 두면 사람한명 듣것보다 낫다고 했소. 그런데 바쁜 농사철에 물동이를 이고다니게 한단말이요? 발가운데 있는 집들을 야산기슭으로 모아짓고 수도화를 실시하는건 이 오만수생각이 아니요. 이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오시던 문제이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란말이요.》

오만수동무의 격노한 목소리는 쟁쟁- 쇠소리가 났다. 그의 가슴은 풀무질하듯 세차게 오르내렸다.

당사업 30여년, 리당비서로 20여년에 무슨 일인들 안겪었으랴.

벼이삭이 패이기 시작하던 생평동 넓은 벌이 큰물에 잠겼을 때도, 팔뚝같은 이삭을 빼물은 강냉이밭이 태풍에 휩쓸린 때에도 그의 가슴은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다. 사람들속에서 아직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이 부족한 현상을 볼 때 오만수동무의

가슴은 무거웠고 살점을 도려내듯 아팠다.

이윽하여 오만수동무는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 토론된 문제가 전문 건설자들에게 한한 일이라구 강건너 불보듯해서는 안됩니다. 농촌의 면모를 공산주의적문화수준에 맞게 일신시키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력사적인 혁명과업이라는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사상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방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자책과 새로운 결의가 비끼었다.

3) 생활의 갈피마다

내가 만난 향봉리 리당비서 오만수동무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채로 친것 같은 눈개비가 오는듯마는듯 내리는 저녁녘이었다.

리당비서동무는 사무실에 없었다. 그를 찾아 작업반으로 나가려는데 마침 관리위원회 한 일꾼이 그리로 가는 길이어서 우리는 동행하였다. 반백이 된 머리로 보아 환갑이 지났음직한데 콧코한 허리와 단아한 몸가짐이며 활달한 걸음새는 어딘가 정력이 넘치고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

《예순여섯이웨다.》

《그렇습니까?! 꺾 젊어보이십니다.》

《허허... 작가동무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군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군하지요. 늙은 사람이 더 젊어지기야 하련만 늙지 않는것은 알리는군요. 그럴때마다 나는 우리 리당비서동무를 생각하군하지요.》

《...?》

어딘가 귀맛을 돋구는데가 있어 나는 술깃해졌다.

《여섯해전이웨다. 환갑상을 받고 두어달이 지나서 년로보장을 받겠다고 리당위원회를 찾아갔지요.》

그때 리당비서동무가 하는 말이 <년로보장을 받아야지요. 나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있는데 누가 마다하겠소. 그런데 집에 들어앉아서는 무슨 일을 하실려우.> 하더라말입니다.

늘그막에 일은 무슨 일을 하겠소. 늙은이들이야 자식들 뒤바라지나 해주어야지요. 사실대루 이야기했다우.》

눈개비는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그래도 계절비라고 대지는 시루떡처럼 부풀어오른다. 안개발같은 비줄기는 얼굴을 간지럽히며 물방울을 짓군한다. 그는 얼굴을 문지르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랬더니 비서동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우.

<제발 늙은이 늙은이 하는 말은 마시우. 듣기부터 싫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60청춘에 90이 환갑이라고 하셨는데 말끝마다 늙은이라령이요.>

하더라말입니다. 그런데 저녁때에 비서동무가 우리 집에 찾아오질 않았겠소. <문동무, 하던 일을 계속 말아보는게 어떻소? 털어놓고 말해서 농장에 동무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요. 난 동무가 너무 일찍 늙을가보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요. 동무도 아다싶이 농사야 기술과 경험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겠소. 해방후 토지개혁에두 참가했었구 전후시기 협동화에두 참가한 동무의 경험은 새세대들한테 매우 유익하단말이요. ...>

사람이란 마음속에 의지해야 할 기둥이 있어야 버티여내는건데 그 기둥이란게 다름아닌 사업에 대한 책임감, 당에 대한 충실성이 아니겠소. 이제 손털구 들어앉아보우, 한두해에 털썩하지 않나.> 비서동무의 말은 백번 옳았소. 역시 당일꾼이 다르더군요.》

나는 가슴이 후터워졌다. 한 인간의 로쇠마저 걱정하며 고심하는 리당비서, 참말로 가슴뜨거운 사연이었다.

《비서동무가 저기 계시는군요.》

그는 발가운데를 가리켰다. 낡은 집터에서 오만수동무는 열서너살된직한 처녀애와 같이 크지 않은 배나무를 쓰고있었다.

눈개비를 맞아 축축히 젖은 솜동복, 흙이 발린 물날은 로동화, 폭 늘려쓴 모자밑에 어푸수수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강단이 느껴지는 눈길, 별에란 철색의 얼굴은 발머리에서 흔히 보게 되는 평범한 농군모습 그대로였다.

오만수동무는 무척 반가와했다.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기자들이 몇번 찾아오기는 했지만 작가동무가 오기는 처음입니다. 잘 써주시우.》

그는 매우 소탈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배나무를 맞들고 집오래로 향하였다.

《요전번에도 우리 농장이 도일보에 크게 났었지요. 이번에도 작가동무가 큼직하게 써주시우. 작가, 기자들이 찾아오면 우리한테 힘이 되지요. 세상에 우리 농장이 소개되면 우리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분발하게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도일보를 보니 우리 농장의 성과는 마치도 리당비서 오만수가 잘해서 일이 잘된것처럼 썼는데 제발 그렇게는 쓰지 마시오.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허...》

우리들은 즐겁게 웃었다.

나는 배나무를 어데 심으려는가고 물었다.

《농장원네 집이지요. 그 집으로 말하면 초가마가리 한채없이 조상대대로 머슴살이하다가 해방 후에야 제땅에다 제집을 짓고 살았수다. 그때 뒤울안에 배나무가 있어 동리에서는 <배나무집>으

로 불리웠지요. 그런데 이 봄에 저 야산기슭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배나무가 없어야 <배나무집>으로 불리우겠습니까. 그래서 배나무도 이사를 가지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당일군의 풍모를 새롭게 느끼게 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참으로 농장생활의 갈피마다에는 그의 사색, 그의 고심, 그의 땀이 깃들지 않은데가 없었다.

이윽고 그 집 울안에다 배나무를 옮겨심고 손을 씻자 집주인이 한사코 우리를 집안으로 이끌었다.

결불 안이라더니 바깥 못지않게 집안도 여간만 알뜰하지 않았다.

눈부시게 하얀 벽지를 바른 세칸방에 그쫘하게 차려놓은 가구들-아직도 라크냄새 향긋한 옷장, 이불장이며 옷방에 네다리를 번딘고 선 텔레비존수상기와 금붕어가 꼬리치는 탁상우의 어항... 어느것 하나 탐탁치 않은게 없었다.

마침 우리의 기쁜 마음을 돋구워주기라도 하듯 귀여운 어린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맑은 선율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진정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고 파사로운 당의 품이 있어 오늘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것이 아닌가!

늘 듣는 노래요, 자주 부르는 노래였지만 그것은 여느때없이 나의 가슴속에 다감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라고.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집! 그것은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와 그 시대에 살고있는 인간의 운명을 규정짓는 척도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곳 농장원들의 집을 통해서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농촌마을을 보는듯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지명의 유래를 물었을 때 신심에 넘쳐하던 오만수동무의 말이 다시 가슴을 쳤다.

《유래도 변해야지요. 우리는 향봉리에 새로운 의미를 담고있습니다.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남먼저 나가려는 의미에서 향봉리라고 부른단말입니다.》

그렇다. 공산주의아침노을을 남먼저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지향이 불타고있었기에 그는 20여년째나 저녁길을 걸어 오지 않았던가. 그는 래일도 이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것이다.

아, 공산주의아침노을이 향봉산에 비끼게 될 래일의 이곳 마을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와질것이며 그것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저녁길을 드림이 없이 걸어가는 리당비서 오만수동무와 이곳 사람들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 그 어떤 절승경개라도 이들의 모습보다아 더 아름다울수 있으랴!

속담풀이

△ 락락장송도 근본은 종자

가지가 축 늘어진 큰 소나무도 근본은 씨앗에서부터 이루어진것이라는 뜻으로 근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앞으로 훌륭히 될 사람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물건은 어릴 때나 초기부터 그럴만한 싹이 보인다는것을 이르는 말.

△ 따스한 땅에 물이 고인다.

인품이 좋고 인정이 있는 사람에게 군중의 마음이나 행동이 쏠린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넘어도 안가본 고개에 대고 한숨부터 쉰다.

해보지 않고 겁부터 먹는 나약한 태도를 나무람하여 이르는 말.

△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

위낙 본성이 나쁜것은 아무리 오래 되여도 좋게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 구름없는 하늘에 비올가.

조건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것

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룡담속에 진담이 있다.

비록 룡담으로 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진담이 섞여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물도 끓을 찾야야 큰 장에 든다.

사람은 처음부터 교양을 잘 받아야 바른 길에 들어서 옳게 발전할수 있음을 이르는 말.

△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

목적한바 뜻을 이루려면 비록 위험한곳이라 해도 그것을 무릅쓰고 뜻을 이룩할수 있는곳에 가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잘 싸우는 장수에게는 내버릴 병사가 없고 글 잘 쓰는 사람에게는 내버릴 글자가 없다.

① 무엇이나 재간이 있고 잘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잘 되어나오기마련임을 비겨 이르는 말.

② 무엇이든지 그 리용방도를 탐구하고 유효적절하게 쓸줄만 안다면 버릴것이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일기념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 심사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도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야만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75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일기념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에는 전국 각지의 로동자, 농민, 군인, 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사상에 솔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들과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극, 경방송극, 풍자극.

- 1등 《서천강의 물소리》 리세원
황해북도 사리원시 만금고등중학교 교장
〃 《꿈이 꽃피는 땅》 김동욱
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 《꽃주단》 조형환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 3동
2등 《환갑상》 박종복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로동자
〃 《청와대의 통곡소리》 려종수
량강도 길산군송배전소 로동자
3등 《조국은 기억할것이다》 윤정로
함경북도 길주군 청암협동농장 농장원
〃 《춘보아바이》 채웅선
조선인민군 군인
가작 《전사의 의리》 김철
평양시 대성구역 미산2동
〃 《심장이 불타라》 리명혁
함흥화학공업대학 학생
〃 《리상에 대한 이야기》 한창영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 《두 연구사》 최훈신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 《퇴성이 운다》 최대석
조선인민군 군인

△ 주련속방송극

- 2등 《유쾌한 길동무》(철도수송편) 김형체
철도부 서부철도총국 사무원
2등 《억남이와 재동이》(대학생탄압책동편)

문혜경

- 평양시 만경대구역 순화학교 교원
3등 《유쾌한 길동무》(승리자동차종합공장편)

원명혜

- 평안남도 덕천시 덕천건설사업소 로동자
〃 《억남이와 재동이》(시위과파책동책로편)

안길성

- 평안남도 문덕군 성법협동농장 농장원
〃 《억남이와 재동이》(미군만행책로편) 변군

일

- 평양시 선교구역 남신1동
〃 《유쾌한 길동무》(풍년분배편) 김상렬
평안북도 운전군 룡봉협동농장 농장원

△ 짧은극

- 2등 《안전모》 박병주
남포시 룡강화강석광산 로동자
〃 《일요일에 있는 일》 김황덕
평안남도 청남구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로동자
〃 《특산진상물》 김미하
함경북도 북청군 북청종이생산협동조합 로동자
〃 《오가는 정》 오승식
조선인민군 군인
3등 《첫돌날에》 리영남
황해북도건설자동차수송대 로동자
〃 《직장장의 마음》 장광남
신의주화학섬유련합기업소 로동자
〃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원광렬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대항탄광 로동자
〃 《같은 제목》 리성진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 《심장의 목소리》 배성돈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함흥발브공장
문화회관 관장
〃 《한마음》 장사국
황해북도 봉산군 봉산녀자고등중학교 교원
가작 《잠수공》 김홍열
함경북도 화대군 사포수산사업소 잠수공
〃 《청와대소동》 김병운
평양제1면거리자동차수송대 로동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울분에 떠다

김준학

울음을 운다
울음을 운다
남녘의 자연도
울음을 운다

운다!
운다!
그것은 다만
눈물 흘림만이 아니다

운다!
운다!
그것은 다만
슬픔만이 아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한 투사인양
소나무는 하늘높이 머리들고
울분에 떠다
버들은 푸른 머리수건에 얼굴을 고이 묻고
강변에 서서 아낙네인양 흐느적이며
이슬을 떨군다

싸리며 해당화며 정향나무는 계집애인양
치마자락에 온몸을 묻고 다소곳이 앉아
울음을 운다
단풍나무며 방울나무며 추리나무는
억울한 사람마냥 두팔로 가슴을 치며
울음을 운다

계곡의 시내며 강이며 폭포는
골짜기의 돌과 흙에 몸을 뒤채기며
떼쓰는 아이마냥 울음을 운다
산과 산은 꼬리물고 줄줄이 잇달려
절을 하듯 평지에 엎드리며 울음을 운다
자연은
양키와 매국에 더럽혀진 순결을 두고
울분에 떠다

무정한 하늘이여 보느냐
달이여, 별이여
그 맑은 눈동자로 보느냐
우뢰여 듣느냐, 번개여 너 보느냐
오늘도 미국놈의 총에 우리 동포가 무참히
쓰러졌다
매국노를 저주하며 대학생이 온몸에 불을 달았다

울지를 말자
울지를 말자
동포여, 우리는 울지를 말자
무심한 자연마저 울음을 운다고
우리마저 울소냐
의지의 수리개보다
강토에 사무친 울분을 터쳐
행동의 수리개에 더 억센 나래를 달자

그 퍼덕임속에
고려의 유적에 새겨진 룡들도
보금자리에서 뛰쳐나오리라

뛰쳐나와
노한 눈빛으로 콩크리트장벽을 녹여버리고
그자리에 통일문을 세우리
철조망을 녹이여 남해를 지키는
군함을 만들리

그때는 정녕 그때는
삼해의 물을 마시고 하늘로 날아올라
그 물로 분수마냥 내뿜으리
남북의 하늘가에 영원히
무지개다리가 수놓아지게

...
고려대학의 학우들이여
서울, 연세, 성균관 대학의 젊은 용사들이여
치욕에 떠는 강토의 울분을 안고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의 아성을 향해
육탄이 되어 매진하라

운다
운다
복수를 다짐하는 가슴에도
왜서인지 격정의 눈물이 솟는다

운다
운다
기어이 안고살 래일의 기쁨을 두고
그 눈물을 생명수 삼아 새 고려의 《룡》이 자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위대한 공민들이 태어난다

남녘에 부치노라

리영복

자연의 봄은 예나 다름없이 찾아와
남녘의 산과 들에도
봄색은 움트고있건만
거기 밭갈고 씨를 묻은 농민들
갈라터지고 말라시든 논밭머리 에돌아
정든 고향을 하직한다는 비통한 소식

남해바다는 예나 다름없이
기슭의 쪽배들을 다정히 어루만지며
정다운 사람들을 목놓아부르건만
거기서 굴따고 조개쪼던 해녀들이
《이민선》에 실려간다는 절통한 소식

봄은 와도 언 가슴 녹을줄 모르고
가을은 와도 수확할것 없는
빼앗기고 짓밟히운 땅
빛이 없고 즙이 없는 땅에서
더는 살수 없어 자유를 부른 학도들을
쇠사슬로 묶어 투옥하고,

피타는 민족의 념원 안고
통일과 민주를 주장한 인사들을
파쑈독재의 울가미에 걸어
협박하고 처형한다는 기막힌 소식
오, 날마다 신문과 방송이 전해주는 소식이며

심장이 뻐그러질듯
가슴이 찢어진다
아리고 쓰린 아픔을 참으며
수십년을 쌓아온 울분과 분노
가슴을 치며 증오의 불길로 솟게 하는구나
온 겨레가 통일의 념원 안고
상봉의 시각을 향해가는 이 봄

남녘에 벌어지는 살벌한 참상이여!
어느놈이나, 겨레의 이 지향을 가로막고
분렬을 고창하며
통일의 길을 총칼로 막아나선놈은!
어느놈이나. 외세의존으로 《변영》을 꿈꾸며
민족의 념원을 거역해나선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노는!...

남으로 굽이치는 정
북으로 달려오는 정
그 어떤 장벽인들 막는다더냐
분노한 가슴에 번개를 일कु며
폭풍을 휘몰아 봄우뢰 터치는가
얼어붙은 대지의 가슴을 적시며
억만의 봄색이 두터운 땅을 치뚫고 솟는
이 봄, 투쟁의 봄은
그대들을 부르나니, 남녘을 부르나니

학원을 빼앗긴 청년학도들이여
해고당한 남녘의 로동자들이여
리농의 보짐을 꾸리는 농군들이여
달아오른 마치와 쟁기를 추켜들고 나서라!
하루의 일자리를 찾기전에 먼저
영원한 민주의 터전을 닦기 위해

진정 참된 자유의 봄을 위해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해
온 남녘이 떨쳐나 뒤집어엎자
썩고 병든 암흑의 사회를!
영원한 태양의 빛발속에
삶이 꽃필 그날을 위하여-